

연구보고 2013-26

취약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장명립 권미경 김혜진 공요은

머 리 말

본 연구는 2009년도부터 본 연구소에서 추진해 온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금년도에는 취약가족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 모형과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취약가족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2013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향후 다문화가족의 유아들도 대부분 취학 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유아와 부모 지원 방안을 기본으로 제안하되, 기존의 취약계층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및 국가 전달·지원체계와의 연계·지원을 포함하는 지역 내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추진 과정에서 필요했던 자료수집, 협의회,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에 참여해 주신 정부 부처 담당관들,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부모님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들, 관련 전문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 방안이 이후 정부 부처, 지자체 및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여러가지 제약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충실한 성과물을 산출한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201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3
3. 연구 방법	13
4.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18
5.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 개요	20
II. 연구의 배경	36
1. 다문화가족 기본 현황	36
2.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39
3.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	64
4. 소결	76
III.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요구 분석	78
1. 조사 참여자 특성	78
2.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환경	82
3.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특성	87
4. 다문화가족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및 요구	106
5. 소결	127
IV.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자료 활용	131
1.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정판 발간	131
2. 'KICCE 부모교육 핸드북' 활용	138
3. 프로그램 및 자료 활용 방안	143
V.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 및 정책 제언	147
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방안	147
2. 정책 제언	156

참고문헌	158
Abstract	162
부록	163
부록 1.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요약)	165
부록 2. 육아지원기관 이용 부모지원 의견조사표 2종	170
부록 3.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활동계획안 예시	197

표 차례

〈표 I-3- 1〉 설문조사 대상 표집: 다문화가족	15
〈표 I-3- 2〉 설문조사 내용	15
〈표 I-3- 3〉 면담 대상 다문화가족 어머니 특성	16
〈표 I-5- 1〉 정부부처 취약계층 지원 사업별 전달체계 및 참여인력	21
〈표 I-5- 2〉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 종합·정리	25
〈표 I-5- 3〉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운영 매뉴얼 목차	26
〈표 I-5- 4〉 영유아 통합지원 모형 동영상 구성	28
〈표 I-5- 5〉 사이트 구성 내용	33
〈표 II-1- 1〉 외국인 주민 규모: 2011-2012년	36
〈표 II-1- 2〉 다문화가족의 자녀수: 2012년	37
〈표 II-1- 3〉 다문화가족의 국적별 자녀수: 2012년	38
〈표 II-1- 4〉 다문화가족의 지역별 영유아 자녀수 및 비율: 2012년	39
〈표 II-2- 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세부과제	40
〈표 II-2- 2〉 중앙 및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현황: 2009-2012년 ...	41
〈표 II-2- 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세부과제	42
〈표 II-2- 4〉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0-2012) 세부과제	44
〈표 II-2- 5〉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 영역별 예산 비율: 2011-2012년	45
〈표 II-2- 6〉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세부과제	46
〈표 II-2- 7〉 중앙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2008-2013년	47
〈표 II-2- 8〉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2012-2013년 ...	49
〈표 II-2- 9〉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지원 정책: 2013년 ...	50
〈표 II-2-10〉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부모대상 교육지원 정책: 2013년 ...	51
〈표 II-2-11〉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환경 조성 정책: 2013년 ...	52
〈표 II-2-12〉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인력 관련 정책: 2013년 ...	53
〈표 II-2-13〉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결혼이전 시기 정책: 2013년 ...	54
〈표 II-2-14〉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초기적응 지원 정책: 2013년 ...	54
〈표 II-2-15〉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1): 2013년 ...	55
〈표 II-2-16〉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2): 2013년 ...	57

〈표 II-2-17〉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여가생활 정책: 2013년	58
〈표 II-2-18〉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정책: 2013년	58
〈표 II-2-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내용: 추진체계 주체별	60
〈표 II-2-20〉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수립 지원 정책: 2013년 ...	62
〈표 II-2-21〉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인식 제고 정책: 2013년	63
〈표 II-3- 1〉 2011년 육아정책연구소 다문화 연구의 주요 정책방안	68
〈표 II-3- 2〉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통합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72
〈표 II-3- 3〉 다문화가정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요	73
〈표 II-3- 4〉 다문화가정 부모 지원 교육 자료	74
〈표 II-3- 5〉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74
〈표 II-3- 6〉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75
〈표 III-1- 1〉 조사참여자 일반적 특성	79
〈표 III-1- 2〉 조사 참여자 한국 거주기간: 다문화가족 출신국가별	80
〈표 III-1- 3〉 조사 참여자 한국어 실력: 다문화가족 출신국가별	81
〈표 III-2- 1〉 집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	82
〈표 III-2- 2〉 부부 중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	83
〈표 III-2- 3〉 자녀 양육 정보를 얻는 기관: 중복응답	85
〈표 III-2- 4〉 자녀 양육 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86
〈표 III-3- 1〉 자녀 대상 출신국 언어교육 여부 및 교육자: 다문화가족(중복응답)	87
〈표 III-3- 2〉 향후 자녀 대상 출신국 언어교육 계획: 다문화가족	88
〈표 III-3- 3〉 자녀에게 출신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도: 다문화가족	89
〈표 III-3- 4〉 자녀에게 출신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다문화가족	90
〈표 III-3- 5〉 자녀에게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로서 갖는 생각: 다문화가족	91
〈표 III-3- 6〉 자녀 양육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유리한 점: 다문화가족	92
〈표 III-3- 7〉 자녀 양육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불리한 점: 다문화가족	93
〈표 III-3- 8〉 모의 자녀 양육 태도: 5점 척도	94
〈표 III-3- 9〉 모가 인식한 부의 자녀 양육 태도: 5점 척도	95
〈표 III-3-10〉 모가 인식한 부의 자녀 양육 참여: 5점 척도	96
〈표 III-3-11〉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97
〈표 III-3-12〉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한 시대과의 갈등	98
〈표 III-3-13〉 지난 3개월 간 자녀와 문화생활을 경험한 비율	99

〈표 III-3-14〉 모의 자녀 양육 기술 종합 점수: 4점 척도	100
〈표 III-3-15〉 모의 자녀 양육 기술(의복, 음식 및 주거제공의 역할): 4점 척도	101
〈표 III-3-16〉 모의 자녀 양육 기술(건강유지, 신체적, 인지적 지원의 역할): 4점 척도 · 103	
〈표 III-3-17〉 모의 자녀 양육 기술(언어/정서/사회적 지원의 역할): 4점 척도	104
〈표 III-3-18〉 모의 자녀 양육 기술(규범/가치형성, 훈육, 놀이지원, 사회연계의 역할): 4점 척도	105
〈표 III-4 1〉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지불 여부: 집단비교	107
〈표 III-4 2〉 육아지원기관 월평균 이용비용	107
〈표 III-4 3〉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부담 정도	108
〈표 III-4 4〉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부담 정도: 다문화가족	109
〈표 III-4 5〉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도움 정도	110
〈표 III-4 6〉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111
〈표 III-4 7〉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112
〈표 III-4 8〉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도움 정도	113
〈표 III-4 9〉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프로그램	114
〈표 III-4-10〉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프로그램	115
〈표 III-4-11〉 육아지원기관 내 관계 상 어려운 측면	116
〈표 III-4-12〉 원장, 교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다문화가족	117
〈표 III-4-13〉 육아지원기관 가정통신문 해독 시 모의 어려움 정도: 다문화가족	118
〈표 III-4-14〉 자녀의 준비물·과제 준비 시 모의 어려움 정도: 다문화가족	119
〈표 III-4-15〉 알림장 해독·준비물 준비 어려움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다문화가족	120
〈표 III-4-16〉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시 관심 주제	121
〈표 III-4-17〉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시 관심 주제: 다문화가족	122
〈표 III-4-18〉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시 참여 의사	123
〈표 III-4-19〉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 불참 이유	125
〈표 III-4-20〉 모의 육아지원기관 내 부모참여 활동: 중복응답	126
〈표 III-4-21〉 모의 다문화수용 태도: 비다문화가족(4점 척도)	127
〈표 V-1- 1〉 유아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2011) 개요	132

〈표 V-1-2〉 유아 다문화 교육 요소	135
〈표 V-1-3〉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활동계획안의 수정·보완 사항	137
〈표 V-2-1〉 KICCE 부모교육 핸드북의 주제 영역 및 제목	138

그림 차례

[그림 I-5- 1]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22
[그림 I-5- 2]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절차 및 방법	23
[그림 I-5- 3] 취약계층 연구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	24
[그림 I-5- 4] 통합지원 모형 소개	29
[그림 I-5- 5]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소개	30
[그림 I-5- 6]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소개	30
[그림 I-5- 7] 유아용 개념학습활동 자료 소개	31
[그림 I-5- 8] 부모용 프로그램 소개	31
[그림 I-5- 9]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적용	32
[그림 I-5-10] 영유아 통합지원 사이트 메인 홈 화면	34
[그림 I-5-11] 영유아 통합지원 사이트의 사이트맵	35
[그림 II-2-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체계	60
[그림 III-1- 1] 조사 참여자 한국어 실력: 다문화가족 출신국가별	81
[그림 III-2- 1] 부부 중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 다문화/비다문화별 ...	84
[그림 III-2- 2] 부부 중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 출신국가별	84
[그림 III-3- 1] 모의 자녀 양육 태도: 5점 척도	94
[그림 III-3- 2] 모가 인식한 부의 자녀 양육 태도: 5점 척도	95
[그림 III-3- 3] 모가 인식한 부의 자녀 양육 참여	96
[그림 III-3- 4] 지난 3개월 간 자녀와 문화생활을 경험한 비율	99
[그림 III-3- 5] 모의 자녀 양육 기술 총합 점수	101
[그림 III-3- 6] 모의 자녀 양육 기술(의복, 음식 및 주거제공의 역할)	102
[그림 III-3- 7] 모의 자녀 양육 기술(건강유지, 신체적, 인지적 지원의 역할)	103
[그림 III-3- 8] 모의 자녀 양육 기술(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의 역할)	104
[그림 III-3- 9] 모의 자녀 양육 기술(규범/가치형성 훈육, 놀이지원 사회연계의 역할) ..	106
[그림 III-4- 1]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	111
[그림 III-4- 2]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프로그램 ...	114
[그림 V-2- 1] KICCE 부모교육 핸드북	139
[그림 V-1- 1] 개별 유치원/어린이집의 다문화가족 지원 모형	153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본 연구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중점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가족 중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 ☐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 보고,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특성과 다문화가족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의 자녀 양육 특성 및 다문화국가별 부모의 자녀 양육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취약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둠.

나. 연구내용

- ☐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정책 분석
-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환경, 양육 특성, 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 분석
- ☐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자료 보완·활용
 -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보완, ‘KICCE 부모교육 핸드북’ 활용, 프로그램 및 자료 활용 방안 모색
- ☐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 모색 및 정책 제언

다. 연구방법

- ☐ 문헌 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 다문화가족 기본 현황,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현황을 파악함.

- 다문화가족 관련 자녀 양육, 양육 지원, 다문화자녀 적응,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함.

□ 설문조사

- 조사시기 및 지역: 2013년 8월-10월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조사대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어머니 530명, 비다문화가족 어머니 428명
- 조사방법: 다문화가족 국적별 유아 자녀가 많은 순서대로 중국(조선족/한족), 베트남, 필리핀 3개 국가를 선정하고, 최소 할당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함. 전문조사원의 갱서베이를 기본으로 진행하되 개별면접 및 기관을 통해 가정으로 설문지를 보낸 후, 회수하는 방식을 병행함. 설문지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3개 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질문지와 함께 사용함.
- 조사내용: 가구 일반현황, 가정의 자녀 양육 환경 및 양육 수준, 육아지원 기관 이용 현황 및 요구

□ 다문화가족 어머니 대상 면담

- 대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다문화가족 어머니 총 7명

□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 내용: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바람직한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 다문화가족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센터 연계 통합적 지원 방안, 지원 시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

□ 교사협의회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유아를 지도하는 데 어려운 점 및 부모교육 실시, 가정과의 연계 및 상담 시의 어려운 점 등

□ 프로그램 및 자료 보완·활용

-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보완, ‘KICCE 부모교육 핸드북’ 활용

2. 연구의 배경

가. 다문화가족 기본 현황

- 정부 차원의 외국인노동자·결혼이민자 이주 정책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장기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다문화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수는 2012년 기준 총 168,583명임.
 - 영아 자녀의 비율이 비교적 높아, 취학 전 영유아 자녀는 총 95,745명으로 약 56.8%이며, 0-2세 영아는 52,565명, 3-5세 유아는 43,180명임.
 - 장기체류 다문화가족 총 48,681명 중 50.8%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임. 절반에 가까운 다문화가족은 수도권에 밀집하여 살고 있음.

나.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7년 7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함.
 - －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 시행함. 이는 외국인정책의 개념을 최초로 규정하고, 새로운 정책분야의 범정부적 추진 기반을 조성한 것임.
 - －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 추진을 위한 146개의 세부 추진과제는 17개 부처에서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임.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 정부는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9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0-2012)」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보완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재구성함.
-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예산: 2013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로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있으며, 총 1,000억여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함.
 -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예산은 2013년 총 약 846억원 규모

임. 2012년 1,260억원에 비해 약 415억원, 약 32.9% 감소함. 이는 2013년부터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이 전 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통합되어 전년 도에 비해 예산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실제 지원은 유사한 수준임.

- 2013년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을 교육지원, 생활지원, 다문화지원센터 지원, 정책수립 지원, 다문화 인식제고 정책으로 분류하고 정리함.

다.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기능을 강화하고,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1)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 2)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연구, 3)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족 적응 및 지원 관련 연구, 4)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봄.

3.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요구 분석

가. 조사 참여자 특성

- 어머니의 연령은 다문화가족 평균연령(31.7세)이 비다문화가족(35.6세)에 비해 낮음. 남편의 연령은 다문화가족 남편 평균연령(43.7세)이 비다문화가족(38.3세)보다 높음.
- 전체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거주 년 수는 평균 7.58년임. 조선족 출신은 평균 9.05년, 필리핀 8.29년, 한족과 베트남 출신 각각 7.06년, 6.58년임.
- 다문화가족 어머니 전체의 과반수 이상인 52.1%가 한국어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다고 보고함. 한국어 실력은 출신국가별로 차이를 보여 조선족 이외 국가 출신 어머니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나.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환경

-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부부의 양육 참여정도, 양육 정보처, 양육 도움처

를 중심으로 조사함.

- ☐ 주 양육자는 다문화가족(74.3%)과 비다문화가족(84.1%) 모두에서 어머니 본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남편의 부모이라는 응답이 다문화가족에서 13.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
- ☐ 부부의 양육 참여정도는 어머니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다문화가족의 경우 63.8%, 비다문화가족 78.3%로 두 집단 모두에서 주류를 이룸. 다문화가족에서 남편의 참여가 더 많다는 응답(10%)과 반반 참여한다는 비율(26.2%)이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임.
- ☐ 양육 정보처는 다문화가족(82.8%)과 비다문화가족(76.9%) 모두 자녀가 재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 양육 도움처로는 비다문화가족 어머니는 50.2%가 친정식구,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시댁식구(35.7%)와 결혼이민자 친구(15.3%)의 순으로 나타남.

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특성

- ☐ 다문화가족 배경 관련 자녀 양육 현황
 - 46.6%에서는 어머니 모국어를 가르치지 않으나 그 중 70%의 어머니는 향후 가르치려 함.
 - 자녀에게 어머니 출신국에 대해 ‘가끔 이야기 한다’는 비율 58.1%임.
 - 다문화가족임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장점을 인식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49.2%로 위축을 염려하는 경우 37.7% 보다 높음.
 - 다문화가족이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강점으로 38.5%는 이중언어습득, 18.9%는 이중문화의 습득, 15.5%는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14.3%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혜택으로 응답함.
 - 다문화가족이어서 불리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언어문제로 인한 긴밀한 상호작용 한계’가 34%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 부모역할
 - 비다문화가족 아버지들이 다문화가족 아버지들에 비해 다소 더 다정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경향을 보임.

- 비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가 다문화가족 아버지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

□ 가족 내 자녀 양육 관련 갈등

-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는 비율은 다문화가족 57.2%, 비다문화가족 58.2%로 유사함. 갈등처리의 주도권은 다문화가족에서 남편의 의견에 따른다는 비율이 높음.
- 양육 문제로 인한 시댁과의 갈등 경험 비율은 다문화가족 22.6%, 비다문화가족 17.8%로 조사되어 그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음.
- 다문화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양육 주도권이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약함.

□ 문화생활 경험

- 지난 3개월 동안 자녀와 방문한 곳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족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경험비율이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 자녀 양육 기술

- 자녀 양육을 위한 실제적인 부분으로 양육 기술을 4가지 범주로 구분 - 1) 부모의 의식주 제공과 관련된 부분, 2) 건강유지, 신체 및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는 부분, 3) 언어 정서 사회적 지원정도, 4) 규범 및 가치, 훈육, 사회와의 연계 등을 유형 기준으로 함.
- 이 네 가지 범주 중 규범 및 가치, 훈육, 사회와의 연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주에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 기술이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 기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라. 다문화가족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및 요구

□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 다문화가족 중 68.5%, 비다문화가족의 73.4%는 매월 추가 비용 지불함.
- 기관 이용비용이 부담되는지에 대해 다문화가족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낀다가 37.2%, 비다문화가족은 보통 수준이 26.4%로 높음.

□ 육아지원기관의 자녀 지원 프로그램

-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가족은 다문화가족의 59.2%, 기본적인 발

달검사 및 건강진단 51.9%, 전체 유아 대상의 다문화교육 45.5%, 방과 후 특별지도 프로그램이 38.1% 순으로 나타남.

☐ 육아지원기관의 부모 지원 프로그램

- 원장 혹은 교사와의 1:1 상담이 62.5%, 자녀의 수업에 함께하는 부모참여 수업 55.8%, 한국어 교육 37.2% 순으로 나타남.

☐ 육아지원기관 내 어려움

- 다문화가족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42.1%. 기관행사 참여를 위한 시간 마련 어려움 23.6%,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비율이 23.4%임.

☐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참여

-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영유아의 발달에 관한 부모교육(29.1%)을 가장 원함. 자녀의 기관에서 부모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면 다문화가족 어머니 중 약 60%는 가능한 참여하겠다고 응답함.

☐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다문화수용 태도

- 비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 이해는 높은 수준임.

4.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자료 활용

가.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정판 발간

- ☐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개발된 것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아교육기관의 유아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반편견, 평등성, 협력 등 다문화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것임.

- ☐ 기존 프로그램이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과 유치원지도서(2009)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2012년 고시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참고하여 활동연령, 생활주제, 교육과정 관련요소, 활동목표를 수정·보완함.

나. ‘KICCE 부모교육 핸드북’ 활용

- ☐ 0-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30개 주제에 대해, 자녀의 연령에 관련 없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함.
- ☐ 국가와 문화, 신체, 건강, 안전, 놀이와 학습, 인지와 언어발달, 사회 및 정서 발달, 훈육, 다양한 가족, 정신건강 및 지역사회기관 등이 주제 영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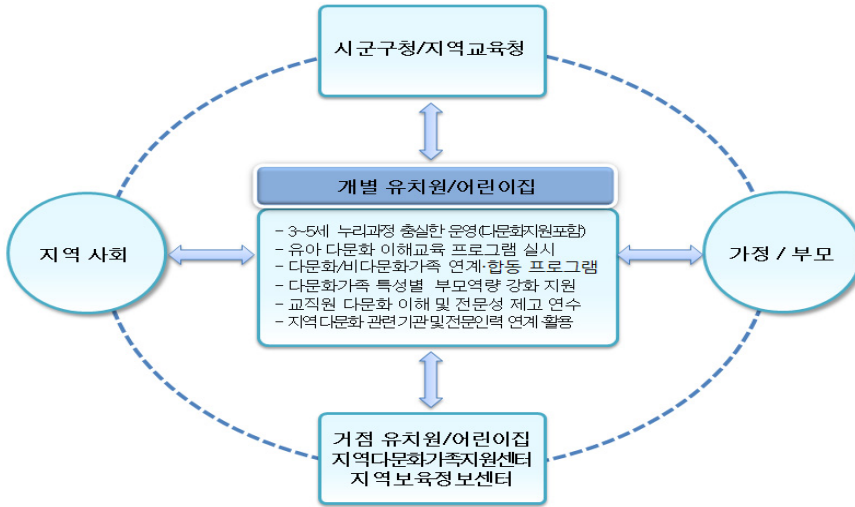
다. 프로그램 및 자료 활용 방안

- ☐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개정판)’ 활용 방안으로 누리과정에 근거한 유아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실시, 다문화가정 연계 및 부모 자녀 양육 지원의 일환으로 활용을 제안함.
- ☐ ‘KICCE 부모교육 핸드북’ 활용 방안으로 다문화가족 부모 개별 상담 시 활용하는 방법과 부모교육 소집단 모임 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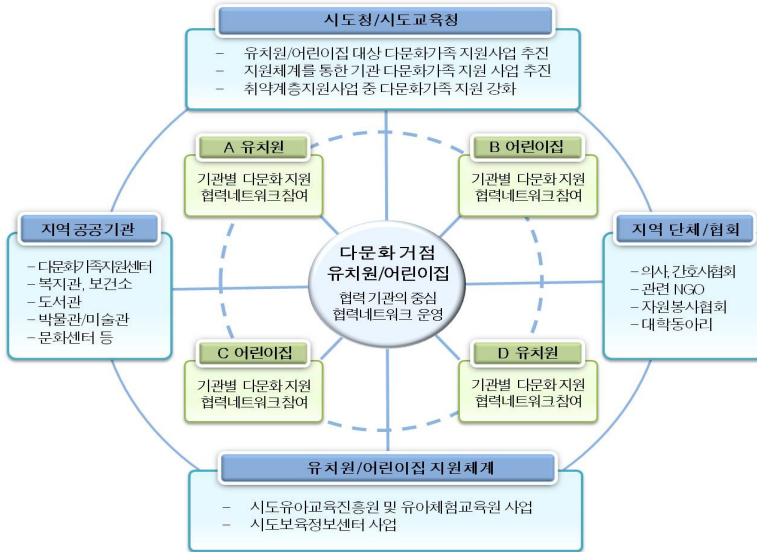
5.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 및 정책 제언

가.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방안

- ☐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3-5세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
 -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부모 연계·합동 프로그램 실시
 - 다문화가족 특성별 부모역량 강화 지원
 - 교직원의 다문화 이해 및 전문성 제고 연수
 - 지역사회 다문화 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연계·활용
 -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을 <그림 1>로 제시함.
- ☐ 다문화 거점 유치원/어린이집 중심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거점 유치원/어린이집, 시도청/시도교육청 및 지원체계,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협회를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함.



[그림 1] 개별 유치원/어린이집의 다문화가족 지원 모형



[그림 2] 다문화 거점 유치원/어린이집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모형

나. 정책 제언

- ☐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사회적 적응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정책이 필요함.
- ☐ 육아지원기관 재원 다문화가족 유아를 위한 추가적 비용지원이 필요함.
- ☐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는 거점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통합 지원체계를 갖추고 지원해야 함.
- ☐ 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를 위한 표준화된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시행되어야 함.
- ☐ 다문화가족 유아와 부모를 위한 정보·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취학 전 유아교육은 기회 평등 및 공정한 출발의 관점에서 공교육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취학 전 모든 유아에게 거주 지역이나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경험의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학습능력 격차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른 생애 초기 교육격차를 감소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장명림 외, 2010). 선진국들은 취약계층 영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출발선 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 사업(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위스타트와 기업이나 민간이 주관하는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시소와 그네와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취약계층 가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의 만족도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취약계층 가정의 유형별로 보다 적합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장명림 외, 2009).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취약계층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2009년도부터 5차년도 연구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1차년도 연구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2차년도 연구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I):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3차년도 연구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II):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4차년도 연구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추진하였다.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와 함께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를 별도로 제시하고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들의 원활한 사회통합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5. 28). 한국 사회의 취약한 가정 배경으로 경제적 빈곤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이 고려되어 왔으나 최근 10년 간 사회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상교육과 함께 만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정책 도입으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의 유아기 자녀들이 취학 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유아들이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유아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문제는 영유아의 기관 생활 및 적응상의 문제 보다는 다문화 어머니의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수준 및 자녀 지도에 대한 관심과 역량 등의 어머니 변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장명림 외, 2011). 향후 육아지원기관에 보다 많은 다문화가족 영유아기 자녀가 재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중점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가족 중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특성과 다문화가족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간의 자녀 양육 특성 및 다문화가족별 부모의 자녀 양육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취약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육아지원기관의 교사들이 다문화가족 유아와 비다문화가족 유아가 함께 있는 일반 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 부모 지원을 위한 도움말이 포함된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개정판)’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 정책 분석

- ☐ 다문화가족 기본 현황
-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현황
- ☐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 분석

나.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요구 분석

-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환경
-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특성
- ☐ 다문화가족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및 지원 요구

다.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자료 보완·활용

- ☐ '유아 다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 보완
- ☐ 'KICCE 부모교육 핸드북' 활용
- ☐ 프로그램 및 자료 활용 방안

라.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 모색

-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
- ☐ 정책 제언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 ☐ 다문화가족 기본 현황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현황

-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 분석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족 자녀 적응 및 지원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나. 설문조사

□ 조사 시기: 2013년 8월 - 10월

□ 조사 대상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어머니 530명, 비다문화가족 어머니 428명
-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 양육 수준을 일반가정 어머니와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기관에서 두 집단을 표집하여 대상으로 함.

□ 조사 방법

- 조사 대상 지역: 다문화가족 유아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6개 지역
 - －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
- 조사대상 국적
 - －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2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국적별 유아 자녀가 많은 순서대로 중국(조선족/한족), 베트남, 필리핀 3개 국가를 선정하고, 조사대상 국적은 최소 할당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함.
- 다문화가족 유아가 많은 6개(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다문화가족 유아 현황을 파악한 뒤, 기관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어머니를 임의표집함.

- 비다문화가족의 경우, 전문조사원이 기관을 통해 가정으로 설문지를 발송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다문화가족의 경우, 전문조사원이 주관하여 갱서베이를 기본으로 진행하되 개별면접 및 기관을 통해 가정으로 설문지를 보낸 후, 회수하는 방식을 병행함.
- 다문화가족 어머니용 설문지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3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질문지와 함께 사용함.

〈표 1-3-1〉 설문조사 대상 표집: 다문화가족

단위: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계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서울	37(25)	28(20)	-	-	-	-	37(25)	28(20)
경기	-	-	94(67)	38(41)	33(30)	15(9)	127(97)	53(50)
충남	-	-	24(18)	3(6)	48(30)	22(20)	72(48)	25(26)
전남	-	-	26(16)	-	48(34)	3(4)	74(50)	3(4)
경북	-	-	27(23)	3(4)	34(23)	6(8)	61(46)	9(12)
경남	-	-	21(23)	1(3)	18(20)	1(4)	39(43)	2(7)
총계	37(25)	28(20)	192(147)	45(54)	181(137)	47(45)	410(309)	120(119)
	37(25)	28(20)	192(147)	45(54)	181(137)	47(45)	530(428)	

주: 괄호 안은 비다문화가족 대상 수

□ 주요 조사 내용

〈표 1-3-2〉 설문조사 내용

주요 영역	세부 조사 내용
가구 일반현황	- 가구원, 가구소득, 자녀 수, 연령 - 어머니 출신국가, 연령, 교육수준, 한국 거주기간 ¹⁾ , 한국어 실력 ¹⁾ - 배우자(남편) 교육수준
가정의 자녀 양육 환경 및 양육 수준	- 양육조력기관, 양육조력자, 주양육자 - 자녀의 모출신국 언어습득 여부 ¹⁾ -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기대, 양육 태도 - 어머니의 양육역할수행 수준 정도 - 아버지의 양육 태도, 양육 참여, 가족 내 양육 관련 갈등문제 - 자녀와의 여가문화생활 수준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및 요구	- 기관 이용여부, 비용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¹⁾ , 혜택 ¹⁾ 만족도, 이용 시 어려움, 부모교육 관련 추가요구사항 ¹⁾ - 다문화수용성 ²⁾

주 1) 다문화가족에만 해당되는 질문

2) 비다문화가족에게만 해당되는 질문

다. 다문화가족 어머니 면담 실시

- ☐ 대상 지역: 서울, 경기, 경남 지역
- ☐ 참석 대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다문화가족 어머니 총 7명
- ☐ 면담 목적: 설문조사에서 사용할 질문지 문항 구성의 적합성, 응답지의 포괄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 환경, 양육 특성, 양육 시 어려운 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바라는 점, 향후 정부 지원 정책 요구사항 등에 대해 면담을 실시함.
- ☐ 주요 면담 일정
 - 1차 다문화가족 어머니 면담: 경기도 안산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13. 6. 24)
 - 2차 다문화가족 어머니 면담: 경기도 수원 다나어린이집('13. 7. 2)
 - 3차 다문화가족 어머니 면담: 경상남도 김해 장유유치원('13. 7. 3)

〈표 1-3-3〉 면담 대상 다문화가족 어머니 특성

구분	출신국	지역	연령	자녀연령	한국어수준	한국거주기간
A	몽골	안산	27	만3-5세	상	8년
B	중국	안산	34	만3-5세	최상	10년2개월
C	베트남	수원	39	만3-5세	중	10년
D	캄보디아	창원	26	만3-5세	상	6년
E	중국	창원	32	만3-5세	상	10년
F	베트남	창원	29	만3-5세	중	6년
G	베트남	창원	26	만3-5세	최상	8년

주: 자녀연령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함.

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바람직한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
 - 교사용 자료 및 연수 방안
 - 유아 대상 프로그램과 실시 방안
 - 부모교육 및 가정연계 방안

- ☐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요소
 - 다문화어머니의 양육 특성 이해에 기반한 지원
 - 다문화어머니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전략
- ☐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센터 연계 통합적 지원 방안
- ☐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시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

마. 교사협의회 개최

- ☐ 대상 지역: 서울, 경기, 경남 지역
- ☐ 참석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 * 다문화가족 어머니 면담 기관과 동일
- ☐ 주요 협의 내용: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유아를 지도하는 데 어려운 점 및 부모교육 실시, 가정과의 연계 및 상담 시의 어려운 점 등

바. 프로그램 및 자료 보완·활용

1)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보완

- ☐ 본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정책과, 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개발한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2011)¹⁾>을 본 연구에서 수정·보완하여 개정판을 발간²⁾하는 것임.
- ☐ 프로그램 활동계획안의 주요 수정 사항
 - 기존 프로그램이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과 유치원지도서(2009)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2012년 새롭게 고시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참고

1)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2011).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책임연구원 장명립, 공동연구원 김영옥, 서현, 차선미, 이세원.

2) 개정판 발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프로그램 책자 내에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처, 주관처, 수행처 등을 명시하고, 수정·보완하여 재발간하는 것임을 밝힘.

하여 활동 연령, 생활주제, 교육과정 관련요소, 활동목표를 수정·보완함.

-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이 육아지원기관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기능 강화에 있으므로 활동계획안 마지막 부분에 ‘다문화 가정·유아를 위한 도움말’을 추가하여, 기관과 가정의 연계 및 다문화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 프로그램 수정·보완 작업에는 기존 개발팀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금년도 연구팀이 제시한 수정·보완 기준에 따라 일관성있게 공동작업을 하였음.

2) ‘KICCE 부모교육 핸드북’ 활용

□ 본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기 개발된 자료로서, 취약계층 가정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의 주제 30개의 핸드북(소책자) 30권 한 세트에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핸드북을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면담 및 소집단 워크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 방법을 추가로 제시하였음.

4.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가.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 5차년도 사업으로 기존의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일반 취약계층 가정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세분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연구를 통해서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통합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 2009년도 당시 일반 취약계층 사업 외에 탈북가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통일부의 탈북가정 지원 사업인 하나센터사업을 포함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사업의 요

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영유아용 및 부모용 교육자료와 전문인력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매뉴얼과 동영상(DVD) 등을 개발·보급하였으며, 이 모든 자료를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http://ybl.kicce.re.kr>)를 구축하고 자료를 탑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 결과, 취약계층 가정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금년에는 취약가족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가정 특성과 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어머니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국적별 유아기 자녀수가 많은 중국(조선족/한족), 베트남, 필리핀 3개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정부의 누리과정 시행으로 2013년부터는 대부분의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것을 감안하여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료는 교육부와 본 연구소가 기존에 개발한 프로그램 및 자료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수정·보완하거나 다문화가족 대상 활용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식을 취하여 국가의 중복 투자를 배제하고 정책 제언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다른 취약가정 유형별(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로도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수혜가족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있게 법적 용어인 ‘다문화가족’으로 사용하였으나, 기존 선행연구 및 자료, 정부 사업명 등에 다문화가정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원표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아닌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비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문화가족에 대응되는 용어로 일반가족(정)을 사용하기도 하나,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다문화가족 부모의 양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다문화가족이 아닌 다른 일반가족(정)을 비다문화가족으로 지칭하였음을 밝혀 둔다.

5.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 개요³⁾

가.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개요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기본 구성 요소는 전달체계, 프로그램, 전문인력, 사업 간 연계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 내에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영유아에게는 바람직한 교육적 발달 지도 프로그램, 부모에게는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 영유아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사 및 참여인력에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료와 연수를 제공하고, 지역 내 영유아 대상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육아지원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정부부처 취약계층 지원 사업별 전달체계와 참여인력은 <표 I-5-1>과 같다.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이란?

- ▶ 기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 내에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둘째, 영유아에게는 바람직한 교육적 발달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셋째, 부모에게는 영유아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넷째, 교사 및 전문인력에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료와 연수를 제공하고,
다섯째, 지역 내 영유아 대상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육아지원 모형임.

³⁾ 본 절은 1차년도 연구(장명립 외, 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 :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2차년도 연구(장명립 외, 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I) :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3차년도 연구(장명립 외, 2011.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II) :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4차년도 연구(장명립 외, 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 :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보고서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임.

* 연구보고서의 제목은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이나, 현장에서 활용되는 모형, 프로그램 및 자료 등에는 대상자에게 주는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프로그램, 자료 등의 명칭을 사용함.

〈표 I-5-1〉 정부부처 취약계층 지원 사업별 전달체계 및 참여인력

정부부처명 (담당과)	사업명	전달체계	참여인력 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지역교육청 및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영유아 조정자 유치원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지역교육청 및 공립유치원	희망유아교육사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과)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센터	센터장 보육교사 (보육담당자)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가정 정착지원 사업	하나센터	하나센터 직원 지역 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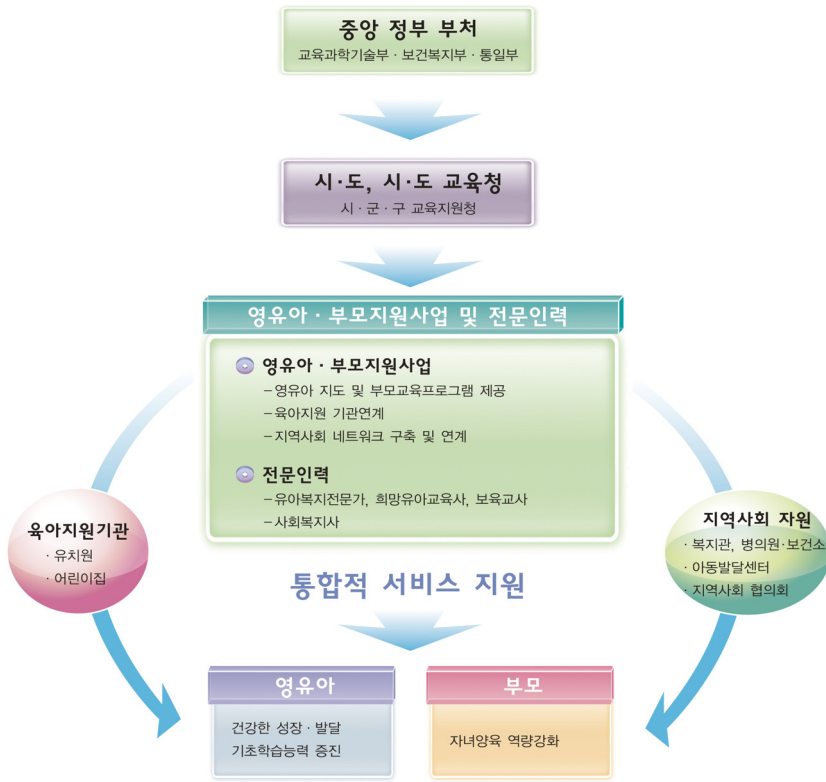
* 주: 현 교육부

출처: 장명립 외(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12 <표 I-4-1>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핵심은 정부부처 사업의 전달체계 내에서 활동하는 참여인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참여인력은 영유아와 부모를 함께 지도·지원하며, 필요시 육아지원 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을 시의적절하게 연계하여 지원한다. 각 부처별 해당사업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교육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유아교육과에서 추진하는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이 해당되며,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통일부의 하나센터 사업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으로는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동화책을 이용한 개념학습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각 사업의 참여인력으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유아교육복지전문가,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의 희망유아교육사, 드림스타트 사업의 보육교사, 하나센터 사업의 사회복지사를 들 수 있다. 참여인력은 영유아 및 부모를 직접 지도·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전공자가 적합하며, 그 외에 영유아 사업을 포괄하여 여러 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조정하는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 작업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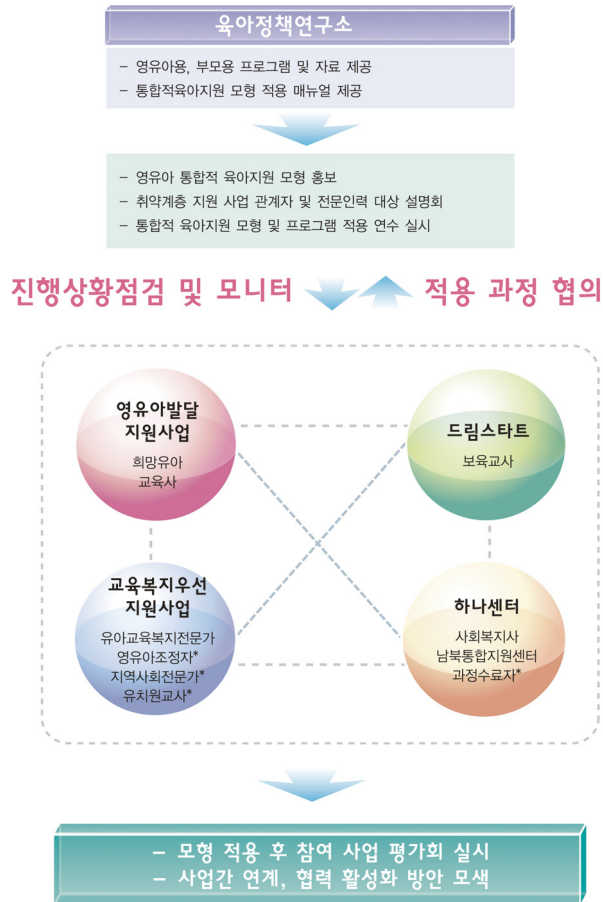
4) 본 연구에 참여한 각 사업의 인력을 의미함.



출처: 장명립·이정립·최은영·이세원·정지현·조유리(2011b).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11 [그림 II-1-1]

[그림 1-5-1]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 참여인력이 모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간에 상호 연계·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하나센터와 같이 사회복지사만이 배치되어 영유아 및 부모를 직접적으로 지도·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희망유아교육사를 연결시켜 북한이탈주민가정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경우도 유아교육복지전문가가 모든 지역에 배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 시에 인력을 연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영유아들이 재원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와 연계하여 기관과 가정이 연계된 일관성 있는 지도가



출처: 장명림·이정림·최은영·이세원·정지현·조유리(2011b).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155 [그림 2]

[그림 1-5-2]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절차 및 방법

되도록 한다.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취약계층 가족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영유아의 교육·보육, 건강, 영양, 안전 측면에서도 통합적 지원이 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부모의 문제나 가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간에 협조 및 연계를 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각 사업들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확보한 영유아 및 그 가정에 더욱 적합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상호지원이 필요하다.

나.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

연도/과제명	주요 연구 내용
<2009년: 1차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 국내외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 분석 -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 조사 및 요구 분석 - 영유아용·부모용 프로그램 개발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 정부부처 사업 및 전달체계 활용, 프로그램 적용, 참여인력 연수 및 자료 제공, 사업간 연계·협력 방안
↓	
<2010년: 2차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 프로그램 및 모형 수정·보완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전국 확대 적용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일반화 방안 제안
↓	
<2011년: 3차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최종 검토 및 확정 - 프로그램 수정 및 확정 - 매뉴얼 개발 및 적합성 검토 - 프로그램 및 매뉴얼 보급 - 관련기관 및 관계자, 전문가 연수 - 통합적 육아지원에 대한 컨설팅 실시
↓	
<2012년: 4차년도>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가정 및 기관에서의 유아 인성교육 현황, 문제점 및 요구 분석 - 유아기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및 자료, 교사용 부모상담가이드북 개발 -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이해 및 프로그램 활용 활성화를 위한 동영상 제작 및 인터넷 사이트 구축 - 현장 관계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실시 -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출처: 장명림·이윤진·이정림·민현숙·이세원·송운정·소수정(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12.

[그림 1-5-3] 취약계층 연구 연도별 주요 연구 내용

다.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

국내 정부 주도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에서 영아를 위한 지도 프로그램(기관용), 유아를 위한 개별 지도 프로그램(개별용),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별 및 집단용, 양육 수준검사)이 부족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와 유아를 위한 지도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수정, 변형하거나 새로 개발하였다.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은 기본생활습관·언어인지발달·사회정서발달로 이루어져 있고,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은 언어·인지·사회·정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개별용과 집단용으로 구분하되, 개별용은 기본적 욕구 충족의 역할, 발달지원 및 교육의 역할, 사회연계의 역할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20차시분을 개발하였고, 집단용은 취약계층 가정 부모의 특성 및 요구를 조사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소주제를 선정하여 8개 영역 총 30개를 개발하였다. 또한 취약 전 취약계층 유아의 개념학습을 돕기 위해 동화책을 매개로 하여 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념학습활동을 개발하였다. 언어, 수학, 과학 영역에서 총 18권의 동화책을 선정하여 개념학습을 지도하도록 하는데(동화책 3종은 연구소에서 자체 제작), 동화 1권당 3개의 활동으로 구성한 활동지를 함께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모두 적용할 수도 있으며 각 기관 및 사업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적용 효과분석 연구⁵⁾ 결과, 영유아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함께 진행했을 때 영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영아와 부모교육 중 한 개의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보다는 함께 적용하는 것이 영유아와 부모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5-2〉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 종합·정리

구분		특성	비고
지도 프로그램	영아용	- 취약계층 영아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한 발달 지원 - 기본생활습관, 인지·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의 3개 영역으로 구성 - 친숙하고 흥미로운 사진과 그림을 활용한 부모와 영아의 상호작용 유도	만1세: 20개 기본생활습관 5개 언어인지발달 8개 사회정서발달 7개
			만2세: 20개 기본생활습관 5개

5) 장명림·이운진·이정림·민현숙·이세원·송운정·소수정(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구분		특성	비고
		- 만 1세, 만 2세 대상	언어인지발달 10개 사회정서발달 5개
	유아용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지원 프로그램(2008)’의 활동을 취약 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지도교사가 가정이나 기관에서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 - 취약계층 가정은 놀잇감이나 동화책이 부족하고, 풍부한 자극을 줄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간단한 소품이나 교구 이용 - 만 3세~5세 대상	언어영역 20개 인지영역 20개 사회영역 20개 정서영역 20개
개념학습 활동자료		- 취약계층 유아의 개념학습을 돕기 위해 동화책을 매개로 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활동 - 개념에 기본이 되는 언어, 수학, 과학 분야의 동화책을 선정한 후, 이와 관련된 활동지 개발	언어, 수학, 과학 영역별로 각 6권씩 총 18권의 동화책 선정, 동화 1권당 3개의 활동으로 구성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별용	- 취약계층 가정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적 욕구 충족의 역할, 발달 지원 및 교육의 역할, 사회연계의 역할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활동 개발 - 지도교사가 개별 부모에게 영유아와의 활동 방법을 시범 보인 후,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실시	1세 미만 만 2·3·4·5세 각 20차시, 총 100개 활동
	소집단용 (소책자)	- 취약계층 부모들을 집단으로 교육하기 위해 저소득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부모의 특성 및 요구를 조사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소주제로 구성 - 집단으로 교육 시 참여부모에게 책자 배부,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위해 용어와 개념 추가 안내	8개 영역 총 30개 소주제로 구성 (소책자 30권)
	부모양육 수준 검사지	- 14개의 부모 양육역할 지표를 근거로 부모의 양육 수준을 검사하는 양육 역할 수행 수준 검사지 개발	간단형과 심층형으로 구분

출처: 장명림·이운진·이정림·민현숙·이세원·송윤정·소수정(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69 <표 III-3-5>

그 외에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과 프로그램 및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안내서인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목차는 다음과 같다.

<표 I -5-3>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운영 매뉴얼 목차

I. 서론

1.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소개

- 2. 취약계층 영유아의 특성 및 가정 특성 이해
- II. 프로그램 개요 및 활용 방법
 - 1. 영·유아용 프로그램
 - 2. 그림책을 활용한 개념학습활동
 - 3. 부모교육 프로그램
 - 4.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 적용의 실제
- III.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1. 사업별 운영 유형 및 사례
 - 2. 가정유형별 요구와 지원 방안
- IV.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활용
 - 1. 프로그램 활용 도움말
 - 2. 문제 및 해결책(Q & A)
 - 3.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네트워크 방안
- V. 부록

라. 영유아 통합지원 동영상 자료 개발

1) 개발 목적

영유아 통합지원 동영상 자료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영유아 통합지원 모형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증진하고,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안내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관련 사업의 담당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합지원 모형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증대하며 통합지원 모형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 개발 내용

영유아 통합지원 모형 동영상은 통합지원 모형 개발의 목적과 내용, 운영 방법을 소개하고 취약계층 유관 사업의 영유아 담당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에 관련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영유아 통합지원 동영상의 구성 내용과 세부 구성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통합지원 모형 소개 영상자료
-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내용 영상자료
-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내용 영상자료
- 유아용 개념학습 활동자료 영상자료
- 부모용 개별 프로그램 영상자료
- 부모용 소집단 프로그램 영상자료
- 통합지원 모형의 적용 관련 영상자료

〈표 1-5-4〉 영유아 통합지원 모형 동영상 구성

구성		영상
1. 통합적 육아지원모형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소개 *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 소개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절차 *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2.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개요 및 활용 방법 - 대상과 개발 방향 -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진행 방법 - 가정과의 연계
3.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개요 및 활용 방법 - 대상과 개발 방향 -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진행 방법 - 가정과의 연계
4. 유아용 개념학습 활동 자료		* 프로그램의 개요 및 활용 방법 -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진행 방법 - 가정과의 연계
5. 부모용 프로그램	5-1. 부모양육 검사지	* 검사지의 내용 및 구성(간단형/심층형) * 검사지의 사용 * 검사 후 결과 산출 및 활용방법
	5-2. 개별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개요 및 활용 방법 -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진행 방법
	5-3. 소집단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개요 및 활용 방법 -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진행 방법 - 프로그램 실시 환경 구성 -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팁

구성	영상
6.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적용	* 사업별 운영 유형 및 사례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 드림스타트 사업 * 가정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소개

출처: 장명림·최은영·김미나·백승선(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 -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86 <표 IV-3-1>

3) 내용

영유아 통합지원 모형 동영상 자료는 통합지원 모형 소개,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유아용 개념학습 활동자료, 부모용 프로그램, 통합지원 모형의 적용 등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통합지원 모형 소개

통합지원 모형과 프로그램, 모형 적용절차를 소개하고,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출처: 장명림·최은영·김미나·백승선(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 -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89 <표 IV-3-2>

[그림 1-5-4] 통합지원 모형 소개

나)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소개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진행 방법, 가정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출처: 장명림·최은영·김미나·백승선(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 -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90 <표 IV-3-3>

[그림 1-5-5]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소개

다)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소개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진행 방법, 가정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출처: 장명림·최은영·김미나·백승선(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 -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91 <표 IV-3-4>

[그림 1-5-6]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소개

라) 유아용 개념학습활동 자료 소개

유아용 개념학습 자료의 개발 방향,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진행 방법, 가정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출처: 장명림·최은영·김미나·백승선(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 -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92 <표 IV-3-5>

[그림 1-5-7] 유아용 개념학습활동 자료 소개

마) 부모용 프로그램 소개

양육 수준검사지, 부모용 개별 프로그램, 부모용 소집단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출처: 장명림·최은영·김미나·백승선(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 -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94 <표 IV-3-6>

[그림 1-5-8] 부모용 프로그램 소개

바)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적용

사업별(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모형 적용 사례와 가정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출처: 장명림·최은영·김미나·백승선(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 -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95 <표 IV-3-7>

[그림 1-5-9]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적용

4)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본 연구를 통해 제공하게 되는 동영상 자료는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적용을 도울 뿐 아니라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을 활용하는 방법과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된 동영상 자료를 통합지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통합지원 모형 적용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 영유아 통합지원 인터넷 사이트 구축

1) 사이트 구축의 목적

영유아 통합지원 모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지원 정부 부처 사업 전문인력들 간의 정보·자료 및 전문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에 관계없이 취약계층 영

유아를 지원하는 모든 사업 인력들이 함께 모여 협의·토론하고 바람직한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통합적 육아지원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본 연구소의 프로그램을 안내·홍보하고, 자료들을 탑재하여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교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사이트 구성 내용

KICCE 영유아 인터넷 사이트 명칭은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및 프로그램’이며, <http://ybl.kicce.re.kr> 주소를 활용하여 2012년 10월말에 구축하였다. 사이트의 구성 내용으로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활용 방안 및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운영 매뉴얼, KICCE 개념학습활동자료 활동지, 개념학습활동자료 교사용 지침서, 부모교육 핸드북 1-30권 세트, 부모교육프로그램(개별용), 부모교육프로그램 지침서(소집단용), 양육 수준검사지,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영아용 지도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사이트에 탑재하였다. 사이트의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5〉 사이트 구성 내용

메인 메뉴	세부 메뉴
통합지원 모형 소개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적용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사례
통합지원 프로그램 소개	- 영아용 지도 프로그램 -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 유아용 개념학습활동 자료 - 부모용 개별 프로그램 - 부모용 소집단 프로그램 - 부모양육 수준 검사지 - 프로그램 활용 팁
자료실	- 연수 자료 - 서식 자료 - 동영상 자료 - 기타 자료
커뮤니티	- 공지사항 - Q/A - 자유게시판 - 유용한 사이트 - 취약계층 정부 지원 사업

출처: 장명림·최은영·김미나·백승선(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 -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96 <표 IV-3-8>



출처: 장명림·최은영·김미나·백승선(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Ⅳ) -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97 [그림 IV-3-8]

[그림 1-5-10] 영유아 통합지원 사이트 메인 홈 화면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및 프로그램’ 사이트의 메인 메뉴는 크게 4개 영역으로 통합지원 모형 소개, 통합지원 프로그램 소개, 자료실, 커뮤니티로 구성하였다. 통합지원 모형 소개에는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적용 방법과 사례와 관련된 자료들을 탑재하였다. 통합지원 프로그램 소개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편리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팁을 제공하였다. 자료실에는 4개년에 걸쳐 제공하였던 연수 자료와 4차년도에 개발한 동영상 자료를 탑재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서식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커뮤니티는 관리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공지사항과 Q/A, 자유게시판을 통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지원 모형 적용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들의 사이트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이트의 맵을 소개하면 [그림 1-5-11]과 같다.



출처: 장명림·최은영·김미나·백승선(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V) -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98 [그림 IV-3-9]

[그림 1-5-11] 영유아 통합지원 사이트의 사이트맵

이상에서 본 연구소에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 지원 방안 연구’에서 개발한 ‘KICCE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영유아 대상 지원 프로그램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개별 가정용, 기관 소집단용)과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 등이 있다. 이들 자료 중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KICCE 부모교육 핸드북’이 대표적이다. 이 핸드북은 일반적인 부모 역할 수행과 유아기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또는 다문화가족 부모와 비다문화가족 부모들 간에 소집단 모임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배경

제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 다문화가족의 기본 현황 및 다문화가족 대상 정책과 관련사업,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국적별, 거주지역별 자녀 수, 양육기관 등 전반적인 가족 규모 및 자녀 양육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및 사업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2013년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을 지원주체별로 알아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 방향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다문화가족 기본 현황

2012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총 1,409,577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총 1,265,006명으로, 2012년은 2011년 대비 11.4% 증가한 수치이다. 2012년 전체 외국계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는 588,944명으로 이는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2011년에 비해 2%p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기타외국인 162,082(11%), 결혼이민자 144,214명(10%), 재외동포 135,020명(10%), 외국인과의 한국인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계주민 자녀 146,07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외국인노동자·결혼이민자 이주 정책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장기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II-1-1〉 외국인 주민 규모: 2011-2012년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계		1,265,006	(100)	1,409,577	(100)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 근로자	552,946	(44)	588,944	(42)
	결혼이민자	141,654	(11)	144,214	(10)
	유학생	86,947	(7)	87,221	(6)
	재외동포	83,825	(7)	135,020	(10)

구분		2011		2012	
	기타 외국인	137,370	(11)	162,082	(11)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귀화자	69,804	(6)	76,473	(5)
	기타 국적취득자	41,306	(3)	47,040	(3)
	외국인부모	9,621	(1)	10,451	(1)
외국계주민 자녀	외국인-한국인부모	126,317	(10)	146,071	(10)
	한국인부모	15,216	(1)	12,061	(1)

자료: 행정안전부(201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 결과.

다문화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수는 2012년 기준 총 168,583명이다. 그 중 외국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146,071명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한다.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취학 전 영유아 자녀는 총 95,745명으로 전체의 약 56.8%이며, 0-2세 영아는 52,565명, 3-5세 유아는 43,180명으로 조사되었다. 만 18세 미만 자녀 중 취학 전 자녀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으며, 그 중에서도 영아 자녀의 비율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1-2〉 다문화가족의 자녀수: 2012년

단위 : 명(%)					
구분	전체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인부모 ⁶⁾
		소계	외국인-한국인 부모	외국인부모	
자녀수	168,583	156,522	146,071	10,451	12,061
(비율)	(100.0)	(92.8)	(86.6)	(6.2)	(7.2)
소계	95,745	94,686	88,973	5,713	1059
0세	17,944	17,809	16,700	1,109	135
1세	17,299	17,155	16,167	988	144
2세	17,322	17,141	16,177	964	181
3세	16,564	16,356	15,425	931	208
4세	15,707	15,504	14,508	996	203
5세	10,909	10,721	9,996	725	188

자료: 행정안전부(201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 결과.

다문화가족의 국적별 영유아 자녀수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34,714명으로 36.3%, 한국계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34,121명으로 전체의 35.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뒤를 이어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6) 여기서 한국인 부모의 자녀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재혼 등의 이유로 다문화 가정이 되었을 경우 다문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자녀를 말한다.

2010년 조사(행정안전부, 2010)에서는 전체의 42.2%가 중국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중국의 증가비율은 다소 주춤하고 베트남의 증가비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대다수(총 48,681명, 50.8%)는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3〉 다문화가족의 국적별 자녀수: 2012년

단위 : 명

구분	전체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인부모
		소계	외국인-한국인 부모	외국인부모	
합계	95,745	94,686	88,973	5,713	1059
중국	18,461	18,247	16,727	1,520	214
중국 (한국계중국)	15,660	15,519	12,268	3,251	141
대만	488	483	461	22	5
일본	4,637	4,605	4,533	72	32
몽골	1,604	1,585	1,554	31	19
베트남	34,714	34,339	33,970	369	375
필리핀	8,252	8,133	7,973	160	119
태국	1,156	1,146	1,133	13	10
인도네시아	302	301	299	2	1
캄보디아	4,141	4,084	4,048	36	57
미얀마	69	68	67	1	1
말레이시아	47	47	47	0	0
남부아시아	1,066	1,052	925	127	14
중앙아시아	1,764	1,746	1,728	18	18
미국	879	856	830	26	23
러시아	549	539	529	10	10
기타	1,956	1,936	1,881	55	20

자료: 행정안전부(201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 결과.

<표 II-1-4>는 다문화가족의 지역별 영유아 자녀수 및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영유아를 둔 다문화가족은 전국에서 경기도에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총 22,891명으로 전체의 23.9%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서울 13,586명(14.2%), 경남 8,102명(8.5%), 경북 6,436명(6.7%) 순으로 높다. 절반에 가까운 다문화가족은 수도권에 밀집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수 대비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평균 3.4% 가량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다문화가족 영유

아 수는 전체 영유아의 6.4%, 전북은 5.2%로 타지역에 비해 다문화가족 영유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1-4〉 다문화가족의 지역별 영유아 자녀수 및 비율: 2012년

단위 : 명, %

구분	전체 영유아 수	다문화가족 영유아 수	다문화가족 영유아 비율
합계	2,816,103	95,745	3.4
서울	502,984	13,586	2.7
부산	160,319	4,378	2.7
대구	126,056	3,059	2.4
인천	164,473	5,080	3.1
광주	87,735	2,405	2.7
대전	90,620	2,216	2.4
울산	69,826	2,221	3.2
경기	758,105	22,891	3.0
강원	75,796	3,016	4.0
충북	88,139	3,664	4.2
충남 ¹⁾	127,571	6,021	4.7
전북	98,167	5,112	5.2
전남	97,468	6,253	6.4
경북	138,395	6,436	4.7
경남	195,016	8,102	4.2
제주	35,433	1,305	3.7

주 1) 세종시 포함된 수치임.

자료: 행정안전부(2012). 2012년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201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 결과.

2.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

가.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급등으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등의 중장기 플랜을 세워 실행해왔다. 2008년 발표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2년 말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새로이 공표하였으며, 특히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생활에 안정적

으로 정착·생활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0-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각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성과

정부는 2007년 7월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2012년에 해당하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를 4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하위 13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 총 17명의 정부위원과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연도별(2009년-201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표 II-2-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세부과제

정책목표	중점과제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질 높은 사회통합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조성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정보 관리
	3-3.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외국인 인권옹호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실제 2012년도까지 4년 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정부는 외국인정책에 총 1조

2,9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 중 중앙정부 예산이 5,999억원이고, 지방정부 예산은 6,949억원 가량이다(표 II-2-2 참조). 중앙정부의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질 높은 사회통합’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그 다음이 ‘적극적인 개방’ 분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도 기본계획 실행 첫 해인 2009년에 총 예산의 34.4%인 2,392.34억원을 사용하였고,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게 ‘적극적인 개방’과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표 II-2-2〉 중앙 및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 현황: 2009-2012년

단위 : 개, 억원

주체	정책목표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중앙 정부	합 계		190	1,045.89	173	1,163.08	165	1,852.37	149	1,937.92
	1. 적극적인 개방		53	511.58	47	470.33	46	479.34	40	551.86
	2. 질 높은 사회통합		81	476.94	81	609.26	75	1,148.73	69	1,209.14
	3. 질서있는 이민행정		34	20.59	27	28.09	28	147.70	24	65.54
	4. 외국인 인권옹호		22	36.78	18	55.40	16	76.60	16	111.38
지방 정부	합 계		588	2,392.34	734	1,224.51	858	1,563.32	815	1,768.34
	1. 적극적인 개방		113	1,966.79	139	583.48	143	600.53	154	582.13
	2. 질 높은 사회통합		448	403.76	566	610.33	698	933.24	647	1,155.04
	3. 질서있는 이민행정		5	0	8	0	5	0	1	0
	4. 외국인 인권옹호		22	21.79	21	30.7	12	29.55	13	31.17

출처: 정기선 외(201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의제 연구. 법무부·IOM이민 정책연구원. p.5-6 재조직

제1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성과로는 외국인정책의 개념을 최초로 규정하고, 새로운 정책분야의 범정부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12. 11. 28). 이 밖에도 외국의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호가 처음으로 확대되었고, 중앙·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많은 사업이 급증하여 ‘질 높은 사회통합’ 분야가 외국인정책에서 가장 핵심정책으로 부상하였다(정기선 외, 2011). 반면, 제1차 기본계획 시행의 한계점으로는 외국의 우수인재 및 투자유치 확대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여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순노무인력 중심의 인력유치가 주를 이루었으며,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이 결혼이민자 여성 등의 특정 이민자 집단에 편중되었다. 또한 중앙과 지방부처 간 유사사업으로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한국어교

육과 같은 초기정착단계에 필요한 일반적 사업에 지원이 치중되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정기선 외, 2011).

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이주 초기부터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문제로 외국인근로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었고, 최근 일부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외국인혐오증(Xenophobia) 대두,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다문화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정서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국외에서는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 나라마다 이민자 통합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향후 5년 간의(2013-2017년) 방향설정을 위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2012년 말 공표하였다. 새로운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으로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5대 핵심가치에 따른 정책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146개의 세부 추진과제는 17개 부처에서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제2차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표 II-2-3>과 같다.

<표 II-2-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세부과제

구분	정책목표	중점과제
1.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1. 내수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4.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2.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구분	정책목표	중점과제
4.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제고
5.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1차 기본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외국인정책 개념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제1차 기본계획 시에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으로 한정하였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이후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정책, 결혼이민자정책 등의 용어혼용으로 정책의 혼선과 중복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경 및 출입국 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을 규정하였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문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듯이,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국내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온전히 내국인으로 받아드리기 보다는 일시적인 거주자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2차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으로 개념이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차 기본계획 시행기간 동안 변화된 국민 의식을 반영하여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며(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을 소수의 의존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민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정책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2)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가)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및 성과

정부는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하여 2009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0-2012)」을 수립·시행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영역, 20개 중점과제, 61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졌다(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2012a).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각 연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며 제1차 기본계획 세부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2-4>와 같다.

<표 II-2-4>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0-2012) 세부과제

구분	영역	중점과제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추진 기반 확충
2	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3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 간 네트워크 강화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확대 -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5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관계자에 대한 교육 강화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자료: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2012a).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0-2012) 2012년 시행계획.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2012b)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영역별 세부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추진체계의 기반이 다양한 측면에서 마련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 및 전담부서 설치 등 정책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둘째, 국제결혼중개관리 영역에서는 국제결혼의 건전화를 위하여 법령·제도 개선과 함께 베트남 등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통번역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특히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에 있어 2011년에서 2012년까지 2년 간 다문화가족정책 전체예산의 40%가 투입되고, 활발히 사업이 추진되어 이는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영역으로 부상하였다(표 II-2-5 참조). 또한, 다문화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 대상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이 추진되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표 II-2-5〉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 영역별 예산 비율: 2011-2012년

단위: %

정책영역	정책추진 체계정비	국제결혼 중개관리 등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자녀의 성장환경 조성	사회적 이해 제고	계
예산비율	20	2	40	31	7	100

자료: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2012b).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제1차 기본계획은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인 2011년 4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 보다 계획이 먼저 세워졌다는 태생적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한 여파로 초기 정책계획의 셋팅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초기정착을 돕기 위한 단편적인 지원에 집중되었다(김이선 외, 2011). 결혼이민자가족 외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의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가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로 꼽혔지만, 과도한 사회적 관심으로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내국인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논란, 다문화 반대 정서의 부상 등 부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한계점을 보완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재구성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이며,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제1차 계획에서 나타난 다문화정책이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시적이고 온정적인 사업에만 치중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설정으로 보여진다.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의 6대 영역, 23개 중점과제, 8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2012b). 제2차 기본계획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2-6>과 같다.

〈표 II-2-6〉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세부과제

구분	영역(세부과제 수)	중점과제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7)	1-1.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	2-2. 한국어능력 향상 2-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2-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6)	3-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3-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3. 소외계층 지원 강화 3-4. 피해자 보호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	4-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4-2. 직업교육훈련 지원 4-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4. 사회참여 확대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21)	5-1. 인종·문화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구분	영역(세부과제 수)	중점과제
6	정책추진체계 정비(11)	6-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6-3.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자료: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2012b).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제1차 기본계획에 비해 제2차 기본계획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어 점차 다양해져가는 다문화가족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11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던 이전의 계획에 반해 제2차 계획에는 총 13개 중앙행정기관과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게 되어있다. 특히, 국방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원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부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이주 초기 적응문제 해결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다문화가족정책의 부처 간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강화한 점 등도 주목할 만하다.

나.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1)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예산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중장기 정책계획을 기본으로 각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로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있으며, 총 1,000억여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2012년 1,075억여원에서 약 7%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표 II-2-7〉 중앙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2008-2013년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계	28,927	42,698	59,980	92,081	107,498	100,012
여성가족부	23,167	25,851	41,087	57,604	64,678	69,552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법무부	1,530	3,661	4,670	5,204	7,217	7,000
교육부	1,434	6,500	6,200	8,800	18,000	15,540
고용노동부	-	80	497	396	440	525
안전행정부	469	2,429	820	1,360	1,100	1,400
문화체육관광부	2,327	3,751	5,240	5,700	5,022	4,369
농림수산식품부	-	426	1,466	1,466	1,476	1,626
보건복지부			-	11,551	9,565	-

자료 1) (2008-2011년 자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 연구(2011)

2) (2012-2013년 자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중앙부처 2013년도 시행계획

3) (법무부 2012-2013년 자료) 법무부(2013),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개요

4) (교육부 2008, 2011년 자료) 교육부(2013), 2013년 다문화 지원 예산 현황 자료

5) (고용노동부 2012-2013 자료) 고용노동부(2013). 내부자료.

<표 II-2-7>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예산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예산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추진해온 다문화 관련 사업의 기본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라는 것에 유의하여 해석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규모에 따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본 인프라 구축 이후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 등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시행되어온 다문화가족 보육료 지원 사업이 전 계층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 통합되어 별도의 예산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예산

지방정부별로도 다문화가족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가족 관련 2013년 총 예산은 약 846억원 규모이다. 이는 2012년 1,260억원에 비해 약 415억원, 약 32.9% 감소한 수치이다(표 II-2-8 참조). 2013년 들어 예산이 대거 감소하게 된 배경에는 중앙정부 예산과 같은 맥락으로 2012년까지 시행되어온 다문화가족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사업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표 II-2-8〉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2012-2013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시·도청			시·도교육청			총계	
	'12예산 (A)	'13예산 (B)	비율 (B/A)	'12예산 (C)	'13예산 (D)	비율 (D/C)	2012 (A+C)	2013 (B+D)
서울	4,893	6,804	39.1	5,126	3,290	△35.8	10,019	10,094
부산	2,482	1,361	△45.2	3,760	2,525 ¹⁾	△32.8	6,242	3,886
대구	1,517	1,607	5.9	1,471	1,000 ¹⁾	△32.0	2,988	2,607
인천	3,408	2,152	△36.9	4,339	1,115 ¹⁾	△74.3	7,747	3,267
광주	959	582	△39.3	1,338	1,143 ¹⁾	△14.6	2,297	1,725
대전	2,094	1,139	△45.6	1,381	864 ¹⁾	△37.4	3,475	2,003
울산	681	1,038	52.4	1,322	1,252	△5.3	2,003	2,290
세종	128	170	32.8	99	236 ¹⁾	138.4	227	406
경기	20,012	8,077	△59.6	8,437	5,363	△36.4	28,449	13,440
강원	3,006	1,742	△42.0	1,252	988 ¹⁾	△21.1	4,258	2,730
충북	4,095	1,504	△63.3	1,906	1,636 ¹⁾	△14.2	6,001	3,140
충남	3,664	3,441	△6.1	2,716	1,540 ¹⁾	△43.3	6,380	4,981
전북	4,413	4,779	8.3	1,732	1,740	0.5	6,145	6,519
전남	7,791	2,866	△63.2	3,893	1,877	△51.8	11,684	4,743
경북	6,977	7,300	4.6	4,905	2,289	△53.3	11,882	9,589
경남	9,628	6,912	△28.2	4,463	3,852	△13.7	14,091	10,764
제주	1,417	1,774	25.2	705	600	△14.9	2,122	2,374
계	77,165	53,248	△31.0	48,845	31,310	△35.9	126,010	84,558

주 1) 2013년 2차 추가경정예산 미반영분

자료 1)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시행계획.

2)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⁷⁾

2013년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을 교육 지원, 생활 지원, 다문화지원센터 지원, 정책수립 지원, 다문화 인식 제고 정책의 분류에 따라 알아보았다.

가) 교육 지원

교육부 및 전국 시도청·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7) 본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단락의 세부 예산은 취학 전 영유아와 전체 가족 대상의 사업 예산만을 다루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전체 자녀 대상으로 실시되어 초·중 등 자녀 대상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도 함.

교육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표 II-2-9>와 같다.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 지원은 주로 학습, 이중언어, 한글교육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습 부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학습지, 학습지원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부와 전국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해 이중언어 강사 양성 사업, 이중언어 교육사업에 총 70억 가량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중언어 교육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한글교육을 위해 한글교재 개발, 한글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언어발달 진단을 통해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2-9>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지원 정책: 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1	취학 전 준비교육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교육청	106
2	학습지원 - 자녀생활서비스 - 방문학습지 지원 - 자녀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기주도 학습상담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 등	- 서울, 대구, 경기, 충남, 전북, 경북도청 - 경기, 충남, 경남, 전남, 전북, 제주 교육청	974
3	문화교육 - 다문화가족 자녀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 울산시청 - 광주, 경남교육청	173
4	이중언어 -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지원 - 이중언어 강사 양성 - 이중언어 동아리 지원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교육부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	6,974
5	언어치료 -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확대 - 언어치료 프로그램 지원 - 자녀 언어능력 향상 종사자 인력 지원	- 전북도청 - 강원교육청 - 국립국어원	113
6	한글교육 - 다문화 자녀 한국어 교육 지원 - 다문화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 대구, 경북도청 - 충남, 제주교육청 - 국립국어원	1,058

자료 1)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시행계획.

2)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역할 수행 및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

교육, 부부관계교육, 아버지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관계에 관한 교육은 주로 시도청에서 담당하고, 학부모교육 등에 대한 부분은 시도교육청에서 나누어 맡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인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우리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약 26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 문화적 적응을 돕는 한국 문화, 역사 교육 프로그램 등도 실시되고 있다.

그 밖에 경찰청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2-10〉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부모대상 교육지원 정책: 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1	부모교육 - 취학 전 학교생활 안내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지원 - 다문화 아버지 교육 - 다문화가족 부부학교 실시 등	- 울산, 경기, 전북, 경남도청 - 서울, 부산, 경기, 충남, 전북, 경남교육청	647
2	언어교육 - 우리말 공부방 운영 - 한국어 교육 및 교재 지원 - 다문화가족 문화/역사/언어 교육 지원 - 다문화 마을학당 등	- 대구, 경기, 전북, 경북, 제주 - 도청 - 대구, 울산, 전북, 경남교육청	2,579
3	문화역사 교육 - 한국 문화교실 운영 - 한국 역사체험	- 광주, 대전, 경기, 제주도청 - 서울,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교육청	184
4	평생학습 운영지원 - 평생학습운영지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 교육 도우미 지원 - 다문화가족 영어 보조교사 지원	-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교육청	635
5	기타 - 운전면허 학과교육 지원	- 경찰청	321

자료 1)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시행계획.

2)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정부는 앞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부모대상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다문화 학습자료 및 교구개발, 기자재 지원, 교육공간 마련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도교육청(서울, 대전, 경기, 제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교육청)에서는 지역별 다문화교육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및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와 전국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2013년 다문화가족의 독서환경 마련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약 24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련 구체적인 사업으로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자료실 운영, 순회문고 운영, 생애주기별 동화집 시리즈 마련 및 결혼이민자를 위한 모국어 도서 보급 등이 있다.

〈표 II-2-11〉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환경 조성 정책: 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1	기자재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프로그램 기자재 지원	- 충북도청	60
2	자료집 및 교재교구 - 다문화 전시 상자 및 학습자료 '다문화꾸러미' 개발·운영 - 다문화자료집 개발 및 보급	- 문화체육관광부 - 충남, 경남도청 - 인천,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교육청	576
3	교육공간 지원 - 교육활동실 운영 - 다문화가족 교육 전담실 운영	- 전북, 제주교육청	31
4	다문화 교육센터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 학부도 교육 - 자녀학습방 운영	-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교육청	899
5	독서환경 지원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자료실 자료실 운영 - 도서관 다문화 행사 운영 - 도서관 다문화 강사수당 - 다문화가족 순회문고 운영 - 다문화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 사랑의 책 보내기 사업 추진 - 결혼이민자를 위한 모국어 도서 보급 - 생애주기별 동화집 시리즈 제작 - 이용자 교육용 도서관 영상물 개발 및 체험형 동화구연 - 외국어 콘텐츠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전북도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교육청	2,383
6	기타 - 다문화교육 사이버지원 센터 운영 - 인산 WeStart 글로벌다문화센터 운영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 - 지역아동센터운영 내 다문화지원 - 다문화가족 온라인 교육 서비스 지원	- 서울, 경기, 제주도청 - 인천교육청	505

자료 1)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시행계획.

2)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 다문화 업무담당자, 교원 등 다문화 지원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표 II-2-12 참조).

〈표 II-2-12〉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인력 관련 정책: 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1	전담인력	-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정한 선생님' 지원 사업 - 외국인 생활불편 살피미 운영	472
2	업무 종사자	- 교육부 - 서울, 대전시청 -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	153
3	교원지원	- 다문화가족 실무자 연수 - 다문화 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종사자 워크숍 개최 -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남, 제주교육청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 충남, 전북, 경남도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 - 국립국어원	1,989

자료 1)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시행계획.

2)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나) 생활 지원

다문화가족 대상 생활지원 정책에는 의료, 주거환경 개선, 언어지원, 생활정보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생애주기/적응정도에 따라 시기별로 필요한 정책이 달라지므로 생활지원 정책을 결혼이전 시기, 초기적응 시기, 안정적 정착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고, 이주하기 때문에 불법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현지 사전 교육 등을 제공하여 범죄 예방

및 이주 이후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한다.

〈표 II-2-13〉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결혼이전 시기 정책: 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1	국제결혼 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단속, 조사 강화 지도/점검 - 국제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 결혼중개업 신상 정보 제공	- 여성가족부, 법무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청	54
2	결혼 이민심사 관련 - 결혼이민심사 중 심사기준 강화 -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검토 - 결혼이민자 주요출신국 주한 대사협의체 간담회 개최	- 법무부, 여성가족부	114
3	교육 -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예방 교 육 및 상담 - 국제결혼 중개업자 등 관계 자에 대한 교육 - 결혼이민자 대상 현지사전 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 - 대구, 인천, 대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청	858

자료 1)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
도 시행계획.

2)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부 지원 정책은 <표 II-2-14>에 제시되어 있다. 결혼 이후 한국사회로 진입 시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적응프로그램, 개명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결혼이민자 여성 간 자조모임 등 결혼이민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표 II-2-14〉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초기적응 지원 정책: 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1	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적응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이주여성 개명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 기정착 지원 사업 추진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조기정 착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광주, 울산, 경북도청 - 전북교육청	2,339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2	자조모임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 -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지원 - 다문화 커뮤니티 공간(주민사랑방) 운영지원	-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 서울시청	341
3	기타 -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결혼이민자 대표회의 운영	- 부산, 경기도청	6

자료 1)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시행계획.

2)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 이후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내용은 의료지원, 언어지원, 생활지원, 건강한 가정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자립지원, 역량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표 II-2-15 참조).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의 건강을 위한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자신감 향상 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검진 정보의 다국어 번역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의 경우는 120 다산콜센터에서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3년 약 32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실제 생활 속 민원처리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법률 지원, 생활정보의 온/오프라인에서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가족 내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등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표 II-2-15〉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1): 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1	건강관리, 영양 서비스 -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 정신건강, 자신감 관리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정보를 다국어 번역 서식 제공	- 보건복지부 - 서울, 대전, 울산, 충북도청 - 충북교육청	121
2	언어지원 - 통번역서비스(가정통신문 등) - 120 다산콜센터 외국어상담 서비스	- 여성가족부 - 서울시청 - 경기도교육청	3,850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3	생활지원	- 다문화가족 생활정보강좌 운영 - 온-오프라인 생활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서비스 종합안내 -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 지, 정보매거진 배포 -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1,589 - 다문화가족 법률 지원 - 전북, 경남도청 - 외국인 자살 방범대 운영지원 - 충북교육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시 지원 확대	
	건강한 가정 지원	- 다문화가족 학부모 상담실 - 다문화가족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 아빠와 함께 하는 무지개 놀이 운영 -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날 운영 - 여성가족부 - 합동결혼식 지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1,040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자료 제작, 행사 추진 등 - 충북, 전북, 경북도청 - 혼인, 이혼과정 상의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충남, 전북교육청 - 다문화가족 소착지 발행 및 수기 공모 - 맞벌이 다문화가족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자료 1)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시행계획.

2)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비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을 1:1로 연결하여 상호이해 증진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대상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 다문화가족 학생 한글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지원 등 세부화된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서 약 99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리더십 교육, 이중언어를 통한 직업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국내방문 지원,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주여성 매칭적립금 지원 등 모국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5억 가량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2013년부터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이 전 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통합되어 전년도에 비해 현금지원에 대한

예산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실제 지원금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표 II-2-16〉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2): 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4	멘토링 사업	- 교육부 - 인천, 광주, 충남, 전북도청 -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교육청	9,888	
5	자립 지원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여성 대상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결혼 이민자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일자리 상담 카페 운영 - 다문화가족 식재료 판매업소 운영 - 다사랑지원 사업 - 다문화특화 존(ZONE) 조성 사업 - 다문화 희망하우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법무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전북, 전남도청 - 인천, 충북교육청	1,507
6	역량 개발	- 다문화가족 리더스쿨 운영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복지대학 운영 - 문화 알람이 활동 - 이중언어를 통한 직업교육 - 다문화가족 학위취득 지원	- 안전행정부 - 서울, 대구, 울산, 전북, 경북도청 - 대구, 대전교육청	802
7	모국관련 지원	- 다문화가족 앨범 제작 모국 발송 - 결혼이주여성 매칭적립금 지원 - 다문화가족 모국 국제특송 요금 지원 및 외화송금수수료 면제 -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국내방문 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사업	-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북, 제주도청	310
8	보조금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 기금 조성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 결혼이민자 기초생활 보장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급식비, 교육비, 체험학습비, 통신비 지원	- 강원, 전북, 전남, 경북도청 - 광주, 울산, 충북, 경남교육청	2,468
9	기타	-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통 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 충북도청	83

자료 1)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시행계획.

2)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간 교류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자 한다. 세부 지원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I-2-17 참조).

〈표 II-2-17〉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여가생활 정책: 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1	봉사활동 - 다문화가족 자원봉사활동 지원	인천, 충남교육청	15
2	동아리 - 다문화가족 동아리 운영 - 다문화 학부모 동아리 운영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교육청 - 경북교육청	565
3	문화생활 - 다문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다문화가족 어머니 예술단 운영 - 다문화 가족 캠프	-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 대전, 경기, 전북도청 -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교육청	2,394

자료 1)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시행계획.

2)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가족폭력, 기본인권 침해사례 등을 방지하고 위기에 처한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에 여성가족부와 전국 시도청은 약 64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위기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II-2-18〉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정책: 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1	-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여성가족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청	6,367
2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 언 어서비스 확대	- 여성가족부 - 경북도, 제주도청	2,534
3	- 위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종합상담센터 및 보호시설 설치	- 서울시청	270
4	- 의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 긴급 사유 발	- 대구시청	20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생 시 긴급 자금 지원			
5	-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예방교육	- 경기도청	7

자료 1)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시행계획.

2)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214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16개 거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대표적인 전달센터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서문희 외, 2011), 교육, 상담, 문화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전국 시도청 및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크게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본사업은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 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 상담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특성화 사업은 지역센터별로 선택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언어발달지원 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언어영재교실사업,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배치시범사업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시도청 세부지원 사업을 한 곳에 모아 종합서비스되고 있는 형태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체계의 세부내용은 [그림 II-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체계 주체는 크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지역센터로 나눈다. <표 II-2-19>는 추진체계별 사업내용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은 중앙관리기관으로서 지역센터와 거점센터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전국 16개의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는 권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지원 및 관리하고 중앙과 지역을 연결, 지역 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지역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실제 다문화가족과의 최접점으로서 활동한다.

구분	추진체계	주체	세부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및 중앙관리사업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 지원 및 평가
			- 전국 센터 협력체계 구축
			- 한국어교육서비스/부모 교육/ 자녀 생활/방문 상담 서비스
			- 언어평가/교육
			- 부모교육 및 상담
			- 다문화가족 정보매거진 rainbow+
			- 온라인 콘텐츠 제작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및 다 누리기자단
			- 다누리콜센터 상담사업
3	다문화가족지원 지역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및 중앙관리사업	- 매뉴얼개발, 상담원 교육 및 홍보
			- 다문화가족포럼, 분과별 포럼
			- 다문화가족포럼 사무국 운영
			대외협력사업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사업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사업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직원 및 방문교육지도사 교육 실시
			- 센터 운영 지원 및 현장점검
			- 상담 슈퍼비전 실시
3	다문화가족지원 지역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및 중앙관리사업	- 만족도조사 지원
			중앙기관과 권역 내 센터와의 연계 역할
			권역 내 센터·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집합/방문)
			- 다문화가족통합교육(집합/방문)
			- 다문화가족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 개인·가족상담
			특성화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3	다문화가족지원 지역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및 중앙관리사업	- 통·번역서비스
			- 언어영재교실
			홍보 등 운영사업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홍보
			-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출처: 다누리 웹사이트 http://www.liveinkorea.kr/kr/contents/contents_view.asp?idx=8에서
2013년 11월 18일 인출 및 재구성

라) 다문화가족 정책수립 지원

여성부와 전국 시도청은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포럼, 위

크숍, 세미나를 개최·지원한다.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외국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다문화가족 지원 기준 마련 및 배포 등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II-2-20〉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수립 지원 정책: 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1	협의체 운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협의회 - 다문화가족 대표자회 구성·운영	여성가족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도청 -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교육청	82
2	연수, 세미나, 포럼 - 다문화포럼, 워크숍 - 다문화교육정책 연수, 연구회 지원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 전북도청 - 부산, 대전, 충남, 제주교육청	49
3	법률 개정 관련 - 다양한 외국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검토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문화다양성 정책강화 법령 및 조항 마련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 및 배포 - '다문화장병 차별행위 금지와 고충 우선처리' 규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30
3	기타 - 문화다양성 정책 개발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정부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경북도청 - 대구, 충북교육청	202

자료 1)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시행계획.

2)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마) 다문화 인식 제고 정책

정부는 다문화가족을 보편적 가족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문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 인식 제고 사업은 크게 인식 개선 캠페인, 전 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다문화축제 등의 행사, 홍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II-2-21>과 같다.

다문화 인식 제고 정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은 전 국민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이다. 중앙부처에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3년 한해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실 및 가족관 운영, 교재개발 및 보급, 다문화 이해 캠프 등 세부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21억원으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교육 및 축제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및 케이블 다문화방송 추진, 다문화 관련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표 II-2-21>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 인식 제고 정책: 2013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1	인식 개선	- 다문화가족 사랑 공동캠페인 -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사업	- 울산, 강원, 충남도청 - 충남교육청	593
2	다문화 이해 교육	- 교육부, 여성가족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도청 - 부산,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도교육청 - 경찰청	2,054	
3	문화 다양성 교육	- 문화로 다함께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학부모 모국 문화교실 운영 - 식문화교류 조리교실 운영 - 문화다양성 콘텐츠 지원 - 문화다양성 콘텐츠 제작 관계자에 대한 안내서 제작·활용 - 다문화자녀 및 일반 청소년 교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울산, 경기도청 - 경기, 전남교육청 - 방송통신위원회	669
	다문화 행사	- 다문화행사 운영 - 다문화 어울림 축제 - 어버이나라 문화체험 활동 지원	- 대구,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교육청	467
	홍보	-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및 케이블 다문화방송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위원회	2,507

구분	세부정책	부처/시·도청/시·도교육청/기타	예산
	- 다문화 관련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자료 1)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시행계획.

2)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3.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특성 및 적응, 자녀 양육 실태, 자녀의 발달 및 적응, 다문화가족의 갈등, 인권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탐색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기능을 강화하고,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1)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 2)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연구, 3)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족 적응 및 지원 관련 연구, 4)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정기선 외, 2007), 자녀 양육 문제는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있어 경제적 문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한국사회로 진입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출신국 문화와 다른 한국의 자녀 양육 방식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족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끼며(이선미·이경아, 2010) 어머니와 자녀 간 한국어를 주로 사용할 때 보다 자율적인 양육 태도, 출신국 언어를 사용할수록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김영옥·임진숙·정상녀, 2007). 이주와 적응이라는 특수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부모 양육행동의 구체적인 경로를 분석한 정선영(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 거주기간은 ‘통합과 동화’라는 문화적응 유형을 통

해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어 수준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중급 수준 어머니에 비해 양육행동 중 과보호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이주국의 언어 습득 정도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이주국의 통용되는 양육행동을 받아드리는 정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정선영, 2013). 또한 취업 중인 20-30대 연령의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이선미·이경아, 201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국가와 부모효능감에 따라 양육행동 효과성이 달라지며, 구체적으로 동남아국가 출신 보다는 동북아국가 출신이,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행동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교일, 2011).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은 개인 내적 변인 외에도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 등의 관계적 요소와도 관계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부부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부부간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한 두 남녀가 적응의 기간 없이 바로 결혼·출산하는 경우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부부갈등을 겪곤 한다(강선자·손수민, 2011). 하지만 남편, 혹은 시부모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취하며 거부적인 양육은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민경·김경은, 2009).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에게 남편, 가족 등의 다양한 측면의 지지는 적응력 및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김민경·김경은, 2009). 특히, 배우자의 지지는 결혼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으나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사회적 지지는 오히려 결혼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로부터 가족, 공공기관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현숙·김희재·오중환, 2011).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부관계 갈등, 적절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 및 사회적 지지의 부족,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 등의 요인들은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통해 간·직접적으로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다문화가족의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있어, 한국어 의사소통이 미숙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주양육자 역할을 맡게 되고, 양육스트레스가 큰 편으로 나타

났다(정수경, 2011).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이은하, 2010)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버지가 양육에 대해 일방적인 선택 결정 권한을 가지고, 조모의 양육개입으로 어머니는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중심현상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나라의 이해와 수용 부족', '바람직한 부모역할 결여', '어머니에게 힘이 안 되는 가족',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부족' 등 다양한 조건들과 중심현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부모와 심리적인 거리가 멀며,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된, 사회·정서적으로 힘든 자녀들이라는 조사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정에 있어 부모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며, 가족 내 어머니의 권위 및 어머니 출신국가에 대한 존중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이은하, 2010). 다문화가족이 겪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부적응의 주체로 인식되는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양육 지원,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정책연구와 민간차원의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을 도출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무경과 조혜주(2008)는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육아실태 및 요구와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지원실태 및 요구를 알아보고, 국외사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에 있어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에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의 우선 보장을 강조하였으며,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 관련 지원 정책과 규정, 지침 마련을 권장하였다(문무경·조혜주, 2008). 특히, 다문화배경의 영유아교사 채용 점진적 확대,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교육의 강화 등을 지적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무료 건강검진, 발달포트폴리오 작성, 이중언어 습득의 환경 제공을 제안하였다(문무경·조혜주, 2008). 이제까지 추진되어온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분석,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영유아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문무경·조혜주, 2008).

이와 유사하게 서문희 등(2010)은 영유아, 초등학생, 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방안을 제언하였다. 문무경과 조혜주(2008)의 연구와의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동연령별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큰 전제 아래 제시한 영유아 자녀와 부모에 관한 정책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 발달검사 실시를 통한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의 강화, 발달 및 한국어 교육지원, 방문학습지 교사 파견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 배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육아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 함께하는 부모-자녀 프로그램 강화, 보육·교육과정 내 다문화프로그램 개발, 이중언어와 같은 맞춤형 개인교육서비스의 확대 등의 자녀 지원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한국어교육서비스 기회 확대, 다문화 육아정보 나눔터, 다문화가족지원 정보포털 구축 등 정보공유 커뮤니티, 인적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한 교류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서문희 외, 2010).

김은영 등(2010)은 국제결혼 가정에 초점을 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으로 영유아 지원은 가정 지원을 중심으로 가야하며, 다문화가족의 대한 별도의 지원 보다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기초한 중복 지원 절감, 맞춤형 지원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정부주도의 일방적·획일적 지원 보다는 지역사회와의 협의체를 통한 지원방향을 제언하였다(김은영 외, 2010).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지난 2011년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을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연속기획하여 수행하였다. 총 세 가지 연구 중 첫 번째 서문희 등(2011)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추었고, 장명립 등(2011)은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최윤경 등(2011)은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발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들은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부모 및 자녀지원,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생애주기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각 연구에서 제언한 정책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II-3-1 참조).

세 가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정책방안으로는 다문화가족 관련 네트

워크 구성의 강조 등이 있다.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적지지 체계를 구축해 줌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사회적지지 기반은 육아지원기관, 다문화지원센터, 학교 등을 중심으로 상호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라는 특수성 외에도 사회경제적 배경, 영유아 발달, 부모의 양육행동 등에 따라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큰 복지체계 안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제고해야함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표 II-3-1〉 2011년 육아정책연구소 다문화 연구의 주요 정책방안

구분	주제	주요 정책방안
서문희 외 (2011)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지원	- 다문화가족지원 인프라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의 협의체 구축 · 사업 전문인력 충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방문서비스 강화 ·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 자녀발달지원 사업 강화 · 초등학교 준비 프로그램 체계화 · 자녀 방문 학습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문화, 정서지원 확대 · 이중언어교육 확대 · 아동 이용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부모 지원체계 강화 · 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화(생애주기별, 아동발달에 관한 정보제공, 초등학교 입학준비 프로그램, 기관 및 초등학교에서의 부모 지지체계 구축) ·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 결혼이민자 지지체계 강화 · 다문화가족 상담 사업 강화 · 결혼이민자 교육, 취업훈련 기회 확대
장명림 외 (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지원	-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사의 인식 제고, 자료 및 연수 지원 필요 -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적응 지원 -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정 부모 참여 유도 - 다문화가정 거주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기관 및 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포괄적·통합적 지원
최윤경 외 (2011)	다문화가정 영유아 발달	- 다문화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발달유형별, 발달영역별, 발달시기에 따라 분류하여 세부안 제시 - 다문화아동의 다양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 필요

구분	주제	주요 정책방안
		· 단·중기: 영유아기 다문화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확대 · 장기: 다문화아동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취약성 및 개별발달수준에 근거한 일반적인 취약계층 지원체제로 전환 · 외국인근로자 가정과 아동·청소년도 지원체층에 포함 · 그 외 다문화아동의 발달역량에 중점을 둔 지원,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고려한 접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건강 및 사회적 네트워크 증진, 양육관련 부모지원 및 부모교육의 제공 등이 필요함.

자료 1) 서문희 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지원 실태와 요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 장명립 외(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3) 최윤경 외(2011).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한편,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해정·구현아·이현주(2009)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대상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를 근거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결혼이민자 여성 교육 및 자녀 양육 정보 제공, 어린이집 다문화 교육 관련 교사연수 및 교육매뉴얼 제작 및 보급, 어린이집 미이용 자녀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민간차원의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민성혜·김경은·김리진(2011)은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다문화가족이 가지고 있는 부모자녀관계에 근거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실제 프로그램 실시 후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양육효능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성혜·김경은·김리진, 2011). 또한, 조미영과 배지희(2011)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멘토링 결과, 민성혜 등(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멘토링 과정을 통해 부족한 양육지식을 얻고, 어머니 역할에 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조미영·배지희, 2011). 멘토링 과정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 간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지혜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였다(조미영·배지희, 2011).

다.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족 자녀 적응 및 지원 관련 연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초기 적응,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제는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발달 및 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가정을 떠나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또래, 교사 등과 새로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곳에서 언어 및 인지발달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적응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문화가족의 유아는 낮은 언어능력으로 인해 육아지원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선희, 2011).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적응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으나, 언어 발달지체를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51.5%로 나타나 다른 발달에 비해 언어발달에 대한 지연의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장명림 외, 2011a). 특히, 어머니의 언어능력과 어머니와 자녀 간 언어적 상호작용은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최윤경 외, 2011), 다문화아동의 연령별 언어발달의 추이는 일반가정 아동들과 유사하나, 발달의 정도는 느리며 발달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화수·이은경, 2010). 유아의 언어능력은 이후 적응에 결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하므로 다문화가족 유아 언어발달과 관련한 조기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 유아의 기관 적응은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부모의 양육행동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신선희·김영희, 2010; 김선희, 2011; 박민정·이병인, 2010). 김선희의 연구(2011)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양육행동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수준이 높았다(김선희, 2011). 이 밖에도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아동 적응에는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의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오재연, 2012; 김현경, 2009; 신선희·김영희, 2010).

한편, 다문화가족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교사 관련 변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유아와 비다문화가족 유아 모두를 가르치는 유아교사의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올

바른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히 다뤄지고 있다. 조운주와 조하나의 연구(2011)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다양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보편성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전주연·하은실·정계숙(2012)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수성은 억압하고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유아교사들은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교실 내 존재 여부에 따라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교육에 대한 좁은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연·하은실·정계숙, 2012).

장명림 등(2011a)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경력이 높은 경우와 다문화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경력이 많고, 다문화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 집단에서 자신의 다문화 교수 방법에 대해 더 유능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다문화 교육 수업자료의 부족과 다문화 관련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도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장명림 외, 2011a). 그 외에도 교사들은 다문화 연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나, 다문화 연수 기회가 제한되고 다문화 연수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장명림 외, 2011a).

실제 교사들이 교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우리나라’, ‘세계 여러나라’, ‘가족과 이웃’ 등 특정 생활주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지 중심의 일회성 교육 위주로 실시되는 등 그 교육방식에도 문제가 있다(전주연·하은실·정계숙, 2012; 홍민경·이경화, 2011),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교육의 실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구수연, 2010). 급격한 외국인 유입으로 우리사회는 대규모적 다문화 현상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되 준비는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육아지원 기관 현장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교사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유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념화 작업 및 교사연수(홍민경·이경화, 2011),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라.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연구

정부 부처는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언어·문화적 경험을 적기에 제공하여 조기 적응 및 역량을 제고하고자 관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

진 중에 있다. 정부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을 주관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최근 개발된 프로그램 및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통합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2007년 정부는 전 생애에 필요한 기본학습능력과 태도를 생애초기에 길러주는 것이 사회 양극화 해소와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이라는 취지 하에 생애 초기에 인적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애 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배경 하에 2008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영유아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①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진단도구 개발, ②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 개발, ③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개발된 것이다.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통합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특징 및 구성은 다음 <표 II-3-2>와 같다.

<표 II-3-2>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통합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 명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통합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한국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부모-자녀-교사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언어적 자극 및 경험 보충, 유치원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특징	- 부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한국 문화 및 생활문화 포함, 한국어 수준 측정을 통한 수준별 학습 고려 - 놀이, 찬트 및 노래를 통한 한국어 교육
구성 및 주제	- 한국어 교육 활동집 3권 · 유아용(가나다 모듬), 어머니용(아이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유아-어머니 상호작용(엄마랑 아이랑) 각 1권씩 - 교사용지침서 3권 · 유아용, 어머니용, 유아-어머니 상호작용별로 각 1권씩 - 주제: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우리 동네, 계절과 날씨, 음식, 우리나라 * 유아용, 어머니용, 유아-어머니 상호작용을 동일한 주제로 연계
발행처 및 연구진	- 교육인적자원부(200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별교부금 사업) - 이순형(서울대학교 교수) 외 10인

2) 다문화가정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증진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2009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사회·정

서 발달과 문화적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사회·정서 중재 프로그램’과 ‘다문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 특징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3-3〉 다문화가정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 명	다문화가정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 증진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증진뿐 아니라 일반가정의 영유아도 향후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관용을 가진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특징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정서 문제 및 친사회적 행동 특성과 문제점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해결중심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을 반영한 맥락 타당성 프로그램 - 3·4세 영아용, 5·6세 유아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하여 발달단계 고려 - 보육시설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일반 영유아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과 통합
구성 및 주제	- 다문화가정 영유아 문제 행동 경감 프로그램 · 친사회성 신장 프로그램, 자기표현 프로그램,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 문화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생활주제: 우리 반과 친구, 봄, 나와 가족, 동물, 여름, 탈것,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가을, 우리의 이웃, 겨울,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많이 컸어요 -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자료
발행처 및 연구진	- 보건복지가족부(2009) - 전해정(연세대학교 교수)외 3인

3) 다문화가정 부모 및 유아 지원 교육 자료 개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는 2010년도 다문화가정 유아교육 지원 방안으로 첫째,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완, 셋째,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 연수 실시, 넷째,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 현장 활용 확대, 다섯째,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를 제시하였으며,⁸⁾ 그 중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자료 보급과 다문화가정 유아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추진한 바 있다.

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2010. 3).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 방안.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여 유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 자료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11-3-4〉 다문화가정 부모 지원 교육 자료

자료 개발의 목적	-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유아의 발달 특성, 바람직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
자료의 특징	-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학부모 대상 유아교육 안내 책자를 다문화가정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해당국가어로 번역 및 보급함.
구성	- 다문화가정 학부모용 유아교육 안내 책자(리플렛과 가이드북) 2종 * 8개 국어 번역(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타이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발행처 및 연구진	- 서울시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사업) - 문무경(유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외

주: 현 교육부

〈표 11-3-5〉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과 학습을 돕기 위하여 일반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일반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특징	- 유아교육기관의 일반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교육과정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인 다문화 이해 활동을 개발하되, 특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다문화가정 국가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함. -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몽골 등
구성 및 주제	- 1부 : 교사용 지침서 ·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취지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적용 및 실시 방법 - 2부 : 활동자료집(총 60개 활동) · 3세, 4세, 5세 각 20개 활동 · 1학기 10주, 2학기 10주(주 1회, 10주간 10개 활동) - 다문화 주요 주제 : 정체성, 반편견, 평등성, 다양성, 협력 등
발행처 및 연구진	- 서울시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사업) - 장명림(유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영옥(전남대학교 교수), 서현(조선대학교 교수), 차선미(인천보나유치원장), 이세원(유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주: 현 교육부

4)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 간의 협동연구과제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체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 연구의 일환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다. 둘째, 어머니가 유아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주제와 활동을 포함한다. 셋째, 어머니에게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넷째, 한국어나 자국어의 문해능력이 떨어지는 어머니를 위해 그림자료나 실물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이해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다섯째, 활동 지도방법과 도움말을 제공하여 이중언어교육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유아와 놀이 및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형성과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여섯째, 모든 자료집에는 한국어와 해당 국가어를 동시에 병기하고, 프로그램 진행은 이중언어지도사와 유아교육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강사나 교사가 어머니에게 지도한 후,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특징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3-6〉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 명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 다문화가정의 환경적·문화적 배경인 이중언어 환경을 활용하여 유아의 이중언어와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특징	- 어머니와 유아가 바람직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도방법과 도움말 제공 - 이중언어 강사(자국어와 한국어가 능숙한 다문화가정 어머니 포함)와 유아교육전공자가 함께 지도 - 가정에서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지원의 중요성 및 아버지가 한국어지도자로 참여하는 방식 강조
구성 및 주제	- 프로그램 I 부: 기본학습 활동(공통편/ 중국어본, 베트남어본) * 한국어 기본으로 하며, 중국어본은 중국어 및 베트남어본은 베트남어 번역 병기 · 다문화 국가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 기본 학습개념과 단어 제공

프로그램 명	다문화가정 부모와 유아를 위한 이중언어 학습지원 프로그램
	· 주제: 모양, 위치, 사물, 신체, 숫자, 동물, 가족, 과일과 채소 ·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간단한 동화나 동요, 게임 등 포함, 개념에 대한 설명 및 자녀지도에 도움이 되는 도움말과 연관된 단어 제시 · 한 주제당 각 2가지씩의 활동, 그림으로 배울 수 있는 단어카드 포함
	- 프로그램 II부: 각 국가 문화편(중국편, 베트남편) * 중국편은 중국어, 베트남편은 베트남어 기본 → 한국어 번역 병기 ·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주제 중심으로 내용 구성 · 주제: 가족(엄마와 아빠, 자장가, 생일), 문화(대표음식, 명절과 기념일, 국가의 상징, 의복과 장식, 놀이), 자연 · 해당 국가의 동화나 동요, 동시 등을 중심으로 전개, 유아가 흥미 있어 하는 만들기, 그리기, 게임 등의 활동 제공 · 문화에서는 한국과 비교,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문화 연계 제시
발행처 및 연구진	- 육아정책연구소(2010,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협동과제 일환) - 장명림(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외 3인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의 기본 현황 및 정책 지원 현황 분석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장기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문화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중 만 5세 이하 자녀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는 외국계주민의 비율이 점차 높아질수록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비율도 증가하므로, 다문화가족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취학 전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대부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육아지원기관은 다문화가족과의 접점으로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 효과적인 전달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배경국가를 살펴본 결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많았고 이들을 모두 합친 수는 전체의 80.5%에 해당하였다. 다문화가족의 대다수는 일부 국가에 치중되어 있으며, 다문화배경 주요 국가에 따른 특성 파악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정책을 포함하는 외국인정책 개념이 보다 포괄적이고 사회통합

적인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을 소수의 의존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민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정책으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에 맞춰, 다문화가족의 양육 지원에 있어서도 그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다문화 관련 기본 인프라 구축 이후에는 세부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 등 다른 성격의 사업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막대한 초기 투입 비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구축 이후에도 다문화가족의 개별적 적응 및 성장 속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기본 현황 및 정책 지원 현황 외에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요약 및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한국에서의 적응 및 자녀 양육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양육 특성 분석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개인 내적 변인 외에 가족관계(아버지 역할 포함) 및 사회적 지지 등이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포괄적인 통합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내에서 자녀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양질의 교육 경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에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포함한 지역네트워크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육아지원기관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사 연수가 필요하며, 교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매뉴얼, 유아/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료가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Ⅲ.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실태 및 요구 분석

본 장에서는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충남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조사한 다문화가족 어머니 530명과 비다문화가족 어머니 428명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조사 참여자의 특성을 알아보고,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환경, 다문화가족의 양육 특성, 다문화가족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관련 특성을 비다문화가족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양육 실제에 맞는 정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조사 참여자 특성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계획하였고, 조사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 600명이다. 먼저 국가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 배경국가를 현재 체류 인구가 많은 순서를 기준으로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베트남, 필리핀으로 제한하여 530가족을 표집하였고, 이와 더불어 비교집단으로 428개의 비다문화가족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1-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의 경우 30세 미만(40.4%)이 가장 많았다. 비다문화가족은 35세-40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43.5%로 가장 많아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평균연령(31.7세)이 비다문화가족(35.6세)에 비해 낮다. 남편의 연령은 다문화가족 남편 평균연령(43.7세)이 비다문화가족(38.3세)보다 높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다문화가족(51.3%)과 비다문화가족(61.2%), 두 집단 모두에서 대학졸업이 가장 많았다. 남편의 최종학력도 다문화가족 62.5%, 비다문화가족 57.7%가 대학졸업이라고 답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 53%, 비다문화가족 55.1%의 어머니가 취업 중이다. 남편의 경우는 다문화가족 91.1%, 비다문화가족 95.6%가 취업 중으로 두 집단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함께 사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의 경우 3인 이하 23%, 4명 39.6%, 5명 23.8%, 6명 이상 13.6%이며, 비다문화가족은 3명 이하 16.6%, 4명

49.3%, 5명 21.7%, 6명 이상 12.4%로, 두 집단 모두 4인 이하 가족이 60%를 넘었다.

구간으로 조사한 가계소득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에서 소득 수준이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45.7%, 200 이상-300만원 미만이 33%로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78.7%에 달했다. 이에 비해 비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200 이상-300만원 미만이 25%, 300 이상-400만원 미만이 21%, 400 이상-500만원 미만이 20.1%, 500만원 이상이 20.3%로 소득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표 III-1-1〉 조사참여자 일반적 특성

단위: %, 세(명)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연령			남편 연령		
30세미만	40.4(214)	5.8(25)	35세미만	5.8(31)	20.1(86)
30세이상 35세미만	31.3(166)	33.6(144)	35대이상 40세미만	15.3(81)	42.1(180)
35세이상 40세미만	18.3(97)	43.5(186)	40세이상 45세미만	34.2(181)	28.0(120)
40세이상	10.0(53)	17.1(73)	45세이상	30.9(164)	9.8(42)
평균	31.7	35.6	50세이상	13.8(73)	-
			평균	43.7	38.3
최종 학력			남편 최종 학력		
고졸이하	33.2(176)	36.2(155)	고졸이하	13.6(72)	35.5(152)
대학졸업	51.3(272)	61.2(262)	대학졸업	62.5(331)	57.7(247)
대학원이상	15.5(82)	2.6(11)	대학원이상	23.4(124)	6.8(29)
			모름/무응답	0.6(3)	-
취업 상태			남편 취업 상태		
취업	53.0(281)	55.1(236)	취업	91.1(483)	95.6(409)
휴직	2.5(13)	3.5(15)	휴직	2.5(13)	1.4(6)
미취업	44.5(236)	41.4(177)	미취업	4.9(26)	2.6(11)
			해당없음	1.5(8)	0.5(2)
함께 사는 가구원수			가계소득		
3명이하	23.0(122)	16.6(71)	200만원미만	45.7(242)	9.1(39)
4명	39.6(210)	49.3(211)	200이상 300만원미만	33.0(175)	25.0(107)
5명	23.8(126)	21.7(93)	300이상 400만원미만	10.0(53)	21.0(90)
6명이상	13.6(72)	12.4(53)	400이상 500만원미만	4.5(24)	20.1(86)
			500만원 이상	2.1(11)	20.3(87)
			모름/무응답	4.7(25)	4.4(19)
전체				100.0(530)	100.0(428)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한국에 거주한지 평균 7.58년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조선족 출신은

평균 9.05년, 필리핀은 8.29년이 되었고, 한족과 베트남 출신은 각각 7.06년, 6.58년이었다. 이는 육아지원기관에 다니는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의 한국 거주기간이 평균 7년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2〉 조사 참여자 한국 거주기간: 다문화가족 출신국가별

단위: 년(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F
다문화가족 전체	7.58	3.12	(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9.05 ^b	3.75	(155)	24.428***
중국(한족 등)	7.06 ^a	3.12	(67)	
베트남	6.58 ^a	1.94	(240)	
필리핀	8.29 ^b	3.47	(68)	

주: a, b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01$.

다문화가족 어머니와의 면담 결과, 한국어 실력에 따라 한국생활 적응에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설문조사 내용에 한국어 실력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본 조사에서 한국어 실력은 말하기(한국어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듣기(한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읽기(한국어를 읽고 내용을 알 수 있다), 쓰기(한국어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쓸 수 있다) 네 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의 자기평가 방식으로 이뤄졌고, 네 가지 항목의 평균 점수를 다시 2.5점 미만은 하, 2.5점에서 3.5점 미만은 중, 3.5점 이상은 상으로 분류하였다.

다문화가족 어머니 전체의 과반수 이상인 52.1%가 한국어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4.2%이고, 한국어 사용이 아직은 어렵다는 집단은 전체의 13.8%에 불과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실력이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온 것은 조사대상자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한국에 거주한지 평균 7.5년 이상으로 입국 초기보다 한국어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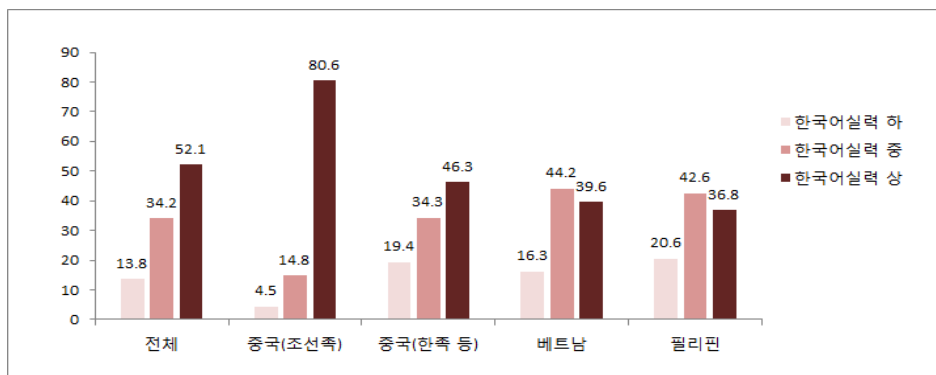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은 출신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표 III-1-3 참조). 조선족 출신의 어머니의 경우 80% 이상이 스스로 한국어 실력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한족,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의 한국어 실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였다. 이는 조선족 이외 국가 출신 어머니들에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1-3〉 조사 참여자 한국어 실력: 다문화가족 출신국가별

단위: %(명)

구분	한국어실력 하	한국어실력 중	한국어실력 상	계(수)	평균	F
다문화가족 전체	13.8	34.2	52.1	100.0(530)	2.38	
출신국						
중국(조선족)	4.5	14.8	80.6	100.0(155)	2.76 ^a	23.253 ^{***}
중국(한족 등)	19.4	34.3	46.3	100.0(67)	2.27 ^b	
베트남	16.3	44.2	39.6	100.0(240)	2.23 ^b	
필리핀	20.6	42.6	36.8	100.0(68)	2.16 ^b	
X ² (df)	74.944 ^{***}					

주: a, b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01$.

[그림 III-1-1] 조사 참여자 한국어 실력: 다문화가족 출신국가별

다문화가족 어머니와의 면담에서도 한국어 사용 어려움과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를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한국어 배우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한국어 배우는 거랑 쓰기가 어렵잖아요. 같은 회사에 언니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애기 낳았는데, 다문화 (어머니 대상으로) 한국어 가르치는 데가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잠깐 배워가지고 애 키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애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말이 안돼요. 애기가 어디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항상 회사에 와서 도움 받아서 적어가지고 가서 보이고 하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말 가르치는 것도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문화가족 어머니 A)

2.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환경

가족의 자녀 양육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부부 중 누가 더 양육에 참여하는지, 양육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필요한 경우 양육도움은 어디서 얻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집에서 자녀의 주 양육자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74.3%)과 비다문화가족(84.1%) 모두에서 어머니 본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남편의 부모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다문화가족에서 13.4%로 그 비율이 비다문화가족의 5.8%보다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출신국별로 보면, 베트남과 필리핀이 배경국가인 경우 남편의 부모가 자녀를 주로 돌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이 두드러진다.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서도 ‘하’의 실력을 가진 경우 ‘상’의 경우보다 남편의 부모가 돌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III-2-1〉 집에서 자녀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

단위: %(명)

구분	본인	남편	남편 부모	남편 형제 자매	본인 부모	본인 형제 자매	결혼 이민자 친구	(한국인) 친구	없음	기타	계(수)
다문화가족 전체	74.3	4.0	13.4	-	5.1	0.6	-	0.2	2.1	0.4	100.0(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76.1	1.3	9.7		9.7	0.6		-	1.9	0.6	100.0(155)
중국(한족 등)	85.1	1.5	4.5		6.0	1.5		-	1.5	-	100.0(67)
베트남	71.3	5.8	17.9		2.5	-		0.4	1.7	0.4	100.0(240)
필리핀	70.6	5.9	14.7		2.9	1.5		-	4.4	-	100.0(68)
기관유형											
유치원	73.4	3.2	14.6		5.1	0.7		0.2	2.4	0.2	100.0(410)
어린이집	77.5	6.7	9.2		5.0	-		-	0.8	0.8	100.0(120)
가계소득											
200만원미만	74.8	2.9	16.5		2.9	0.4		-	2.1	0.4	100.0(242)
200이상300만원미만	74.9	4.0	13.1		5.7	0.6		-	1.1	0.6	100.0(175)
300이상400만원미만	79.2	7.5	5.7		5.7	-		1.9	-	-	100.0(53)
400이상500만원미만	66.7	8.3	12.5		8.3	-		-	4.2	-	100.0(24)
500만원이상	63.6	-	-		18.2	9.1		-	9.1	-	100.0(11)
모름/무응답	68.0	4.0	8.0		12.0	-		-	8.0	-	100.0(25)
한국어 실력											
상	74.3	1.8	12.0		7.2	1.1		0.4	2.5	0.7	100.0(276)

구분	본인	남편	남편 부모	남편 형제 자매	본인 부모	본인 형제 자매	결혼 이민자 친구	(한국인) 친구	없음	기타	계(수)
중	77.3	6.6	13.3		2.2	-		-	0.6	-	100.0(181)
하	67.1	5.5	19.2		4.1	-		-	4.1	-	100.0(73)
비다문화가족	84.1	0.9	5.8	-	5.4	2.1	-	-	0.7	0.9	100.0(428)

남편과 본인 중 자녀 양육에 누가 더 많이 참여하는지를 물었다.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다는 응답이 다문화가족의 경우 63.8%, 비다문화가족 78.3%로 두 집단 모두에서 주류를 이루나, 다문화가족에서 남편의 참여가 더 많다는 응답(10%)과 반반 참여한다는 비율(26.2%)이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결과에 출신국가별 차이를 보여 중국조선족과 필리핀의 경우 어머니 본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들 보다 높았고, 중국한족과 베트남의 경우는 남편이나 본인이 반반씩 분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III-2-2〉 부부 중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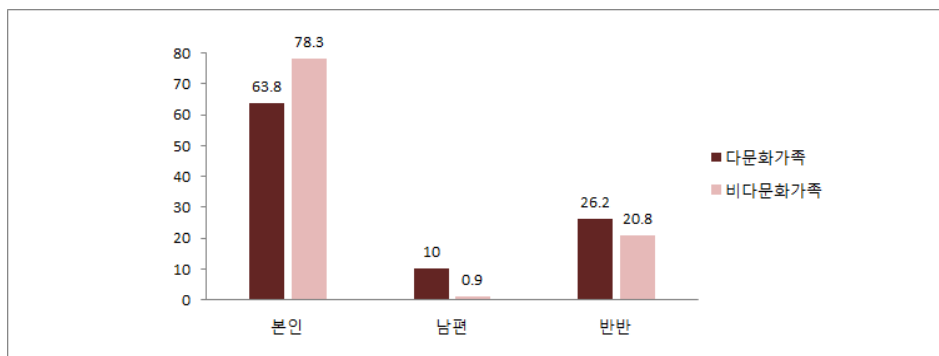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다문화가족			
	본인	남편	반반	계(수)
다문화가족 전체	63.8	10.0	26.2	100.0(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74.2	3.9	21.9	100.0(155)
중국(한족 등)	67.2	10.4	22.4	100.0(67)
베트남	53.3	15.0	31.7	100.0(240)
필리핀	73.5	5.9	20.6	100.0(68)
$X^2(df)$	25.863(6)***			
기관유형				
유치원	64.1	10.0	25.9	100.0(410)
어린이집	62.5	10.0	27.5	100.0(120)
$X^2(df)$	0.135(2)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72.3	7.9	19.8	100.0(242)
200이상 300만원미만	58.9	8.0	33.1	100.0(175)
300이상 400만원미만	47.2	30.2	22.6	100.0(53)
400이상 500만원미만	50.0	12.5	37.5	100.0(24)
500만원 이상	54.5	-	45.5	100.0(11)
모름/무응답	68.0	4.0	28.0	100.0(25)
$X^2(df)$	na			
한국어 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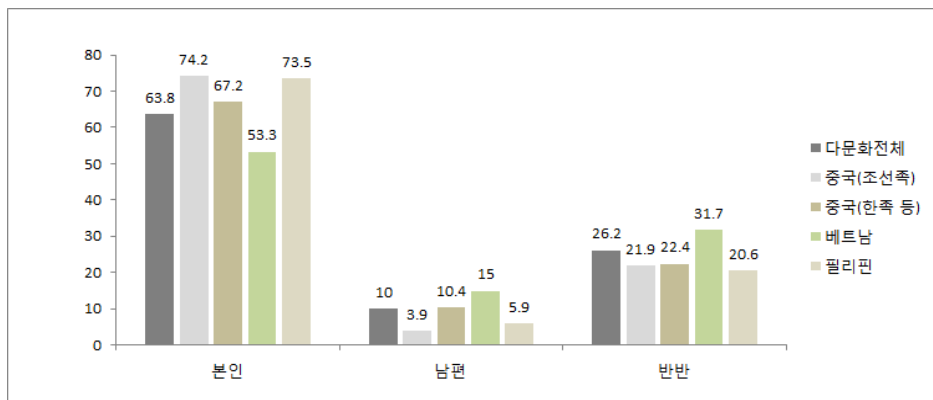
구분	다문화가족			
	본인	남편	반반	계(수)
상	66.3	8.7	25.0	100.0(276)
중	59.7	11.6	28.7	100.0(181)
하	64.4	11.0	24.7	100.0(73)
$X^2(df)$	2.420(4)			
비다문화가족	78.3	0.9	20.8	100.0(428)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01$.



[그림 III-2-1] 부부 중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 다문화/비다문화별



[그림 III-2-2] 부부 중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 출신국가별

<표 III-2-3>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 중복 응답

한 결과이다. 다문화가족(82.8%)과 비다문화가족(76.9%) 모두에서 자녀가 재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다문화지원센터’라는 응답이 34.2%, 비다문화가족은 ‘육아관련 인터넷사이트’가 67.5%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족의 배경과 관계없이 유아기 부모에게 주요한 정보전달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2-3〉 자녀 양육 정보를 얻는 기관: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유치원	육아관련 인터넷사이트	주민센터	복지관	다문화지원센터	종교단체	기타	없음	친인척 및 지인	매체(책, 방송)	(수)
다문화가족 전체	82.8	19.6	8.7	6.8	34.2	6.0	1.3	6.8	1.3	0.4	(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80.6	33.5	7.7	4.5	23.9	7.1	3.9	7.1	1.9	-	(155)
중국(한족 등)	85.1	19.4	14.9	16.4	38.8	6.0	1.5	3.0	-	3.0	(67)
베트남	83.3	12.5	8.8	5.8	37.9	4.6	-	7.9	1.7	-	(240)
필리핀	83.8	13.2	4.4	5.9	39.7	8.8	-	5.9	-	-	(68)
기관유형											
유치원	82.2	21.2	8.5	6.3	34.6	5.6	1.5	6.3	1.0	0.5	(410)
어린이집	85.0	14.2	9.2	8.3	32.5	7.5	0.8	8.3	2.5	-	(120)
가계소득											
200만원미만	81.0	16.5	9.1	9.5	41.7	6.2	0.4	5.8	0.8	0.4	(242)
200이상300만원미만	88.0	18.9	5.7	4.6	27.4	5.1	1.1	4.6	2.3	-	(175)
300이상400만원미만	84.9	24.5	13.2	5.7	34.0	7.5	-	9.4	1.9	-	(53)
400이상500만원미만	83.3	37.5	16.7	4.2	33.3	12.5	-	4.2	-	-	(24)
500만원이상	81.8	27.3	-	9.1	9.1	-	18.2	18.2	-	9.1	(11)
모름/무응답	60.0	24.0	12.0	-	20.0	4.0	8.0	24.0	-	-	(25)
한국어 실력											
상	83.7	26.1	9.8	6.9	34.4	5.4	2.2	5.4	1.4	0.7	(276)
중	78.5	13.3	9.4	8.3	37.6	7.2	0.6	9.9	1.1	-	(181)
하	90.4	11.0	2.7	2.7	24.7	5.5	-	4.1	1.4	-	(73)
비다문화가족	76.9	67.5	6.1	2.6	-	6.5	3.5	1.9	7.0	5.6	(428)

자녀를 기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냐는 질문에 비다문화가족 어머니는 50.2%가 친정식구라고 답하였다. 그에 비해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시댁식구(35.7%)와 결혼이민자 친구(15.3%)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에는 출신국가에 따른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따른 차이를 확

인할 수 있다. 주로 양육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시댁식구라는 응답이 필리핀 (45.6%)과 베트남(41.3%)에서 높았다. 결혼이민자 친구에 대한 도움요청이 베트남에서 높아 다문화가족끼리의 상호 양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니, 한국어 실력이 ‘하’인 집단에서 시댁식구에 대한 요청비율이 높았다. 이는 결혼이민 후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의 경우 시댁식구가 자녀 양육의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2-4〉 자녀 양육 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시댁 식구	친정 식구	결혼이민자 이웃/친구	한국인 이웃/친구	다문화 관련 기관, 직원	기타	없음	계(수)
다문화가족 전체	35.7	11.9	15.3	9.2	7.9	0.8	19.2	100.0(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25.2	25.8	11.6	12.3	4.5	0.6	20.0	100.0(155)
중국(한족 등)	29.9	9.0	13.4	4.5	6.0	1.5	35.8	100.0(67)
베트남	41.3	5.8	20.0	9.2	6.7	0.4	16.7	100.0(240)
필리핀	45.6	4.4	8.8	7.4	22.1	1.5	10.3	100.0(68)
X ² (df)	90.875(18)***							
기관유형								
유치원	34.6	11.2	16.1	8.8	9.3	0.7	19.3	100.0(410)
어린이집	39.2	14.2	12.5	10.8	3.3	0.8	19.2	100.0(120)
X ² (df)	6.562(6)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33.9	9.5	14.0	7.4	12.0	0.8	22.3	100.0(242)
200이상 300만원미만	38.3	12.6	14.3	10.9	5.7	0.6	17.7	100.0(175)
300이상 400만원미만	35.8	15.1	20.8	9.4	1.9	-	17.0	100.0(53)
400이상 500만원미만	29.2	25.0	29.2	12.5	-	-	4.2	100.0(24)
500만원 이상	27.3	18.2	18.2	18.2	-	-	18.2	100.0(11)
모름/무응답	44.0	8.0	8.0	8.0	8.0	4.0	20.0	100.0(25)
X ² (df)	na							
한국어 실력								
상	31.2	18.8	17.0	10.1	5.8	0.7	16.3	100.0(276)
중	34.8	5.5	14.4	9.9	12.7	1.1	21.5	100.0(181)
하	54.8	1.4	11.0	4.1	4.1	-	24.7	100.0(73)
X ² (df)	49.086(12)***							
비다문화가족	18.9	50.2	-	19.2	-	0.2	11.4	100.0(428)

주: na는 X²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01$.

3.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특성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현황을 어머니 모국어에 대해서나 모국어를 교육하는 지, 다문화에 대한 생각, 양육 태도, 양육을 중심으로 한 갈등 등과 더불어 어머니의 실제 양육 기술에 대해 살펴봄을 통해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다문화가족 배경 관련 자녀 양육 현황

자녀에게 어머니 출신국의 언어를 교육하는지, 만약 교육한다면 누가 교육하는지 질문하였다.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46.6%에서는 어머니 모국어를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르치는 경우에는 어머니 본인이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학교사가 가르친다는 응답도 전체의 7.5%로 조사되었다.

〈표 III-3-1〉 자녀 대상 출신국 언어교육 여부 및 교육자: 다문화가족(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부모(본인)	어학교사	배우지 않음	기타	(수)
전체	47.5	7.5	46.6	1.9	(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41.9	11.0	49.0	1.3	(155)
중국(한족 등)	67.2	4.5	29.9	3.0	(67)
베트남	42.9	5.0	52.9	2.5	(240)
필리핀	57.4	11.8	35.3	-	(68)
기관유형					
유치원	49.5	8.0	44.9	2.0	(410)
어린이집	40.8	5.8	52.5	1.7	(120)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49.6	6.6	45.0	0.8	(242)
200이상 300만원미만	46.9	7.4	48.0	1.7	(175)
300이상 400만원미만	54.7	9.4	41.5	1.9	(53)
400이상 500만원미만	41.7	8.3	50.0	4.2	(24)
500만원 이상	36.4	18.2	45.5	9.1	(11)
모름/무응답	28.0	8.0	60.0	8.0	(25)
한국어 실력					
상	50.0	6.5	45.3	1.8	(276)
중	46.4	8.3	45.9	2.2	(181)
하	41.1	9.6	53.4	1.4	(73)

자녀에게 어머니 출신국의 언어를 교육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어머니에게 앞으로 가르칠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70%의 어머니는 가르치려한다고 답하였다.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향후 가르치겠다는 비율이 높다.

〈표 III-3-2〉 향후 자녀 대상 출신국 언어교육 계획: 다문화가족

단위: %(명)

구분	앞으로 배우게 할 생각	앞으로도 계획없음	잘모르겠음	기타	계(수)
전체	70.0	3.6	25.5	0.8	100.0(247)
출신국					
중국(조선족)	85.5	-	13.2	1.3	100.0(76)
중국(한족 등)	80.0	-	20.0	-	100.0(20)
베트남	62.2	3.9	33.9	-	100.0(127)
필리핀	54.2	16.7	25.0	4.2	100.0(24)
기관유형					
유치원	67.9	2.7	28.3	1.1	100.0(184)
어린이집	76.2	6.3	17.5	-	100.0(63)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63.3	4.6	30.3	1.8	100.0(109)
200이상 300만원미만	76.2	2.4	21.4	-	100.0(84)
300이상 400만원미만	63.6	9.1	27.3	-	100.0(22)
400이상 500만원미만	91.7	-	8.3	-	100.0(12)
500만원 이상	100.0	-	-	-	100.0(5)
모름/무응답	66.7	-	33.3	-	100.0(15)
한국어 실력					
상	77.6	4.0	18.4	-	100.0(125)
중	68.7	4.8	24.1	2.4	100.0(83)
하	48.7	-	51.3	-	100.0(39)

다음은 자녀에게 어머니 출신국에 대해 평소에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지 살펴 보았다. ‘가끔 이야기 한다’는 비율이 58.1%로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는 가끔 이야기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한국어 실력이 상 집단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비율이 22.5%로 높았고, 하 집단에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1.9%로 높은 편이다.

이를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음(1점)’부터 ‘자주 이야기함(4점)’에 이르는 4점 척도로 환산하니, 전체 평균 2.85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비교결과 소득 구간에 따른 차이를 보여, 300이상 400만원미만의 집단에서 3.15점으로 비교적 높고, 500이상 집단에서 2.5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II-3-3〉 자녀에게 출신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도: 다문화가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음	별로 이야기하지 않음	가끔 이야기함	자주 이야기함	계(수)	평균	F
전체	8.9	15.1	58.1	17.9	100.0(530)	2.85	
출신국							
중국(조선족)	12.3	14.8	51.6	21.3	100.0(155)	2.82	1.238
중국(한족 등)	7.5	10.4	55.2	26.9	100.0(67)	3.01	
베트남	7.5	15.4	61.7	15.4	100.0(240)	2.85	
필리핀	7.4	19.1	63.2	10.3	100.0(68)	2.76	
X ² (df)		13.622(9) [#]					
기관유형							
유치원	8.0	15.9	58.0	18.0	100.0(410)	2.86	0.274
어린이집	11.7	12.5	58.3	17.5	100.0(120)	2.82	
X ² (df)		2.079(3)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9.9	16.1	58.7	15.3	100.0(242)	2.79	2.284 [*]
200이상 300만원미만	8.6	13.7	58.9	18.9	100.0(175)	2.88	
300이상 400만원미만	3.8	7.5	58.5	30.2	100.0(53)	3.15 ^a	
400이상 500만원미만	12.5	12.5	50.0	25.0	100.0(24)	2.88	
500만원 이상	9.1	36.4	45.5	9.1	100.0(11)	2.55 ^b	
모름/무응답	8.0	24.0	60.0	8.0	100.0(25)	2.68	
X ² (df)		na					
한국어 실력							
상	10.1	11.6	55.8	22.5	100.0(276)	2.91	1.792
중	7.2	17.7	60.8	14.4	100.0(181)	2.82	
하	8.2	21.9	60.3	9.6	100.0(73)	2.71	
X ² (df)		14.231(6) [*]					

주: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5$, ^{*} $p < .05$.

자녀에게 어머니의 출신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였다. ‘이야기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비율이 38.6%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자녀가 온전한 한국인으로 자라길 원해서’ 28.3%, ‘자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25.2%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인으로 자라기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출신국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음은 다문화 배경에 대해 어머니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중 자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자녀와 대화하기도 어려운 정도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결과로 어머니 한국어 교육이 더욱 확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III-3-4〉 자녀에게 출신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다문화가족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온전한 한국인으로 자라길 위해서	남편과 시댁에서 원하지 않음	자녀와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아서	필요성을 못 느낌	기타	계(수)
전체	28.3	3.1	25.2	38.6	4.7	100.0(127)
출신국						
중국(조선족)	40.5	-	9.5	42.9	7.1	100.0(42)
중국(한족 등)	16.7	8.3	25.0	50.0	-	100.0(12)
베트남	25.5	3.6	34.5	30.9	5.5	100.0(55)
필리핀	16.7	5.6	33.3	44.4	-	100.0(18)
기관유형						
유치원	29.6	3.1	23.5	39.8	4.1	100.0(98)
어린이집	24.1	3.4	31.0	34.5	6.9	100.0(29)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22.2	3.2	28.6	39.7	6.3	100.0(63)
200이상 300만원미만	35.9	2.6	23.1	38.5	-	100.0(39)
300이상 400만원미만	50.0	-	33.3	-	16.7	100.0(6)
400이상 500만원미만	16.7	-	33.3	33.3	16.7	100.0(6)
500만원 이상	40.0	20.0	-	40.0	-	100.0(5)
모름/무응답	25.0	-	12.5	62.5	-	100.0(8)
한국어 실력						
상	31.7	3.3	16.7	43.3	5.0	100.0(60)
중	28.9	4.4	28.9	31.1	6.7	100.0(45)
하	18.2	-	40.9	40.9	-	100.0(22)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갖는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으로서 어려움도 많지만 장점도 많다’는 응답이 39.2%, ‘다문화가족이어서 자녀가 위축될까 걱정이다’ 37.7%, ‘별 느낌이 없다’ 13%, ‘다문화가족임에 자부심을 느낀다’ 10%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족임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장점이 있음을 인식하는 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의 49.2%이며, 위축을 염려하는 경우가 37.7% 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긍정적 경향이 높지만 40%에 가까운 다문화가족에서의 자녀 위축에 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하 집단에서 다문화가족이어서 자녀가 위축될 것에 대해 염려하는 비율이 50.7%로 높았다.

〈표 III-3-5〉 자녀에게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로서 갖는 생각: 다문화가족

단위: %(명)

구분	다문화 가족임에 자부심을 느낌	다문화 가족으로서 어려움도 많지만 장점도 많음	다문화 가족이어서 자녀가 위축될까 걱정임	별 느낌 없음	계(수)
전체	10.0	39.2	37.7	13.0	100.0(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6.5	40.6	38.1	14.8	100.0(155)
중국(한족 등)	9.0	41.8	37.3	11.9	100.0(67)
베트남	12.5	37.1	38.3	12.1	100.0(240)
필리핀	10.3	41.2	35.3	13.2	100.0(68)
$X^2(df)$		4.825(9)			
기관유형					
유치원	8.5	39.5	38.5	13.4	100.0(410)
어린이집	15.0	38.3	35.0	11.7	100.0(120)
$X^2(df)$		4.436(3)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8.7	36.8	41.7	12.8	100.0(242)
200이상 300만원미만	12.0	38.9	38.3	10.9	100.0(175)
300이상 400만원미만	11.3	52.8	26.4	9.4	100.0(53)
400이상 500만원미만	4.2	58.3	16.7	20.8	100.0(24)
500만원 이상	27.3	18.2	27.3	27.3	100.0(11)
모름/무응답	4.0	28.0	44.0	24.0	100.0(25)
$X^2(df)$		na			
한국어 실력					
상	8.3	43.5	35.1	13.0	100.0(276)
중	13.3	38.1	36.5	12.2	100.0(181)
하	8.2	26.0	50.7	15.1	100.0(73)
$X^2(df)$		11.641(6) [#]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5$.

다문화가족이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강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질문하였다. 응답 어머니의 38.5%는 이중언어습득, 18.9%는 이중문화의 습득, 15.5%는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14.3%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라고 답하였다. 자녀 양육에 유리한 점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12.3%였다.

다른 출신국보다 중국(한족) 출신 어머니들(55.2%)이 이중언어습득이 자녀 양육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족이어서 유리한 점이 없다는 생각은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집단(24.7%)에서 훨씬 높았다.

〈표 III-3-6〉 자녀 양육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유리한 점: 다문화가족

단위: %(명)

구분	이중 문화 습득	이중 언어 습득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높은 이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혜택	다문화 가족 간 긴밀한 사회적지지	기타	유리 한점 없음	계(수)
전체	18.9	38.5	15.5	14.3	0.6	-	12.3	100.0(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20.0	42.6	15.5	11.0	-	-	11.0	100.0(155)
중국(한족 등)	13.4	55.2	17.9	9.0	-	-	4.5	100.0(67)
베트남	19.6	31.3	14.2	18.3	1.3	-	15.4	100.0(240)
필리핀	19.1	38.2	17.6	13.2	-	-	11.8	100.0(68)
$X^2(df)$				25.188(15)*				
기관유형								
유치원	18.5	37.6	16.1	14.4	0.7	-	12.7	100.0(410)
어린이집	20.0	41.7	13.3	14.2	-	-	10.8	100.0(120)
$X^2(df)$				2.111(5)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19.0	34.7	11.2	18.6		-	16.5	100.0(242)
200이상 300만원미만	19.4	42.9	16.0	11.4	0.6	-	9.7	100.0(175)
300이상 400만원미만	28.3	39.6	15.1	9.4	3.8	-	3.8	100.0(53)
400이상 500만원미만	8.3	37.5	41.7	4.2	-	-	8.3	100.0(24)
500만원 이상	9.1	36.4	36.4	9.1	-	-	9.1	100.0(11)
모름/무응답	8.0	44.0	20.0	16.0	-	-	12.0	100.0(25)
$X^2(df)$				na				
한국어 실력								
상	18.9	38.5	15.5	14.3	0.6	-	12.3	100.0(276)
중	17.7	41.4	12.7	14.9	1.1	-	12.2	100.0(181)
하	16.4	35.6	8.2	13.7	1.4	-	24.7	100.0(73)
$X^2(df)$				22.036(10)*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05$.

다문화가족이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불리하게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다. '언어문제로 인한 긴밀한 상호작용 한계'가 34%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고, 그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23.8%), '육아정보 획득의 어려움(13.8%)', '경제적 어려움(1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혀 불리한 점이 없다는 응답도 10.9%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향후 어머니의 언어능력 향상과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표 III-3-7〉 자녀 양육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불리한 점: 다문화가족

단위: %(명)

구분	육아정보 획득의 어려움	언어문제로 인한 긴밀한 상호작용 한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아빠 나이가 많음	경제적 어려움	시댁의 간섭	기타	불리 한점 없음	계(수)
전체	13.8	34.0	23.8	3.4	12.8	0.6	0.8	10.9	100.0(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16.1	17.4	33.5	3.9	12.9	0.6	1.3	14.2	100.0(155)
중국(한족 등)	7.5	44.8	17.9	-	13.4	1.5	3.0	11.9	100.0(67)
베트남	12.9	38.3	20.4	4.6	13.8	0.4	-	9.6	100.0(240)
필리핀	17.6	45.6	19.1	1.5	8.8	-	-	7.4	100.0(68)
기관유형									
유치원	13.2	35.1	23.7	3.2	12.9	0.5	1.0	10.5	100.0(410)
어린이집	15.8	30.0	24.2	4.2	12.5	0.8	-	12.5	100.0(120)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10.7	32.6	22.3	3.7	20.2	1.2	-	9.1	100.0(242)
200이상 300만원미만	18.3	37.7	24.6	1.7	8.0	-	-	9.7	100.0(175)
300이상 400만원미만	9.4	34.0	18.9	11.3	7.5	-	3.8	15.1	100.0(53)
400이상 500만원미만	20.8	25.0	41.7	-	-	-	-	12.5	100.0(24)
500만원 이상	18.2	18.2	9.1	-	-	-	18.2	36.4	100.0(11)
모름/무응답	12.0	36.0	32.0	-	4.0	-	-	16.0	100.0(25)
한국어 실력									
상	15.2	24.3	28.3	3.3	12.0	0.7	1.4	14.9	100.0(276)
중	11.6	43.1	17.7	3.9	16.0	0.6	-	7.2	100.0(181)
하	13.7	47.9	21.9	2.7	8.2	-	-	5.5	100.0(73)

나. 부모 역할

1)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소에 자녀와 친구처럼 다정히 지내는 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지, 문제라 여겨질 때 화내고 큰소리를 치는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지 등의 네 가지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비다문화가족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자녀와 다정히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3.94점, 비다문화가족 4.1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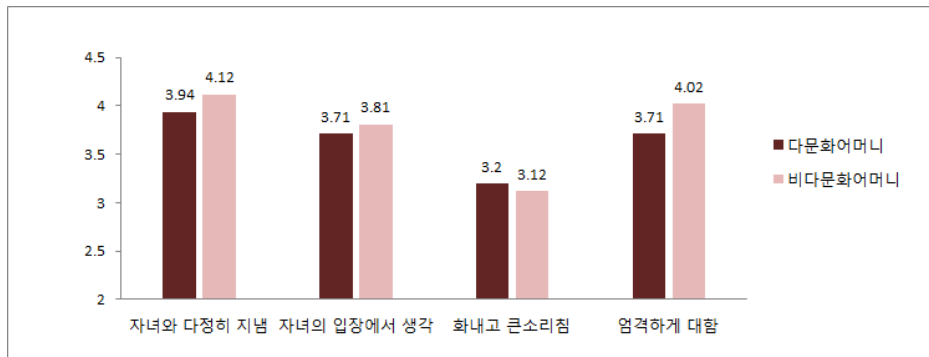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경향에서는 다문화가족 3.71점, 비다문화가족 3.81점이며, 화내고 큰소리를 치느냐는 질문에는 다문화 3.2점, 비다문화 3.12점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대하느냐는 항목에는 다문화 3.71점, 비다문화 4.02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비다문화가족 어머니가 더 엄격하게 자녀를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8〉 모의 자녀 양육 태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다문화			비다문화			t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자녀와 다정히 지냄	3.94	0.81	(530)	4.12	0.69	(428)	-3.827***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	3.71	0.81	(530)	3.81	0.72	(428)	-2.046*
화내고 큰소리침	3.20	0.84	(530)	3.12	0.80	(428)	1.506
엄격하게 대함	3.71	0.89	(530)	4.02	0.72	(428)	-6.005***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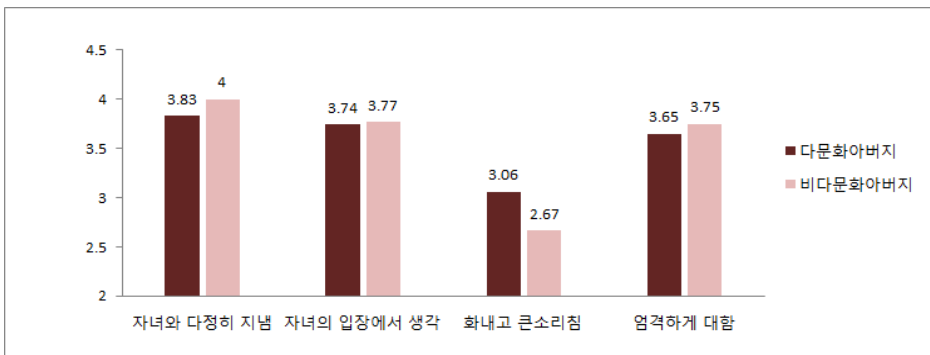
[그림 III-3-1] 모의 자녀 양육 태도: 5점 척도

동일한 문항으로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양육 태도를 확인하였다.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녀에게 다정하게 대하여 주는지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아버지는 평균 3.83점, 비다문화가족에서는 4점으로 나타나 비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점수가 높았고, 화내고 큰소리 치느냐는 질문에 다문화 아버지 3.06점, 비다문화 아버지 2.67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다문화가족 아버지들이 다문화가족 아버지들에 비해 다소 더 다정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III-3-9〉 모가 인식한 부의 자녀 양육 태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다문화			비다문화			t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자녀와 다정히 지냄	3.83	1.09	(530)	4.00	0.90	(428)	-2.711**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	3.74	1.02	(530)	3.77	0.92	(428)	-0.436
화내고 큰소리침	3.06	1.15	(530)	2.67	1.00	(428)	5.600***
엄격하게 대함	3.65	1.07	(530)	3.75	1.03	(428)	-1.476 [#]

[#] $p < .5$, ** $p < .01$, *** $p < .001$.

[그림 III-3-2] 모가 인식한 부의 자녀 양육 태도: 5점 척도

2) 부의 자녀 양육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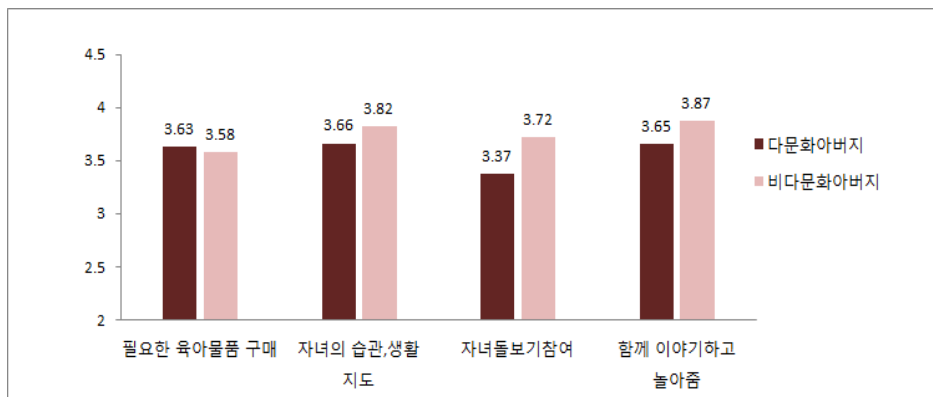
어머니에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버지가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다주는지, 자녀의 습관 또는 생활에 관심을 두고 지도하는지, 음식먹이고 목욕을 씻기는 등 양육행동에 참여하는지, 자녀와 함께 자주 놀아주는지에 대해 물었다.

필요한 양육 물품을 종종 사다주는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아버지 3.63점, 비다문화가족 아버지 3.58점으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자녀의 습관 및 생활지도(다문화 3.66점, 비다문화 3.82점), 자녀돌보기 참여(다문화 3.37점, 비다문화 3.72점), 함께 이야기하고 놀아주기(다문화 3.65점, 비다문화 3.87점)등의 부분에서는 비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위한 동기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3-10〉 모가 인식한 부의 자녀 양육 참여: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다문화			비다문화			t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필요한 육아물품 구매	3.63	1.13	(530)	3.58	1.14	(428)	0.607
자녀의 습관, 생활 지도	3.66	1.06	(530)	3.82	0.92	(428)	-2.543*
자녀돌보기(목욕, 식사 등)에 참여	3.37	1.23	(530)	3.72	1.16	(428)	-4.534***
함께 이야기하거나 놀아줌	3.65	1.07	(530)	3.87	0.98	(428)	-3.337**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3-3] 모가 인식한 부의 자녀 양육 참여

3) 가족 내 자녀 양육 관련 갈등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지 또 갈등을 경험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누구의 의견을 따르는지를 조사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양육 문제로 인한 갈등 경험 비율은 다문화가족 57.2%, 비다문화가족 58.2%로 유사하다.

갈등처리의 주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모두 어머니의 의견에 따른다는 비율이 더 높으나, 다문화가족에서 남편의 의견에 따른다는 비율이 38%로 비다문화가족 22.1%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 결과에는 출신국가별 차이를 보여 중국 조선족(72.5%)이나 중국 한족(75%)의 경우 본인의 의견을 따른다는 비율이 다른 국가들(베트남 54.2%, 필리핀 51.2%)에 비해 현격하게 높았다.

〈표 III-3-11〉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단위: %(명)

구분	갈등 경험여부	갈등 시 주로 따르는 의견		
		본인	남편	계(수)
다문화가족 전체	57.2	62.0	38.0	100.0(303)
출신국				
중국(조선족)	58.7	72.5	27.5	100.0(91)
중국(한족 등)	59.7	75.0	25.0	100.0(40)
베트남	54.6	54.2	45.8	100.0(131)
필리핀	60.3	51.2	48.8	100.0(41)
$X^2(df)$		12.562(3)**		
기관유형				
유치원	53.7	59.1	40.9	100.0(220)
어린이집	69.2	69.9	30.1	100.0(83)
$X^2(df)$		2.979(1)#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58.7	59.9	40.1	100.0(142)
200이상 300만원미만	57.1	67.0	33.0	100.0(100)
300이상 400만원미만	64.2	61.8	38.2	100.0(34)
400이상 500만원미만	45.8	54.5	45.5	100.0(11)
500만원 이상	45.5	60.0	40.0	100.0(5)
모름/무응답	44.0	54.5	45.5	100.0(11)
$X^2(df)$		na		
한국어 실력				
상	55.4	62.7	37.3	100.0(153)
중	58.6	65.1	34.9	100.0(106)
하	60.3	52.3	47.7	100.0(44)
$X^2(df)$		2.235(2)		
비다문화가족	58.2	77.9	22.1	100.0(249)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p < .5$, ** $p < .01$.

다음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 문제로 시댁식구들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지 또 갈등 상황에서 주로 누구의 의견을 따르는지도 알아보았다. 두 집단 모두에서 양육 문제로 인한 시댁과의 갈등 경험 비율은 다문화가족 22.6%, 비다문화가족 17.8%로 조사되어 그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

갈등처리의 주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남편의 의견에 따른다는 비율이 40.8%로 가장 높고, 비다문화가족에서는 어머니 본인의 의견에 따른다는 비율이 53.9%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다문화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양육 주도권이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약한 경향을 보여준다.

〈표 III-3-12〉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한 시댁과의 갈등

단위: %(명)

구분	갈등 경험여부	갈등 시 주로 따르는 의견				계(수)
		본인	남편	시부모	남편의 형제자매	
다문화가족 전체	22.6	33.3	40.8	22.5	3.3	100.0(120)
출신국						
중국(조선족)	14.8	30.4	43.5	26.1	-	100.0(23)
중국(한족 등)	16.4	36.4	45.5	18.2	-	100.0(11)
베트남	27.1	33.8	43.1	18.5	4.6	100.0(65)
필리핀	30.9	33.3	28.6	33.3	4.8	100.0(21)
기관유형						
유치원	20.7	29.4	44.7	23.5	2.4	100.0(85)
어린이집	29.2	42.9	31.4	20.0	5.7	100.0(35)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26.9	30.8	43.1	24.6	1.5	100.0(65)
200이상 300만원미만	21.7	34.2	39.5	21.1	5.3	100.0(38)
300이상 400만원미만	15.1	62.5	25.0	-	12.5	100.0(8)
400이상 500만원미만	8.3	100.0	-	-	-	100.0(2)
500만원 이상	18.2	-	100.0	-	-	100.0(2)
모름/무응답	20.0	-	40.0	60.0	-	100.0(5)
한국어 실력						
상	17.8	30.6	44.9	20.4	4.1	100.0(49)
중	26.0	38.3	36.2	23.4	2.1	100.0(47)
하	32.9	29.2	41.7	25.0	4.2	100.0(24)
비다문화가족	17.8	53.9	21.1	25.0	-	100.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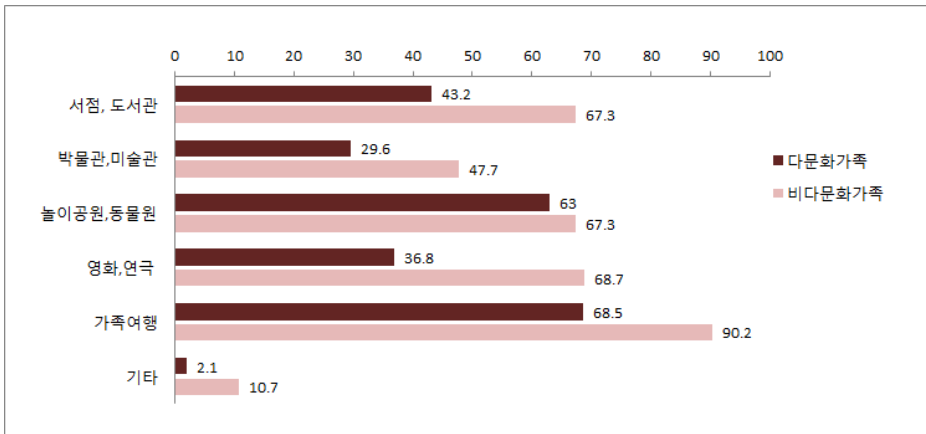
4) 문화생활 경험

자녀와 함께 경험하는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3개월 동안 자녀와 방문한 곳을 모두 표시하도록 한 결과, 다문화가족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경험비율이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놀이 공원이나 동물원을 방문했었다는 비율은 비슷하나, 가족여행을 비롯하여 서점이나 도서관의 방문,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용, 영화나 연극 등 공연 관람 등의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최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음을 홍보하고 자녀와 문화생활 향유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표 III-3-13〉 지난 3개월 간 자녀와 문화생활을 경험한 비율

단위: %(명)

구분	서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놀이공원, 동물원	영화, 연극 등 공연	가족 여행	기타	(수)
다문화가족 전체	43.2	29.6	63.0	36.8	68.5	2.1	(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57.4	40.6	74.8	47.7	78.1	3.2	(155)
중국(한족 등)	49.3	34.3	68.7	47.8	74.6	3.0	(67)
베트남	33.8	22.1	56.3	26.3	61.3	1.7	(240)
필리핀	38.2	26.5	54.4	38.2	66.2	-	(68)
기관유형							
유치원	44.1	32.2	62.2	38.3	69.0	2.2	(410)
어린이집	40.0	20.8	65.8	31.7	66.7	1.6	(120)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40.1	26.0	53.7	31.8	63.6	2.0	(242)
200이상 300만원미만	44.0	25.1	68.0	36.6	69.1	1.7	(175)
300이상 400만원미만	50.9	43.4	73.6	50.9	73.6	-	(53)
400이상 500만원미만	45.8	50.0	87.5	41.7	87.5	4.2	(24)
500만원 이상	54.5	72.7	72.7	45.5	90.9	-	(11)
모름/무응답	44.0	28.0	68.0	48.0	72.0	8.0	(25)
한국어 실력							
상	48.6	33.3	65.9	42.8	71.0	1.4	(276)
중	40.3	27.6	65.2	35.4	70.2	2.8	(181)
하	30.1	20.5	46.6	17.8	54.8	2.8	(73)
비다문화가족	67.3	47.7	67.3	68.7	90.2	10.7	(428)



〔그림 III-3-4〕 지난 3개월 간 자녀와 문화생활을 경험한 비율

5) 자녀 양육 기술

자녀 양육을 위한 실제적인 부분으로 양육 기술을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부모의 의식주 제공과 관련된 부분, 둘째, 건강유지, 신체 및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는 부분, 셋째, 언어, 정서, 사회적 지원 정도, 넷째, 규범 및 가치, 훈육, 사회와의 연계 등을 유형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김희진 외 (2011)의 연구의 척도를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응답이 용이하도록 간략화한 것이다. 양육 기술을 표현하는 문항별로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기술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유아기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적인 양육의 수준을 구체화 시켜주는 부분으로써 이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전반적인 네 가지 범주에 따른 자녀 양육 기술의 평균점수는 <표 III-3-14>와 같다. 네 가지 범주 중 규범 및 가치, 훈육, 사회와의 연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양육 기술 범주에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 기술이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 기술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어머니의 의복, 음식 및 주거제공의 역할에 대한 기술이 다문화가족 3.4점, 비다문화가족 3.46점으로 네 가지 범주 중 가장 점수가 높았다. 다음은 건강유지, 신체 및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다문화가족 어머니 3.09점, 비다문화가족 어머니 3.24점이며, 언어적 정서적 지원정도에 대한 문항 평균은 다문화가족 어머니 3.06점, 비다문화가족 어머니 3.22점이다. 두 집단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 규범 및 가치, 훈육, 사회와의 연계 등에 대한 평균은 다문화가족 어머니 3.02점, 비다문화가족 어머니 3.01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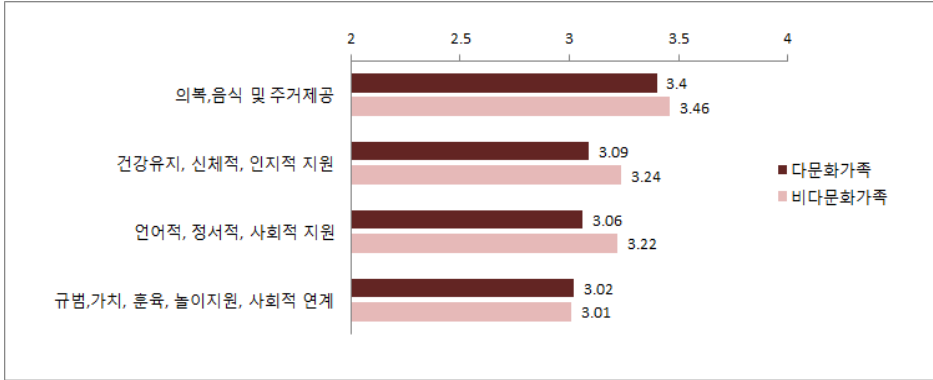
<표 III-3-14> 모의 자녀 양육 기술 총합 점수: 4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다문화			비다문화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의복, 음식 및 주거제공의 역할	3.40	0.42	(530)	3.46	0.35	(428)	-2.347*
건강유지, 신체적, 인지적 지원의 역할	3.09	0.47	(530)	3.24	0.43	(428)	-5.160***

구분	다문화			비다문화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의 역할	3.06	0.45	(530)	3.22	0.41	(428)	-5.430***
규범/가치형성, 훈육, 놀이지원, 사회연계의 역할	3.02	0.45	(530)	3.01	0.40	(428)	0.117

* $p < .05$, *** $p < .001$.



[그림 III-3-5] 모의 자녀 양육 기술 총합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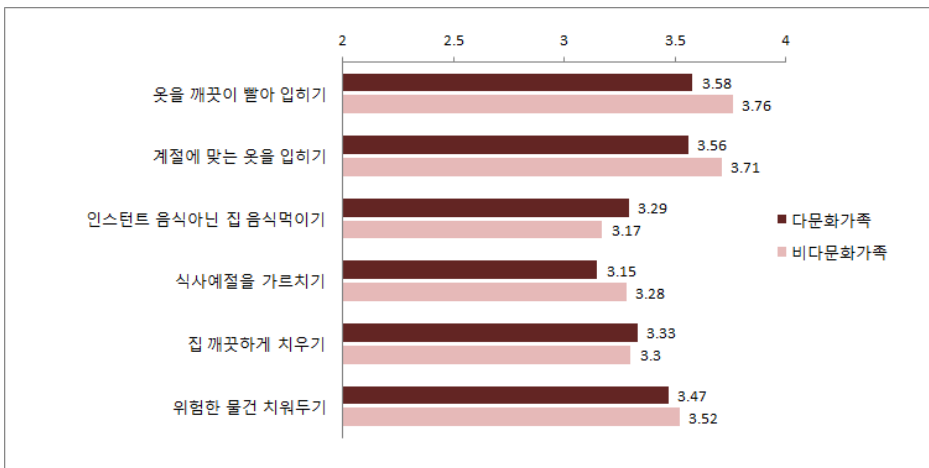
첫째, 어머니의 양육 기술 중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집을 깨끗하게 치운다는 문항(다문화가족 3.33점, 비다문화가족 3.30점)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문항에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 기술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3-15〉 모의 자녀 양육 기술(의복, 음식 및 주거제공의 역할): 4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다문화			비다문화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옷을 깨끗이 빨아 입히기	3.58	0.51	(530)	3.76	0.43	(428)	-5.935***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히기	3.56	0.52	(530)	3.71	0.46	(428)	-4.758***
인스턴트 음식 보다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이기	3.29	0.60	(530)	3.17	0.58	(428)	3.360**
식사예절을 가르치기	3.15	0.63	(530)	3.28	0.56	(428)	-3.238**
집 깨끗하게 치우기	3.33	0.60	(530)	3.30	0.65	(428)	0.610
위험한 물건 치워두기	3.47	0.59	(530)	3.52	0.52	(428)	-1.374 [#]

[#] $p < .5$, ** $p < .01$, *** $p < .001$.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히고(다문화가족 3.58점, 비다문화가족 3.76점),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히는(다문화가족 3.56점, 비다문화가족 3.71점) 등 의식주 중 의복에 대한 기술에 대해 어머니들은 비교적 잘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식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인스턴트 음식보다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이려는 문항에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3.29점, 비다문화가족 어머니는 3.17점으로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가정에서 만든 음식을 주는 경향이 더 높았다. 식사예절에 대한 문항에서는 다문화가족 3.15점, 비다문화가족 3.28점이다. 위험한 물건을 치워두느냐는 문항에는 다문화가족 3.47점, 비다문화가족 3.52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6] 모의 자녀 양육 기술(의복, 음식 및 주거제공의 역할)

둘째, 어머니의 양육 기술 중 건강 유지와 신체적, 인지적 측면의 지원에 대해 질문하였다. 놀이터에 나가 뛰어놀게 하느냐는 문항(다문화가족 3.13점, 비다문화가족 3.10점)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문항에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 기술과 비다문화가족 어머니 양육 기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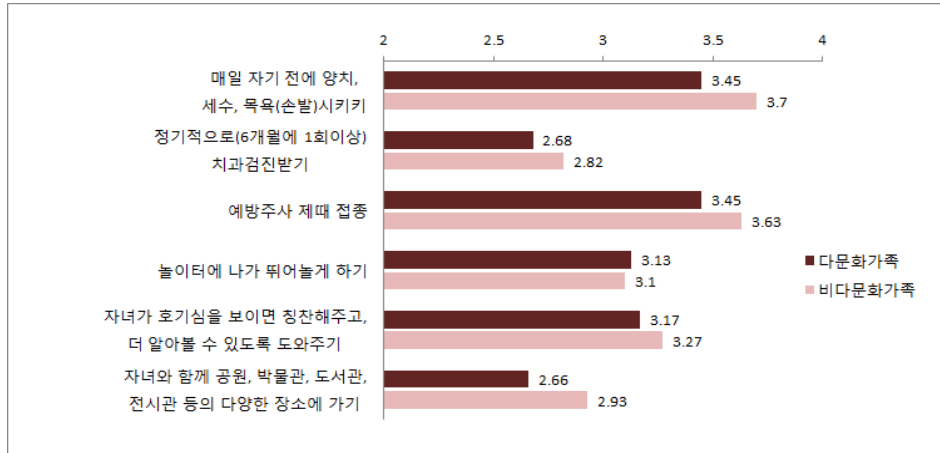
<표 III-3-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일 자기 전에 양치, 세수, 목욕(손발)시키기(다문화가족 3.45점, 비다문화가족 3.70점), 정기적으로(6개월에 1회이상) 치과검진받기(다문화가족 2.68점, 비다문화가족 2.82점), 예방주사 제때 접종하기(다문화가족 3.45점, 비다문화가족 3.63점), 자녀가 호기심을 보이면 칭찬해주고, 더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다문화가족 3.17점, 비다문화가족 3.27점), 자녀와 함께 공원, 박물관, 도서관, 전시관 등의 다양한 장소에 가기(다문화가족 2.66점,

비다문화가족 2.93점) 등의 문항에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 기술이 비다문화가족 어머니 양육 기술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I-3-16〉 모의 자녀 양육 기술(건강유지, 신체적, 인지적 지원의 역할): 4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다문화			비다문화			t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매일 자기 전에 양치, 세수, 목욕(손발)시키기	3.45	0.58	(530)	3.70	0.49	(428)	-7.114***
정기적으로(6개월에 1회이상) 치과검진받기	2.68	0.89	(530)	2.82	0.89	(428)	-2.462*
예방주사 제때 접종	3.45	0.60	(530)	3.63	0.56	(428)	-4.635***
놀이터에 나가 뛰어놀게 하기	3.13	0.67	(530)	3.10	0.86	(428)	0.612
자녀가 호기심을 보이면 칭찬해주고, 더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3.17	0.64	(530)	3.27	0.63	(428)	-2.563*
자녀와 함께 공원, 박물관, 도서관, 전시관 등의 다양한 장소에 가기	2.66	0.80	(530)	2.93	0.78	(428)	-5.194***

* $p < .05$, *** $p < .001$.



[그림 III-3-7] 모의 자녀 양육 기술(건강유지, 신체적, 인지적 지원의 역할)

셋째, 어머니의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6개의 문항 전체 에서 차이를 보였다. 언어적 지원의 측면에서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말도 많이 해주냐는 질문에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평균 3.14점, 비다문화가족 어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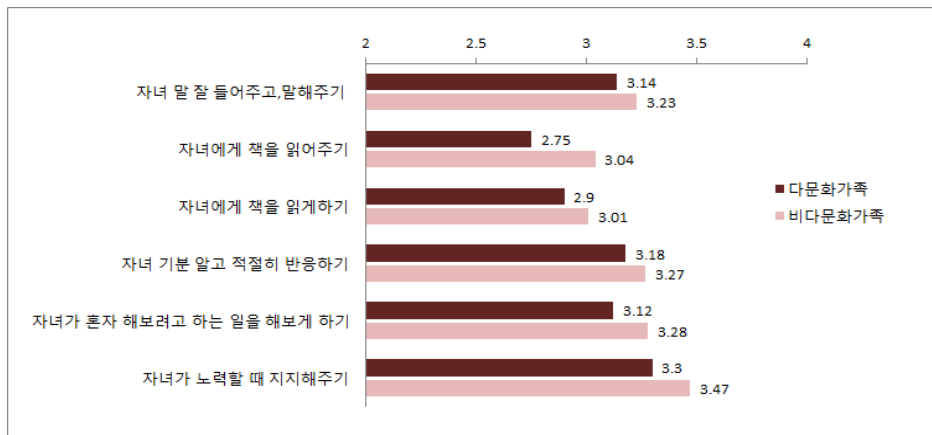
는 평균 3.23점, 자녀에게 책을 자주 읽어 주는 지에는 다문화가족 어머니 2.75점, 비다문화가족 어머니 3.04점, 자녀 스스로 책을 읽게 하는지는 다문화가족 어머니 2.90점, 비다문화가족 어머니 3.01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17〉 모의 자녀 양육 기술(언어/정서/사회적 지원의 역할): 4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다문화			비다문화			t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말도 많이 해주기	3.14	0.57	(530)	3.23	0.52	(428)	-2.621**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기	2.75	0.77	(530)	3.04	0.72	(428)	-5.822***
자녀에게 책을 읽게하기	2.90	0.69	(530)	3.01	0.71	(428)	-2.459*
자녀의 기분을 알고 적절히 반응하기	3.18	0.55	(530)	3.27	0.53	(428)	-2.636**
자녀가 혼자 해보려고 하는 일을 해보게 하기	3.12	0.56	(530)	3.28	0.54	(428)	-4.601***
자녀가 노력할 때 지지해주기	3.30	0.65	(530)	3.47	0.54	(428)	-4.543***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자녀의 기분을 알고 적절히 반응하는지(다문화가족 3.18점, 비다문화가족 3.27점)와 자녀가 혼자 해보려고 하는 일을 해보게 하는지(다문화가족 3.12점, 비다문화가족 3.28점), 자녀가 노력할 때 지지해주는지(다문화가족 3.30점, 비다문화가족 3.47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림 III-3-8〕 모의 자녀 양육 기술(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의 역할)

마지막 네 번째 범주로 어머니의 규범/가치형성, 훈육, 놀이지원, 사회연계의 역할에 대해 질문한 7개의 문항 전체에서 <표 III-3-1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규범 또는 가치형성의 측면에서 사회 중요 질서, 예절 가르치기(다문화가족 3.23점, 비다문화가족 3.48점)에서는 다문화가족 집단의 점수가 낮으나, 부모가 행동의 모범되기(다문화가족 3.15점, 비다문화가족 3.07점)에서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점수가 비다문화에 비해 높았다.

훈육과 관련하여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주기(다문화가족 3.17점, 비다문화가족 3.32점)에서는 다문화가족 집단의 점수가 낮으나,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부드러운 말투로 알려주기(다문화가족 2.96점, 비다문화가족 2.84점)에서는 다문화가족 어머니 점수가 비다문화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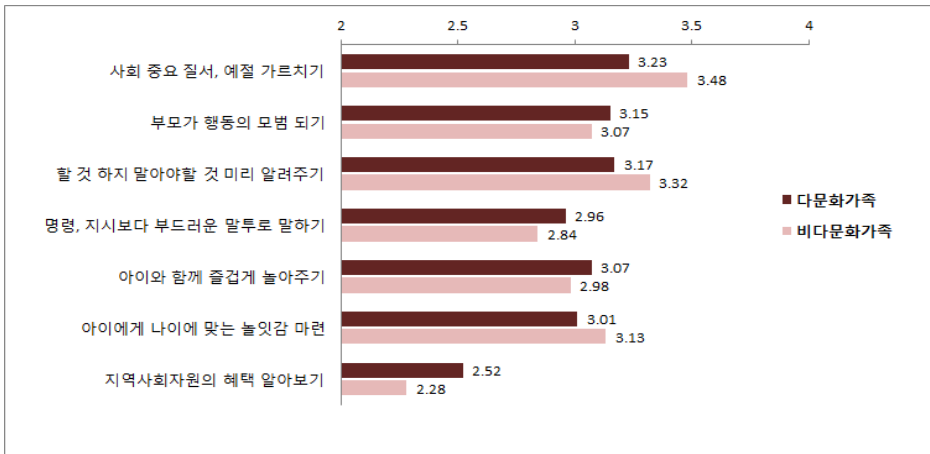
자녀의 놀이를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아주는지(다문화가족 3.07점, 비다문화가족 2.98점)에서는 다문화가족 집단의 점수가 더 높았고, 아이에게 나이에 맞는 놀잇감을 마련해주는지(다문화가족 3.01점, 비다문화가족 3.13점)에서는 다문화가족 집단의 점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능력과 관련하여 주변의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기관의 육아 지원 혜택 알아보기에 대해 다문화가족 2.52점, 비다문화가족 2.28점으로 다문화가족의 역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8> 모의 자녀 양육 기술(규범/가치형성, 훈육, 놀이지원, 사회연계의 역할): 4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다문화			비다문화			t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사회 중요 질서, 예절 가르치기	3.23	0.59	(530)	3.48	0.53	(428)	-6.751***
부모가 행동의 모범되기	3.15	0.56	(530)	3.07	0.50	(428)	2.263*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주기	3.17	0.61	(530)	3.32	0.55	(428)	-4.027***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부드러운 말투로 알려주기	2.96	0.63	(530)	2.84	0.61	(428)	3.117**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아주기	3.07	0.63	(530)	2.98	0.63	(428)	2.367*
아이에게 나이에 맞는 놀잇감 마련	3.01	0.67	(530)	3.13	0.62	(428)	-2.894**
주변의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기관의 육아지원혜택 알아보기	2.52	0.86	(530)	2.28	0.82	(428)	4.483***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3-9] 모의 자녀 양육 기술(규범/가치형성, 훈육, 놀이지원, 사회연계의 역할)

4. 다문화가족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및 요구

다문화가족 자녀의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기관 이용비용과 부담 정도,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도움 정도, 기관 이용 시 어려움 정도, 다문화가족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내 부모참여 활동 현황 등을 알아보고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2013년에 들어서 만 3-5세에 이르는 전면 무상교육·보육의 혜택을 받은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다문화가족은 이미 2011년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매월 추가로 내는 비용이 있다는 다문화가족은 전체의 68.5%, 비다문화가족은 73.4%에 달했다.

〈표 III-4-1〉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지불 여부: 집단비교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다문화가족	68.5	31.5	100.0(530)
비다문화가족	73.4	26.6	100.0(428)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비용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월평균 11만 6천원, 비다문화가족은 11만 8천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문화가족의 28.9%가 5만원 미만의 금액을 추가지출하고 있었으며,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2.9%, 10만원 이상 15만원 이상이 22.6%에 달했다. 비다문화가족의 경우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가 30.6%로 가장 많았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니는 기관유형에 따른 이용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의 72.4%가 1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지만, 유치원은 43.4%만이 10만원 미만을 내고, 월 20만원 이상을 내는 가구도 19%에 달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의 경우, 더 많은 추가비용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상한액에 대한 제한 없이 유치원에 따라 수납액을 정하게 되어있고, 그 비용도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표 III-4-2〉육아지원기관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명)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15만원 미만	15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계(수)
다문화가족 전체	28.9	22.9	22.6	11.3	7.2	7.2	100.0(363)
출신국							
중국(조선족)	34.7	15.7	19.0	8.3	13.2	9.1	100.0(121)
중국(한족 등)	20.7	32.8	22.4	10.3	6.9	6.9	100.0(58)
베트남	27.2	26.5	21.1	15.0	3.4	6.8	100.0(147)
필리핀	29.7	16.2	40.5	8.1	2.7	2.7	100.0(37)
$\chi^2(df)$			na				
기관유형							
유치원	27.5	15.9	24.4	13.2	9.7	9.3	100.0(258)
어린이집	32.4	40.0	18.1	6.7	1.0	1.9	100.0(105)

구분	5만원 미만	5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15만원 미만	15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계(수)
$X^2(df)$	37.359(5)***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34.5	21.1	21.1	14.1	4.9	4.2	100.0(142)
200이상 300만원미만	27.8	24.6	29.4	6.3	5.6	6.3	100.0(126)
300이상 400만원미만	31.3	20.8	16.7	10.4	6.3	14.6	100.0(48)
400이상 500만원미만	20.0	20.0	15.0	20.0	20.0	5.0	100.0(20)
500만원 이상	-	36.4	9.1	9.1	18.2	27.3	100.0(11)
모름/무응답	12.5	25.0	18.8	18.8	18.8	6.3	100.0(16)
$X^2(df)$	na						
한국어 실력							
상	28.5	21.2	22.8	11.4	8.3	7.8	100.0(193)
중	30.6	24.8	18.2	13.2	5.8	7.4	100.0(121)
하	26.5	24.5	32.7	6.1	6.1	4.1	100.0(49)
$X^2(df)$	7.000(10)						
비다문화가족	23.2	30.6	22.9	8.0	5.7	9.6	100.0(314)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비용이 부담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다문화가족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7.2%로 가장 높았고, 비다문화가족은 보통 수준이라는 비율이 26.4%로 가장 높았다.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다문화가족의 전체 평균은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은 3.21점이었고, 비다문화가족은 보통 수준 보다 다소 낮은 2.64점으로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다문화/비다문화 집단 간 월평균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에는 차이가 없지만, 다문화가족은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이 비용에 부담을 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전체표집 대상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비율이 (77.4%) 비다문화가족 자녀(72.2%)에 비해 다소 높으므로 다문화가족이 더 많은 추가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표 III-4-3〉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보통	조금 부담	매우부담	계(수)	평균	t
다문화가족	9.6	16.8	26.2	37.2	10.2	100.0(363)	3.21	6.539***
비다문화가족	21.7	23.9	26.4	25.2	2.9	100.0(314)	2.64	

*** $p < .001$.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비용의 부담 정도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국과 한국어 실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기관유형과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총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III-4-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원의 이용비용이 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이러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표 III-4-4>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부담 정도: 다문화가족

단위: %(명)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보통	조금 부담	매우부담	계(수)	평균	F
전체	9.6	16.8	26.2	37.2	10.2	100.0(363)	3.21	
출신국								
중국(조선족)	9.9	21.5	23.1	38.8	6.6	100.0(121)	3.11	1.045
중국(한족 등)	10.3	17.2	25.9	37.9	8.6	100.0(58)	3.17	
베트남	9.5	11.6	29.3	34.7	15.0	100.0(147)	3.34	
필리핀	8.1	21.6	24.3	40.5	5.4	100.0(37)	3.14	
X ² (df)	11.874(12)							
기관유형								
유치원	7.0	15.9	24.0	43.0	10.1	100.0(258)	3.33	9.936**
어린이집	16.2	19.0	31.4	22.9	10.5	100.0(105)	2.92	
X ² (df)	16.746(4)**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7.7	12.0	21.1	42.3	16.9	100.0(142)	3.49 ^a	3.760**
200이상 300만원미만	7.1	19.8	32.5	35.7	4.8	100.0(126)	3.11	
300이상 400만원미만	18.8	16.7	22.9	29.2	12.5	100.0(48)	3.00	
400이상 500만원미만	10.0	40.0	35.0	15.0	-	100.0(20)	2.55 ^b	
500만원 이상	18.2	18.2	18.2	36.4	9.1	100.0(11)	3.00	
모름/무응답	12.5	6.3	25.0	56.3	-	100.0(16)	3.25	
X ² (df)	na							
한국어 실력								
상	9.3	21.2	22.3	37.8	9.3	100.0(193)	3.17	0.417
중	12.4	9.9	28.1	38.8	10.7	100.0(121)	3.26	
하	4.1	16.3	36.7	30.6	12.2	100.0(49)	3.31	
X ² (df)	12.667(8) [#]							

[#] $p < .5$, ** $p < .01$.

나. 육아지원기관의 자녀 지원 프로그램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 받아본 자녀 지원 프로그램의 경험 여부와 도움 정도를 알아보았다.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가정은 전체 다문화가족의 5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본적인 발달검사 및 건강진단, 전체 유아 대상의 다문화교육, 방과후 특별지도 프로그램이 각각 51.9%, 45.5%, 38.1% 순으로 나타났다. 각 프로그램이 도움된 정도를 4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한글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3.47점으로 가장 높았다. 기타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3점 이상의 수준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아직까지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경험률이 각 프로그램별로 50%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단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5〉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경험여부	도움정도		
		평균	표준편차	(수)
한글교육	59.2	3.47	0.58	(314)
이중언어교육	23.4	3.16	0.58	(124)
멘토-멘티제도	25.5	3.16	0.70	(135)
방과후 특별지도	38.1	3.28	0.65	(202)
기본적인 발달검사 및 건강진단	51.9	3.27	0.63	(275)
전체대상 다문화교육	45.5	3.18	0.71	(241)
기타	1.9	2.90	0.7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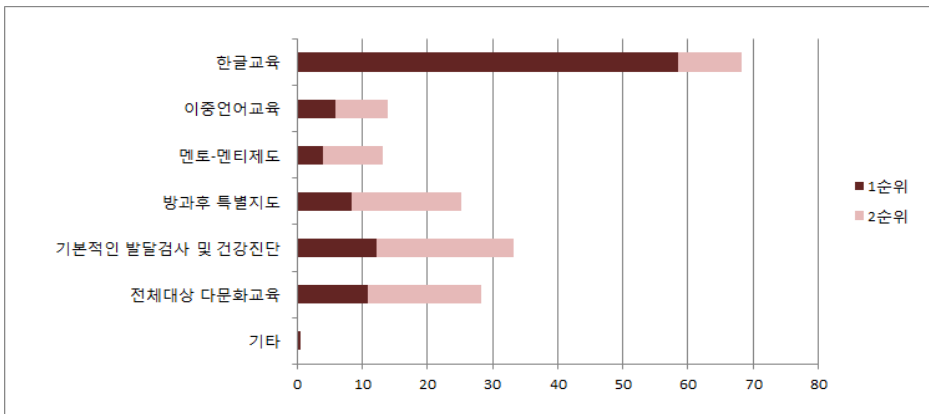
다음으로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을 2순위까지 고르게 하였다. 1순위로는 역시 한글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본적인 발달검사 및 건강진단, 전체 유아 대상의 다문화교육, 방과후 특별지도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비율은 1순위 때의 양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국, 자녀가 다니는 기관유형, 가계소득,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정

〈표 III-4-6〉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한글교육	이중언어 교육	멘토-멘티 제도	방과후 특별지도	기본적인 발달검사 및 건강진단	전체대상 다문화 교육	기타	(수)
1순위	58.4	5.8	4.0	8.3	12.1	10.8	0.5	(397)
1+2순위	68.3	13.9	13.1	25.2	33.2	28.2	0.5	(397)



〔그림 III-4-1〕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내 한국어 사용이 익숙한 조선족 출신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한글교육 만족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았으며 한족 출신 다문화가족은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소득수준이 400만원 이상으로 높은 집단에서는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표 III-4-7 참조).

실제 면담에서 만난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자녀에게 한글교육, 수학교육과 같은 방과후 특별지도를 해 줄 것을 많이 원하고 있었다. 취학 전 유아 대상으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한국 내 양육 문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집 애기들은 한글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더라고요. 우리집 애들만 안 보낼 수도 없으니까요. 학습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원이 워낙 비싸고, 또 학원에서 배운다고 해도 집에서 또 해줘야 되니까요. (다문화가족 어머니 B)

저희 나라(중국)에서는 글이나 수학 같은 건 학교 가면 배워요. 근데 여기(한국)는 미리 다 가르쳐서 보내야 하니까... 학원에서 하는 걸 유치원에서 도와주면 좋겠어요. 집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형편상 다 보내지를 못하니까... 한국에서 다른 집 애들 학원 가는 거 보면 부담스러워요. (다문화가족 어머니 E)

〈표 III-4-7〉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한글 교육	이중 언어 교육	멘토 -멘티 제도	방과후 특별 지도	기본적인 발달검사 및 건강진단	전체대상 다문화 교육	기타	계(수)
전체	58.4	5.8	4.0	8.3	12.1	10.8	0.5	100.0(397)
출신국								
중국(조선족)	50.0	6.5	4.6	10.2	13.0	14.8	0.9	100.0(108)
중국(한족 등)	59.2	12.2	6.1	4.1	6.1	12.2	-	100.0(49)
베트남	63.2	4.2	4.2	7.4	11.1	9.5	0.5	100.0(190)
필리핀	58.0	4.0	-	12.0	20.0	6.0	-	100.0(50)
기관유형								
유치원	56.8	5.5	3.9	10.6	12.3	10.6	0.3	100.0(310)
어린이집	64.4	6.9	4.6	-	11.5	11.5	1.1	100.0(87)
가계소득								
20만원 미만	56.3	6.8	4.2	8.4	13.7	10.5	-	100.0(190)
20이상 30만원미만	61.7	6.0	3.0	10.5	8.3	10.5	-	100.0(133)
30이상 40만원미만	54.3	2.9	8.6	2.9	20.0	8.6	2.9	100.0(35)
40이상 50만원미만	68.8	-	-	-	6.3	18.8	6.3	100.0(16)
50만원 이상	42.9	-	-	14.3	14.3	28.6	-	100.0(7)
모름/무응답	62.5	6.3	6.3	6.3	12.5	6.3	-	100.0(16)
한국어 실력								
상	57.9	5.4	4.5	10.4	8.9	11.9	1.0	100.0(202)
중	59.3	6.9	0.7	6.9	17.2	9.0	-	100.0(145)
하	58.0	4.0	12.0	4.0	10.0	12.0	-	100.0(50)

다. 육아지원기관의 부모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부모에게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부모 지원 프로그램 경험 여부와 도움 정도를 살펴보았다.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프로그램은 원장 혹은 교사와의 1:1 상담이 62.5%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자녀의 수업에 함께하는 부모참여 수업 55.8%, 한국어 교육 37.2% 순이었

다. 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비다문화가정 어머니를 1:1로 짝지어주는 멘토-멘티 제도와 가정통신문 통번역 등의 서비스를 경험한 비율은 약 15% 내외였다.

육아지원기관 내 교사(원장)와의 1:1 상담이 도움이 된 정도는 4점 만점에 3.42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한국어 교육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3.41점이었다. 경험한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표 III-4-8〉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프로그램 경험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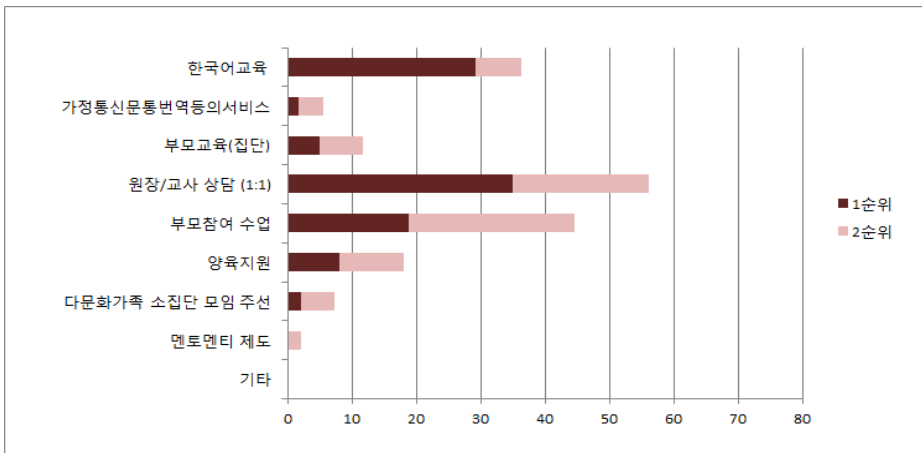
구분	경험여부	도움정도		
		평균	표준편차	(수)
한국어 교육	37.2	3.41	0.63	(197)
가정통신문 통번역 등의 서비스	15.1	3.29	0.62	(80)
아버지교육 포함한 부모교육(집단)	26.2	3.18	0.66	(139)
원장/교사와의 상담(1:1)	62.5	3.42	0.61	(331)
부모참여 수업	55.8	3.25	0.62	(296)
양육 지원	32.1	3.27	0.65	(170)
다문화가족 소집단 모임 주선	21.7	3.17	0.71	(115)
멘토-멘티 제도	14.9	2.97	0.75	(79)
기타	0.2	4.00	-	(1)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사와 1대 1로 면담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을 간주할 때, 1:1 면담을 경험조차 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38%에 가까운 것은 그만큼 육아지원기관과 다문화가족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참여율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을 2순위까지 선택하게 한 결과, 1순위로 원장/교사와의 1:1 면담, 한국어 교육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비율에서는 부모참여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1:1 면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4-9〉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교육	가정통신문 통번역 등의 서비스	부모 교육 (집단)	원장/ 교사 상담 (1:1)	부모 참여 수업	양육 지원	다문화 가족 소집단 모임 주선	멘토 멘티 제도	기타	(수)
1순위	29.3	1.7	4.9	34.9	18.8	8.0	2.2	0.2	-	(410)
1+2순위	36.3	5.6	11.7	56.1	44.6	18.0	7.3	2.2	0.2	(410)



[그림 III-4-2]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부모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프로그램 역시 자녀 대상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국, 자녀가 다니는 기관유형, 가계소득,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출신국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출신 어머니들은 원장·교사와의 1:1 면담, 부모참여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은 양육정보 제공, 다문화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 소개 및 연계에 대한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표 III-4-10〉 가장 도움이 된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한국어 교육	가정통신문 통번역 등의 서비스	부모 교육 (집단)	원장/교사 상담 (1:1)	부모 참여 수업	양육 지원	다문화 가족 소집단 모임 주선	멘토 멘티 제도	(수)
전체	29.3	1.7	4.9	34.9	18.8	8.0	2.2	0.2	100.0(410)
출신국									
중국(조선족)	20.2	-	4.0	41.1	26.6	4.8	2.4	0.8	100.0(124)
중국(한족 등)	23.1	-	5.8	36.5	26.9	7.7	-	-	100.0(52)
베트남	36.2	2.7	5.9	31.9	14.1	6.5	2.7	-	100.0(185)
필리핀	32.7	4.1	2.0	28.6	8.2	22.4	2.0	-	100.0(49)
기관유형									
유치원	29.8	1.6	3.9	33.3	20.4	8.7	2.3	-	100.0(309)
어린이집	27.7	2.0	7.9	39.6	13.9	5.9	2.0	1.0	100.0(101)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29.8	2.6	5.8	31.9	16.2	9.9	3.7	-	100.0(191)
200이상 300만원미만	32.1	1.5	5.3	32.8	20.6	6.1	1.5	-	100.0(131)
300이상 400만원미만	36.6	-	4.9	29.3	24.4	2.4	-	2.4	100.0(41)
400이상 500만원미만	5.6	-	-	55.6	16.7	22.2	-	-	100.0(18)
500만원 이상	12.5	-	-	62.5	25.0	-	-	-	100.0(8)
모름/무응답	19.0	-	-	57.1	19.0	4.8	-	-	100.0(21)
한국어 실력									
상	25.9	0.9	5.7	39.6	17.9	7.5	2.4	-	100.0(212)
중	34.2	2.7	4.7	26.8	20.1	8.7	2.7	-	100.0(149)
하	28.6	2.0	2.0	38.8	18.4	8.2	-	2.0	100.0(49)

라. 육아지원기관 내 어려움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이용 시 관계 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문화가족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42.1%로 가장 높았고, 기관 행사 참여를 위한 시간 마련이 어렵다 23.6%,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23.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다문화가족의 과반수 이상(61.7%)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였고, 기관 행사 참여를 위한 시간 마련을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24.5%였다. 적극적으로 다른 학부모들과 관계맺기가 자연스러운 비다문화가족의 어머니들에 비해 다문화가족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내 교사, 원장, 학부모 등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11〉 육아지원기관 내 관계 상 어려운 측면

단위: %(명)

구분	원장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기관행사 참여 시간마련	없음	기타	계(수)
다문화가족 전체	1.5	4.9	23.4	23.6	42.1	4.5	100.0(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1.3	3.9	15.5	23.9	51.6	3.9	100.0(155)
중국(한족 등)	-	10.4	25.4	19.4	35.8	9.0	100.0(67)
베트남	1.3	3.8	27.1	24.6	39.6	3.8	100.0(240)
필리핀	4.4	5.9	26.5	23.5	35.3	4.4	100.0(68)
$X^2(df)$	na						
기관유형							
유치원	1.5	4.9	22.7	23.4	42.4	5.1	100.0(410)
어린이집	1.7	5.0	25.8	24.2	40.8	2.5	100.0(120)
$X^2(df)$	1.910(5)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0.8	3.3	24.8	22.7	42.6	5.8	100.0(242)
200이상 300만원미만	2.3	5.1	23.4	25.1	41.1	2.9	100.0(175)
300이상 400만원미만	3.8	3.8	17.0	30.2	43.4	1.9	100.0(53)
400이상 500만원미만	-	-	37.5	20.8	41.7	-	100.0(24)
500만원 이상	-	36.4	9.1	-	36.4	18.2	100.0(11)
모름/무응답	-	12.0	16.0	20.0	44.0	8.0	100.0(25)
$X^2(df)$	na						
한국어 실력							
상	1.1	4.0	19.6	22.5	48.6	4.3	100.0(276)
중	2.2	5.0	27.1	22.1	38.1	5.5	100.0(181)
하	1.4	8.2	28.8	31.5	27.4	2.7	100.0(73)
$X^2(df)$	na						
비다문화가족	1.2	5.6	7.0	24.5	61.7	-	100.0(428)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표 III-4-12>는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가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의 원장, 교사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44.3%의 다문화가족은 원장,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31.5%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약 24%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국별 특성을 살펴보면, 조선족은 한족, 베트남, 필리핀

집단과 다른 분포를 보였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를 4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조선족 출신의 경우 '전혀 어려움 없음(1점)'과 '별로 어려움 없음(2점)' 사이인 1.66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족,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들은 2점 대 초반이며 이는 조선족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이는 다른 다문화 배경의 어머니들 보다 조선족 출신 어머니들은 대부분 한국어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III-4-12〉 원장, 교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다문화가족

단위: %(명)

구분	전혀 어려움없음	별로 어려움없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평균	F
전체	31.5	44.3	21.5	2.6	100.0(530)	1.95	
출신국							
중국(조선족)	44.5	45.8	9.0	0.6	100.0(155)	1.66 ^a	11.505***
중국(한족 등)	23.9	41.8	28.4	6.0	100.0(67)	2.16 ^b	
베트남	26.7	46.7	24.2	2.5	100.0(240)	2.03 ^b	
필리핀	26.5	35.3	33.8	4.4	100.0(68)	2.16 ^b	
X ² (df)	37.850(9)***						
기관유형							
유치원	31.2	43.4	22.9	2.4	100.0(410)	1.97	0.483
어린이집	32.5	47.5	16.7	3.3	100.0(120)	1.91	
X ² (df)	2.730(3)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31.8	41.3	24.0	2.9	100.0(242)	1.98	0.356
200이상 300만원미만	31.4	47.4	18.3	2.9	100.0(175)	1.93	
300이상 400만원미만	26.4	52.8	18.9	1.9	100.0(53)	1.96	
400이상 500만원미만	41.7	37.5	20.8	-	100.0(24)	1.79	
500만원 이상	27.3	54.5	18.2	-	100.0(11)	1.91	
모름/무응답	32.0	36.0	28.0	4.0	100.0(25)	2.04	
X ² (df)	na						
한국어 실력							
상	40.6	48.2	10.5	0.7	100.0(276)	1.71 ^a	35.841***
중	23.8	43.6	30.9	1.7	100.0(181)	2.10 ^b	
하	16.4	31.5	39.7	12.3	100.0(73)	2.48 ^c	
X ² (df)	84.288(6)***						

주 1) a, b, c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na는 X²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01$.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육아지원기관에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 해독

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41.3%였고, 31.3%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하위 특성별로, 어머니의 출신국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앞서 분석한 육아지원기관의 원장, 교사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 정도와 동일하게, 조선족은 한족, 베트남, 필리핀 집단과 다른 특성을 보였다. 조선족은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었으나(1.55점), 한족, 베트남, 필리핀은 2.12점에서 2.32점 사이로 나타났다. 특히,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들은 2.32점으로 조선족 출신의 어머니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II-4-13〉 육아지원기관 가정통신문 해독 시 모의 어려움 정도: 다문화가족
단위: %(명)

구분	전혀 어려움없음	별로 어려움없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평균	F
전체	31.3	41.3	23.2	4.2	100.0(530)	2.00	
출신국							
중국(조선족)	52.3	40.6	7.1	-	100.0(155)	1.55 ^a	24.783***
중국(한족 등)	26.9	37.3	32.8	3.0	100.0(67)	2.12 ^b	
베트남	22.5	42.9	29.6	5.0	100.0(240)	2.17 ^b	
필리핀	19.1	41.2	27.9	11.8	100.0(68)	2.32 ^b	
X ² (df)	73.178(9)***						
기관유형							
유치원	31.2	41.5	23.2	4.1	100.0(410)	2.00	0.001
어린이집	31.7	40.8	23.3	4.2	100.0(120)	2.00	
X ² (df)	0.016(3)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29.8	41.3	25.2	3.7	100.0(242)	2.03	0.982
200이상 300만원미만	29.1	46.3	20.0	4.6	100.0(175)	2.00	
300이상 400만원미만	34.0	37.7	22.6	5.7	100.0(53)	2.00	
400이상 500만원미만	41.7	33.3	25.0	-	100.0(24)	1.83	
500만원 이상	54.5	36.4	9.1	-	100.0(11)	1.55	
모름/무응답	36.0	24.0	32.0	8.0	100.0(25)	2.12	
X ² (df)	na						
한국어 실력							
상	43.8	43.5	12.3	0.4	100.0(276)	1.69 ^a	49.101***
중	18.8	41.4	34.8	5.0	100.0(181)	2.26 ^b	
하	15.1	32.9	35.6	16.4	100.0(73)	2.53 ^c	
X ² (df)	96.449(6)***						

주 1) a, b, c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na는 X²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01$.

자녀가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준비물 혹은 과제 준비 시 다문화가족의 어머니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를 <표 III-4-14>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경향은 앞서 살펴본 두 질문과 유사하게 다소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0% 초반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출신국에 따른 특성 차이를 살펴보면, 조선족 출신의 어머니가 겪는 어려움과 베트남 출신 어머니의 어려움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조선족 출신은 비교적 어려움을 덜 겪었다.

<표 III-4-14> 자녀의 준비물·과제 준비 시 모의 어려움 정도: 다문화가족

단위: %(명)

구분	전혀 어려움없음	별로 어려움없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평균	F
전체	32.5	43.6	21.9	2.1	100.0(530)	1.94	
출신국							
중국(조선족)	43.9	46.5	9.0	0.6	100.0(155)	1.66 ^a	9.920***
중국(한족 등)	28.4	50.7	17.9	3.0	100.0(67)	1.96	
베트남	24.6	44.2	28.3	2.9	100.0(240)	2.10 ^b	
필리핀	38.2	27.9	32.4	1.5	100.0(68)	1.97	
X ² (df)			na				
기관유형							
유치원	31.7	43.7	22.2	2.4	100.0(410)	1.95	0.921
어린이집	35.0	43.3	20.8	0.8	100.0(120)	1.88	
X ² (df)			1.544(3)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31.0	43.8	24.4	0.8	100.0(242)	1.95	0.417
200이상 300만원미만	32.6	45.1	18.9	3.4	100.0(175)	1.93	
300이상 400만원미만	34.0	41.5	20.8	3.8	100.0(53)	1.94	
400이상 500만원미만	41.7	41.7	12.5	4.2	100.0(24)	1.79	
500만원 이상	36.4	54.5	9.1	-	100.0(11)	1.73	
모름/무응답	32.0	32.0	36.0	-	100.0(25)	2.04	
X ² (df)			na				
한국어 실력							
상	40.2	46.4	13.0	0.4	100.0(276)	1.74 ^a	24.358***
중	26.5	42.5	28.7	2.2	100.0(181)	2.07 ^b	
하	17.8	35.6	38.4	8.2	100.0(73)	2.37 ^c	
X ² (df)			53.493(6)***				

주 1) a, b, c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na는 X²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01$.

지금까지 살펴본 원장, 교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육아지원기관에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 해독 시 어려움, 자녀의 준비물·과제 준비 시 어려움 정도는 언어적인 어려움, 적응과 관련된 문항이었다. 세 가지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국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즉, 한국어 사용에 익숙한 조선족 출신이 자녀의 육아지원기관 생활 적응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육아지원기관의 알림장 해독, 준비물 준비 등은 자녀의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적응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알림장 해독·준비물 준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73.3%가 남편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시댁식구가 8.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 5.0%, 주변에 결혼 이민자 친구나 한국인 이웃이 도와주는 경우가 3.9% 순이었다(표 III-4-15 참조).

조선족 출신의 다문화 어머니의 경우는 알림장 해독, 준비물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소수이긴 하였지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 출신 보다 남편에게 도움받는 비율이 10%p 정도 낮았고, 그 대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나 한국인 이웃, 친정식구 등 주변의 다른 사회적 지지 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II-4-15〉 알림장 해독·준비물 준비 어려움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다문화가족
단위: %(명)

구분	남편	시댁 식구	친정 식구	육아 지원 기관 교사	육아 지원 기관 원장	결혼 이민자 친구	한국인 이웃	다문화 관련 기관 직원	기타	없음	계(수)
전체	73.3	8.9	0.6	5.0	1.1	3.9	3.9	1.1	0.6	1.7	100.0(180)
출신국											
중국(조선족)	60.0	-	5.0	15.0	-	-	20.0	-	-	-	100.0(20)
중국(한족 등)	76.0	-	-	4.0	4.0	4.0	4.0	4.0	-	4.0	100.0(25)
베트남	76.0	10.6	-	1.9	1.0	4.8	1.9	1.0	1.0	1.9	100.0(104)
필리핀	71.0	16.1	-	9.7	-	3.2	-	-	-	-	100.0(31)
기관유형											
유치원	72.9	8.6	0.7	4.3	1.4	3.6	5.0	1.4	0.7	1.4	100.0(140)
어린이집	75.0	10.0	-	7.5	-	5.0	-	-	-	2.5	100.0(40)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67.0	8.8	-	4.4	1.1	6.6	5.5	2.2	1.1	3.3	100.0(91)
200이상 300만원미만	80.0	10.9	1.8	3.6	-	1.8	1.8	-	-	-	100.0(55)
300이상 400만원미만	94.1	-	-	-	-	-	5.9	-	-	-	100.0(17)

구분	남편	시댁 식구	찬정 식구	육아 지원 기관 교사	육아 지원 기관 원장	결혼 이민자 친구	한국인 이웃	다문화 관련 기관 직원	기타	없음	계(수)
400이상 500만원미만	100.0	-	-	-	-	-	-	-	-	-	100.0(6)
500만원 이상	100.0	-	-	-	-	-	-	-	-	-	100.0(1)
모름/무응답	40.0	20.0	-	30.0	10.0	-	-	-	-	-	100.0(10)
한국어 실력											
상	73.1	5.8	-	5.8	-	3.8	1.9	3.8	1.9	3.8	100.0(52)
중	74.7	12.6	1.1	1.1	2.3	1.1	5.7	-	-	1.1	100.0(87)
하	70.7	4.9	-	12.2	-	9.8	2.4	-	-	-	100.0(41)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육아에 관해 남편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는 대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여성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경제활동을 통해 만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가족의 경우는 육아에 대한 부분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수준이 낮고, 취업 중인 다문화가족의 어머니가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세력이 다양할 수는 있어도, 남편이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참여

다음으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부모교육을 시행한다면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영유아의 발달에 관한 부모교육(29.1%)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24.5%는 자녀의 학습지도에 관심있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반해 비해

〈표 III-4-16〉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시 관심 주제

단위: %(명)

구분	영유아의 발달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법	자녀의 생활습관 지도방법	자녀 학습지도	초등학교 적응준비	부부 및 가족관계	모름/ 무응답	계(수)
다문화가족	29.1	13.8	14.9	24.5	13.2	4.5	-	100.0(530)
비다문화가족	21.3	31.1	18.5	12.9	13.1	3.0	0.2	100.0(428)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법(31.1%), 영유아의 발달(21.3%)에 대한 교육을 원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표 III-4-16 참조).

다문화가족의 하위 특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조선족 출신의 어머니는 다른 국가의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적응 준비에 관심이 많았다. 한족 출신의 어머니는 자녀의 학습지도(19.4%)나 초등학교 적응 준비(16.4%) 보다는 영유아의 발달에 관한 부모교육(37.3%)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은 자녀 학습지도에 관심이 높았다(33.8%).

〈표 III-4-17〉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시 관심 주제: 다문화가족

단위: %(명)

구분	영유아의 발달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법	자녀의 생활습관 지도방법	자녀 학습지도	초등학교 적응준비	부부 및 가족관계	계(수)
전체	29.1	13.8	14.9	24.5	13.2	4.5	100.0(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21.3	17.4	11.6	26.5	20.0	3.2	100.0(155)
중국(한족 등)	37.3	10.4	14.9	19.4	16.4	1.5	100.0(67)
베트남	32.1	11.7	17.5	22.1	9.6	7.1	100.0(240)
필리핀	27.9	16.2	13.2	33.8	7.4	1.5	100.0(68)
$X^2(df)$			31.835(15)**				
기관유형							
유치원	29.8	13.2	14.9	25.4	12.7	4.1	100.0(410)
어린이집	26.7	15.8	15.0	21.7	15.0	5.8	100.0(120)
$X^2(df)$			2.262(5)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29.8	14.5	14.9	22.3	12.4	6.2	100.0(242)
200이상 300만원미만	31.4	14.3	11.4	25.7	13.7	3.4	100.0(175)
300이상 400만원미만	18.9	7.5	24.5	30.2	13.2	5.7	100.0(53)
400이상 500만원미만	16.7	25.0	25.0	16.7	16.7	-	100.0(24)
500만원 이상	27.3	27.3	27.3	-	18.2	-	100.0(11)
모름/무응답	40.0	-	4.0	44.0	12.0	-	100.0(25)
$X^2(df)$			na				
한국어 실력							
상	28.3	14.5	14.1	22.8	16.7	3.6	100.0(276)
중	30.9	12.7	16.0	26.0	11.6	2.8	100.0(181)
하	27.4	13.7	15.1	27.4	4.1	12.3	100.0(73)
$X^2(df)$			20.575(10)*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p < .01$.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니, 한국어 실력이 ‘하’인 집단에서 부부 및 가족관계를 다루는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는 한국어 사용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한 여성들에게 언어 문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뿐 아니라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부부 및 가족관계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녀가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에서 부모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면 참여하겠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능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약 60%, 반드시 참여하겠다고는 약 29%에 달했다. 비다문화가족의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한 결과,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0%가 넘었지만 비다문화가족은 3.7%에 그친 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 특히,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와 한국어 실력이 ‘하’인 집단에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19.1%, 15.1%로 다른 집단의 어머니들에 비해 높았다(표 III-4-18 참조).

〈표 III-4-18〉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시 참여 의사

단위: %(명)

구분	반드시 참여함	가능한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계(수)
다문화가족 전체	29.2	60.4	10.4	100.0(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26.5	67.7	5.8	100.0(155)
중국(한족 등)	29.9	64.2	6.0	100.0(67)
베트남	31.3	56.7	12.1	100.0(240)
필리핀	27.9	52.9	19.1	100.0(68)
$X^2(df)$		13.568(6)*		
기관유형				
유치원	28.3	60.7	11.0	100.0(410)
어린이집	32.5	59.2	8.3	100.0(120)
$X^2(df)$		1.224(2)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35.5	52.1	12.4	100.0(242)
200이상 300만원미만	25.7	65.1	9.1	100.0(175)
300이상 400만원미만	26.4	66.0	7.5	100.0(53)
400이상 500만원미만	20.8	75.0	4.2	100.0(24)
500만원 이상	18.2	72.7	9.1	100.0(11)
모름/무응답	12.0	76.0	12.0	100.0(25)

구분	반드시 참여함	가능한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계(수)
$X^2(df)$	na			
한국어 실력				
상	31.5	60.1	8.3	100.0(276)
중	26.5	61.9	11.6	100.0(181)
하	27.4	57.5	15.1	100.0(73)
$X^2(df)$	4.123(4)			
비다문화가족	29.2	67.1	3.7	100.0(428)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다문화와 비다문화가족 모두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기관에서 열리는 부모교육에 가능한 참석한다고 답변하였지만, 일부 어머니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60%는 부모교육에 참석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꼽은 어머니들도 25%에 달했다.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부모교육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다문화가족 어머니도 약 11%였다. 그에 반해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대다수인 81.3%는 시간이 부족해서 부모교육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18.8%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표 III-4-19 참조).

다문화와 비다문화가족 모두 시간이 부족해서 부모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시간 부족 이외에 육아지원기관 구성원들과의 관계,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인해 부모교육에 불참한다는 것이 두 집단 응답의 가장 큰 차이이다. 하지만 비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외에서도 육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정보를 얻을 출처가 제한적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하위 특성별 응답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족 출신 어머니의 약 90%는 시간이 없다고 답하였고, 필리핀과 한족 출신자는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필리핀 배경의 어머니에게서 남편과 시부모와 원하지 않아서 부모교육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였다는 점은 다른 국가 출신의 어머니 응답과 매우 큰 차이이다.

한국어 실력이 '하'인 집단의 과반수(63.6%) 이상은 역시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교육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표 III-4-19〉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 불참 이유

단위: %(명)

구분	시간부족	의사 소통의 어려움	다른 모와의 관계가 불편	원장/ 교사와의 관계가 불편	남편/ 사부모가 원하지 않음	별 도움 안되서	기타	계(수)
다문화가족 전체	60.0	25.5	10.9	-	1.8	1.8	-	100.0(55)
출신국								
중국(조선족)	88.9	11.1	-	-	-	-	-	100.0(9)
중국(한족 등)	25.0	50.0	25.0	-	-	-	-	100.0(4)
베트남	69.0	17.2	10.3	-	-	3.4	-	100.0(29)
필리핀	30.8	46.2	15.4	-	7.7	-	-	100.0(13)
기관유형								
유치원	64.4	24.4	8.9	-	2.2	-		100.0(45)
어린이집	40.0	30.0	20.0	-	-	10.0		100.0(10)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50.0	30.0	13.3	-	3.3	3.3	-	100.0(30)
200이상 300만원미만	81.3	6.3	12.5	-	-	-	-	100.0(16)
300이상 400만원미만	100.0	-	-	-	-	-	-	100.0(4)
400이상 500만원미만	-	100.0	-	-	-	-	-	100.0(1)
500만원 이상	-	100.0	-	-	-	-	-	100.0(1)
모름/무응답	33.3	66.7	-	-	-	-	-	100.0(3)
한국어 실력								
상	65.2	13.0	17.4	-	4.3	-	-	100.0(23)
중	71.4	19.0	9.5	-	-	-	-	100.0(21)
하	27.3	63.6	-	-	-	9.1	-	100.0(11)
비다문화가족	81.3	-	-	-	-	18.8	-	100.0(16)

<표 III-4-20>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중복응답한 결과이다.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0.2%, 47.2%로 가장 높으며, 비다문화가족의 소규모 부모모임 참여비율이 다문화가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육아지원기관 내 참여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활동의 성격도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를 위한 소집단 모임을 계획하고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상호 교류 뿐 아니라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와의 교류증진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4-20〉 모의 육아지원기관 내 부모참여 활동: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부모 일일교사	봉사활동	소규모 부모모임	부모교육 참여	없음	기타	(수)
다문화가족 전체	4.2	7.0	8.9	27.4	60.2	1.3	(530)
출신국							
중국(조선족)	1.3	7.7	9.0	28.4	61.9	2.6	(155)
중국(한족 등)	6.0	7.5	13.4	28.4	49.3	1.5	(67)
베트남	5.0	5.8	7.5	26.3	62.1	0.8	(240)
필리핀	5.9	8.8	8.8	27.9	60.3	-	(68)
기관유형							
유치원	3.7	6.8	7.8	26.6	60.7	1.5	(410)
어린이집	5.8	7.5	12.5	30.0	58.3	0.8	(120)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5.0	7.4	12.8	30.2	55.8	0.8	(242)
200이상 300만원미만	4.0	4.6	5.1	27.4	64.0	1.1	(175)
300이상 400만원미만	1.9	9.4	7.5	17.0	67.9	1.9	(53)
400이상 500만원미만	-	12.5	4.2	20.8	58.3	8.3	(24)
500만원 이상	9.1	-	9.1	36.4	45.5	-	(11)
모름/무응답	4.0	12.0	4.0	24.0	68.0	-	(25)
한국어 실력							
상	4.7	6.5	8.7	29.7	58.7	2.2	(276)
중	3.9	9.4	8.8	24.3	61.3	0.6	(181)
하	2.7	2.7	9.6	26.0	63.0	-	(73)
비다문화가족	3.3	7.2	12.4	36.7	47.2	6.8	(428)

바.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다문화수용 태도

비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다문화수용 태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음(1점)'부터 '매우 그러함(4점)'까지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다문화수용 태도 질문 중 다문화가족의 유아와 부모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문항의 점수가 각각 3.29점, 3.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문항은 3.23점, 전반적인 다문화수용력 문항은 2.96점 등 모든 문항에서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의 점수를 보였다(표 III-4-21 참조).

이를 통해 조사 대상 비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나 이해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어, 다문화가족에 대

한 편견이나 차별이 비교적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4-21〉 모의 다문화수용 태도: 비다문화가족(4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않음	별로 그렇지않음	대체로 그리함	매우 그리함	계(수)	평균
다문화 수용력이 높음	0.5	15.7	71.5	12.4	100.0(428)	2.96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높음	0.9	30.1	55.4	13.6	100.0(428)	2.82
인종적·문화적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함	-	3.3	70.3	26.4	100.0(428)	3.23
다문화가족의 유아를 차별하지 않음	0.9	2.3	64.0	32.7	100.0(428)	3.29
다문화가족의 부모를 차별하지 않음	0.7	3.5	65.0	30.8	100.0(428)	3.26

5. 소결

다문화가족의 양육 환경, 양육 특성, 육아지원기관 이용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한 자녀 양육의 실태와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음의 사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환경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족의 육아지원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장 효율적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방향 설정을 지지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시행 이후 3-5세 유아의 87.6%(2012년 현재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에 달하는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이나 비다문화가족 모두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얻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과의 연계 지도 체계로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효과적인 육아지원 통로로써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 지원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시 안정적 적응을 이룬 선배 다문화가족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이민 후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의 경우 시댁식구가 자녀 양육의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친구에 대한 도움 요청도 높아 다문화가족끼리의 상호 양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결혼으로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경우, 아는 언니나 동생 또는 친척이 잘 살고 있는 곳에 다른 친구들을 소개하거나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별 집락의 형태를 보이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 먼저 적응한 친구나 이웃이 다른 이민자 후배의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할만 하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특성

다문화 가족 증가를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구성원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강조하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존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다문화가족 어머니 열 명 중 네 명은 자녀의 다문화 배경으로 인한 위축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어머니의 언어능력과 부정적 다문화인식으로 귀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그 지원을 위해 어머니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과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부모역할 및 자녀 양육 기술

자녀 양육과 관련한 비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아버지 사이의 비교 결과들은 비다문화가족 아버지가 자녀 양육 참여나 방법 면에서 더 양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양육 지원 및 협력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 시 갈등 처리의 주도권은 가정 내 부부 간 역학의 일면을 보여주는데,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 주도권이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약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부의 연령 차이, 결혼이민자의 문화이입자로서의 지위, 경제적 능력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의 다양한 경험 확장을 위한 문화생활 공유 경험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족에서 가족여행, 서점이나 도서관 방문,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용, 영화나 연극·공연 관람 등의 이용이 비다문화가족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이러한 문화경험이 추후 학습과 사회적 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다양한 문화 경험처에 대한 홍보와 자녀와의 문화생활 향유가 주는 유익함에 대한 안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한 양육 기술 범주 중 규범 및 가치, 훈육, 사회와의 연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범주인 의복/음식/주거제공의 역할, 건강유지/신체적·인지적 지원, 언어/정서/사회적 지원에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 기술이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 기술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족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및 어려움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일대일로 만나서 이야기 나눈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40%에 달한 결과는 육아지원기관과 다문화가족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게 계획되고 제공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참여율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이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내에서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비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의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나 이해에 대한 다문화 수용력은 상당히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결과는 자녀 양육이라는 공통분모를 기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부모들의 소집단 활동을 구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공유, 한국어 습득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지원 정책 마련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출신국가의 차이와 한국어 수준이나 적응 정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은 어머니 본인의 적응이나 부부관계, 시댁식구와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서 실질적 역량의 차이를 초래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베트남과 필리핀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이 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언어 능력이 실제 서비스 수혜 여부와도 연결됨을 감안할 때 언어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별로 구분하여 자녀 양육 차이를 살펴본 연구 결과에서 같

은 중국이라도 조선족과 한족은 많은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배경 국가의 특성에 기초한 양육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수준이 적응의 중요 변인이지만, 어느 정도 적응을 이룬 후 심리적 위축 문제라든지, 자녀가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양육 지원 등 또 다른 필요에 대한 요구 수렴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자녀와 부모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감안할 때, 초기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나 기회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IV.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자료 활용

1.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⁹⁾ 개정판 발간

가. 프로그램 개요 및 다문화 교육 내용

1) 프로그램 개발 목적

본 프로그램은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개발된 것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아교육기관의 유아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반편견, 평등성, 협력 등 다문화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즉,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유아의 적응과 학습을 돕기 위하여 비다문화가족 유아와 다문화가족 유아를 대상으로 함께 실시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2) 프로그램 개발 방향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전제

- 유아교육기관의 일반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유치원 교육과정 주제와 연계하여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인 다문화 이해 활동을 개발하되, 특히, 한국의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문화가정 국가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함.
 -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등에 관련된 활동내용에 중점을 둠.

출처: 장명림 외(2011c).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서울특별시교육청. p.7

첫째, 다문화 이해와 지원을 위한 다문화적 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선정·제시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가 일반학급에

9)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서울시교육청(2011).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된 자료집을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2011년에 서울시 소재 유치원에만 부분적으로 보급된 바 있음.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개발한다. 셋째, 유치원 교육과정의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유치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교사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PPT, 동영상, 사진, 음원 등)를 제공한다. 다섯째, 기존의 자료 출처(EBS 교육방송 자료, 공공기관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보급 프로그램이나 활동집 등)에서 양질의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기본으로 하되, 일반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 단, 다문화가정 국가를 고려한 연계·확장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방과 후에 다문화가정 유아만을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 V-1-1〉 유아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2011) 개요

프로그램 목적	-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과 학습을 돕기 위하여 일반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일반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특징	- 유아교육기관의 일반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교육과정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인 다문화 이해 활동을 개발하되, 특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다문화가정 국가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함. -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몽골 등
구성 및 주제	- 1부: 교사용 지침서 · 유아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 프로그램 개요 - 2부: 활동자료집(총 60개 활동) · 생활주제: 유치원과 친구, 나와 가족, 우리 동네, 동식물과 자연, 건강과 안전, 생활도구, 교통기관, 우리나라, 세계여러나라, 환경과 생활, 봄·여름·가을·겨울 · 3세 12개 활동, 4세 22개 활동, 5세 26개 활동 · 현장에서 쉽게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PPT, 그림 및 사진 자료, 교구제작 도안, 음원자료 등 제공 - 다문화 교육 요소 : 문화이해, 정체성, 다양성, 평등성, 반편견, 협력
주관처 및 연구기관·연구진	- 서울시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연구진: 장명립(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영옥(전남대학교 교수), 서현(조선대학교 교수), 차선미(인천보나유치원장), 이세원(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주: 현 교육부

3) 유아 다문화 교육 내용¹⁰⁾

가) 유아 다문화 교육의 개념

다문화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다양한 문화, 민족, 성 그리고 사회계층과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 긍정적인 문화교류 태도와 인식 그리고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교육’이다. 일반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배려적 교육을 비롯하여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을 의미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유아 다문화 교육은 각기 다른 인종과 성, 언어, 계층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유도하여 유아와 그 가족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세계에서 유아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생활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이다. 유아 다문화 교육은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능력, 외모, 문화, 믿음, 계층 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아에게 알려주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김영옥, 2002; 박찬옥 외, 2006).

유아 다문화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돕고, 둘째,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셋째, 긍정적으로 상호교류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긍정적 정체감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다(최현정, 2011).

나) 유아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빠른 세계화는 한국인에게 좀 더 다양한 사고와 문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은 낯선 것에 대한 무비판적인 호응이나 비난과 혐오감 같은 극단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흐름 속에서 문화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교육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앞서가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수용하고 우리 사회에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필수적

¹⁰⁾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서울시교육청(2011).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의 제 1부 교사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이다(정명수, 2008).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역시 다문화 교육, 반편견 교육이 새로운 교육의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우리 전통과 문화의 장점을 강조하고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유아기는 자신의 성, 생김새 등 자기를 인식하고, 사람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가는 시기이다. 또한 유아기에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한번 형성된 편견은 변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된 편견이나 선입견이 형성되기 전에 유아가 열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조성연 외, 2006).

아동발달 단계상 취학 전 유치원 교육 수준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발달 단계상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유아기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장명림, 2010).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유아들이 다양한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와 다양한 문화를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정명수, 2008).

다) 유아 다문화 교육의 방향

유아 다문화 교육은 과정중심적이며, 직접적인 활동 참여를 통해 유아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여러 영역의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정명수, 2008; 최안복, 2009; 김영옥, 2010).

첫째, 다문화 교육은 결과중심적인 교육이 아니라 과정중심적인 교육이어야 한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란 단순한 사실과 지식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성취할 수 없다. 그 보다는 다양한 삶의 가치, 방식, 신념 등을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요구되므로 과정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교육은 유아의 다문화에 대한 인지적 측면 뿐만 아니라 유아의 태도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유아들로 하여금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식을 이해하고,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민족 및 문화에 대한 단순한 소개에서 벗어나 유아가 직접 활동에 참여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가운데 다른 문화를 편견 없이 수용하여 사회통합에 필요한 기본 자질을 기르는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 교육은 유아교육과정 전 영역에 걸쳐 확장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신체활동에서는 대근육 활동 뿐 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는 가운데

정체성과 협력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고, 과학영역에서도 조사와 탐색 뿐 만 아니라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의 소중함을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문화와 평등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와 동질성 및 다양성과 관련된 인식과 이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포함하여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라) 유아 다문화 교육 요소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다문화 교육 내용을 토대로 다문화 교육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Derman-Sparks, 1989; Robles de Melendez & Ostertag, 1997; 채정란, 1999; 김영옥, 2002).

〈표 V-1-2〉 유아 다문화 교육 요소

요소	이유
문화이해	- 다양한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고, 각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을 기르며, 문화 간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킴. 범주로는 거주(가옥 등), 음식, 직업, 언어, 문학, 음악, 춤, 기념일(축제), 종교, 예식, 문화유산, 일상생활, 가족구조 등이 있음.
정체성	-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자아 정체감 및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임.
다양성	-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임.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의 존재 및 인종이나 민족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이 이에 속함.
평등성	- 국가, 민족, 인종, 성, 신체적 능력, 사회계층은 다르지만,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임.
반편견	-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및 차별대우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임. 그 예로는 장애우에 대한 반편견을 들 수 있음.
협력	-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능력과 협동 능력을 길러주는 것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과 일 등이 이에 속함.

출처: 장명림 외(2011c).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서울특별시교육청. p.8 본문내용 표로 구성

마) 유아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유아에게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김영옥 외, 2008).

다문화 교육의 내용은 ‘유아에게 다문화적 사고와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인종, 성, 장애, 언어, 직업, 연령, 능력,

사상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인간의 삶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룸으로써 유아들에게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다문화 교육은 전통문화 이해교육과 세계 이해교육으로서 역사, 박물관, 항공 우주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속성과 변화를 다루므로 다문화적 관점에서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교육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자기표현, 토의하기, 문제해결, 추론하기, 모델링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다. 단지 다른 문화를 소개하는 정도의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에 머물러 ‘보여주기’나 ‘설명하기’ 보다는 음악, 문학, 미술과 같은 ‘자기표현’ 또는 조형적 ‘협동 활동’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 그림책, 놀이감, 생활소품, 예술품 등의 다양한 자료 및 지역사회인적자원을 활용한다. 다문화교육은 나와 다른 문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아의 경험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사진이나 그림자료,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활소품이나 지역과 환경이 반영된 토속적 예술품 등을 활용한다.

다양성 속에 있는 동질성을 찾기 위해 각기 다른 문화권의 소재에서 같은 주제를 찾거나 또는 같은 주제를 각기 다른 문화권에 연계하여 활동한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영역의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나. 프로그램 자료집 개정판 수정·보완의 특징

기존 프로그램이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과 유치원지도서(2009)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2012년 새롭게 고시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참고하여 활동연령, 생활주제, 교육과정 관련요소, 활동목표를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이 육아지원기관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기능 강화에 있으므로 활동계획안 마지막 부분에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도움말’을 추가하여, 기관과 다문화가정의 연계 및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활동계획안의 연령별 예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부록 3 참조).

〈표 V-1-3〉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활동계획안의 수정·보완 사항

구분	기존 프로그램	본 연구 수정·보완 프로그램	이유
활동연령	- 3, 4, 5세	- 3, 4, 5세 - 단, 연령별 활동 일부 변경	- 새롭게 제정된 누리과정 에서 제시한 3, 4, 5세 연 령별 세부내용을 반영함.
연령별 생활주제	- 유치원지도서(2009) 의 생활주제 * 3세에도 세계여러 나라 포함	-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2013)의 생활주제 * 3세에는 세계여러 나라 삭제, 다른 주제로 변경	- 누리과정 지도서의 생활주 제 중 3세는 세계여러나라 미포함되므로 삭제함.
교육과정 관련요소	- 2007년 개정 유치 원교육과정의 관련 요소 제시	- 2012년 고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관련 요소 제시	- 누리과정 고시에 따름
활동목표	- 2007년 개정 유치 원교육과정 관련 활동목표 제시	- 2012년 고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관련 활동목표 제 시	- 누리과정 고시에 따름
활동 계획안 구성항목	- 활동유형, 생활주 제, 다문화 요소, 활동연령, 활동목 표, 교육과정 관련 요소 활동자료, 활 동내용 및 방법, 확장활동	- 작동 - '다문화 가정·유아 를 위한 도움말' 항목 추가	-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기관에서 다 문화가정과의 연계 및 다문화어머니 자녀 양육 기능 강화 지원을 강조 하기 위함.

출처: 장명림 외(2013).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정판.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p.12

프로그램 수정·보완 작업에는 기존 개발팀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금년도 연구팀이 제시한 수정·보완 기준에 따라 일관성있게 공동작업을 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새 프로그램 자료집의 내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하기로 하였다.

본 자료집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개발한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2011)>을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취약가족의 자녀 양육기능 강화 방안 연구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기능 강화 방안(연구책임자 장명림)'의 일환으로 재구성·보완하여 발간한 것임.

2. ‘KICCE 부모교육 핸드북’ 활용

가. 자료의 내용 및 구성¹¹⁾

0-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관련된 30개 주제를 선정하여, 자녀의 연령에 관련 없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주제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 부모용 핸드북(소책자) 형식으로 제시하고, 소책자는 30개의 주제에 따라 개별 책자로 제작되었다. 1개의 주제는 6-14쪽의 분량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별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주제의 내용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된 삽화가 함께 포함되었다.

〈표 V-2-1〉 KICCE 부모교육 핸드북의 주제 영역 및 제목

주제 영역	핸드북 제목
국가와 문화	1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상식: 국경일]
	2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상식: 기념일과 명절]
신체, 건강, 안전	3 [지나치기 쉬운 발달문제: 조기발견이 치료의 첫걸음]
	4 [알아두면 아이 살리는 응급조치]
	5 [안 맞히면 큰일 나는 예방접종: 언제, 무엇을]
	6 [사고 없는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
	7 [내 아이 나이에 맞는 운동법]
놀이와 학습	8 [내 아이에 맞는 놀잇감: 놀이는 아이의 모든 것]
	9 [알고 보면 쉬운 공부법]
	10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서로 다릅니다]
	11 [초등학교 입학 준비: 이것만 꼭!]
인지와 언어발달	12 [책 많이 읽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13 [수학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14 [영어 즐기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사회 및 정서 발달	15 [기분 잘 다스리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16 [예절 바른 아이로 키우는 비법]
	17 [친구에게 인기 있는 아이로 키우는 비법]
	18 [아이 성격 알면 쉬워지는 아이 키우기]
훈육	19 [부모의 이런저런 양육 태도: 자녀의 모습은?]
	20 [때리지 않고 아이 키우기]

11) 육아정책연구소(2009). KICCE 부모교육 핸드북(30권 세트).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I):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위한 자료로 개발된 자료임.

주제 영역	핸드북 제목
다양한 가족	21 [잔소리 않고 아이 버릇들이기]
	22 [남 때리고 욕하는 내 아이 가르치기]
	23 [형제끼리 싸우는 내 아이들 가르치기]
	24 [텔레비전과 컴퓨터: 알맞게 사용하기]
	25 [맞벌이 가정에서 꼭 알아야할 몇 가지]
	26 [한부모 가정에서 꼭 알아야할 몇 가지]
	27 [조부모께 자녀 맡기는 부모를 위한 안내]
	28 [손자 키우는 조부모님을 위한 완벽 생존법]
정신건강 및 지역사회기관	29 [엄마의 행복은 온 가족의 행복]
	30 [지역사회 100% 활용법]

출처: 장명림·이윤진·이정림·이미화·전혜정·민현숙 외(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271. <표 VI-2-17>

KICCE 부모교육 핸드북의 책자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V-2-1] KICCE 부모교육 핸드북

나. 프로그램으로 활용 방법¹²⁾

1) 활용 대상

- ☐ 0-만 5세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활용 목적

- ☐ 0-만 5세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육을 지원함.

다. 프로그램 운영 절차

1) 프로그램 대상 결정

-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함.

2) 프로그램 대상 구성 방법 결정

- ☐ 개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가 다문화 어머니를 1:1로 개별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
- ☐ 다문화 어머니들을 소집단으로 구성하는 경우, 희망하는 다문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소집단에서 적용 가능

3) 프로그램의 형식 결정

- ☐ 프로그램 대상 다문화 어머니들의 욕구나 프로그램 주관 기관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일회성 프로그램: 다문화 어머니 요구가 있을 때, 기관의 형편이 허락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실시
 - 연속적 프로그램: 최소 2회 이상 연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실시

12) 2009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KICCE 부모교육 핸드북(30권 세트)을 육아지원 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용 방식으로 제시한 것임.

- 프로그램의 실시 횟수는 다문화 어머니의 요구나 기관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
- 프로그램의 실시 간격 역시 부모의 욕구나 기관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
- ☐ 1회 프로그램의 길이는 프로그램 주제, 부모 특성, 주관 기관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시간-1시간 30분이 적절함.

4) 프로그램 실시 장소 결정

-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적절한 장소 또는 쉽게 모일 수 있는 어느 장소나 가능

5) 프로그램 내용(주제) 선정

- ☐ 다문화 어머니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선정하거나 교사의 판단 하에 기관-가정 연계를 위해 우선 필요한 주제 선정
- ☐ 한 번에 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관련 있는 주제 2-3개를 묶어 진행할 수 있음.

6) 프로그램 실시 환경 구성

- ☐ 참여 어머니의 인원 수에 따라 테이블이나 의자를 준비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함.
 - 적은 수의 어머니가 참여하여 소집단으로 운영할 때는 의자를 원대형 또는 반원대형으로 배치할 수 있음.
 - 어머니들이 의자에 앉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바닥에 방석을 놓고 앉을 수 있음.
- ☐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실시 장소의 정면에 프로그램 주제, 실시일, 주최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포스터나 현수막으로 게시할 수 있으며, 간단한 간식과 필요한 필기구나 메모지, 또는 약간의 기념품을 마련할 수 있음.
- ☐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시작 전에 음악을 틀거나 유아 활동 과정을 파워포인트에 담아 보여 줄 수 있음.
-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예: 노트북, 빔 프로젝터, 마이크 등)를 사전 점검함.
- ☐ 다문화 어머니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자녀를 돌봐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어린이 영화 상영 또는 간단한 만들기나 놀이 준비)

라. 활용 전략

- ☐ 소책자의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일방적으로 읽어주기 보다는 어머니들의 반응을 살피며 진행함.
 - 다문화 어머니가 용어/어휘를 이해하는지 파악하여 용어/어휘를 쉽게 풀어 설명해 줌.
 - 다문화 어머니가 내용을 이해하는지 관찰하여 내용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춰 설명해 줌.
 - 다문화 어머니의 기존 경험이나 이미 형성된 가치관과 달라 혼란을 느끼는지 살펴서 기존 경험/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주제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함.
 - 성교육이나 학대 같이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불편해하는지 살펴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 방식을 부드럽게 조정함.
- ☐ 소책자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다문화 어머니의 의견과 질문에 대한 답을 모아 정리하면서 소책자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함.
- ☐ 다문화 어머니가 소책자에 제시된 내용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제안으로 받아들이도록 전달함.
- ☐ 다문화 어머니가 소책자에 제시된 자녀 양육 전략이나 방식에 대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줌.
- ☐ 소책자 내용에 관련된 실제 예를 대상 다문화 어머니의 특성(예: 자녀 연령, 각 국가의 문화 특성 등 고려)에 맞게 제시함.
- ☐ 다문화 어머니들 간에 그동안의 경험과 의견을 나눌 기회를 많이 줌.
 - 다문화 어머니의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어려워 할 경우, 소집단으로 토의할 기회를 줌.
- ☐ 다문화 어머니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를 많이 제공함.
 - 각 어머니들이 경험한 일상생활 속의 실제 예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임.

- 어머니들 자녀와 같은 연령대 유아의 행동을 예로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임.
- 다문화 어머니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청각 자료를 활용함.
- 다문화 어머니들이 처한 경제, 문화, 지역적 특성/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함.
- 다문화 어머니가 자녀와 할 수 있는 활동,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 사줄 수 있는 교재/교구, 보여 줄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때 특히 신경을 써야 함.
- 다문화 어머니가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간을 제공함.
- 마지막에 다음 시간까지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머니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줌.

3. 프로그램 및 자료 활용 방안

본 장 1절과 2절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료의 특성과 활용 방법을 알아본 바에 따라, 육아지원기관에서 본 프로그램과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개정판)’ 활용 방안

1) 누리과정에 근거한 유아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

2013년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 3-5세 누리과정에서는 질서, 배려, 협력 등의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다양한 가족 유형과 문화, 국제화 등 다원화된 사회에서 미래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며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편성·운영 지침에서도 다양한 가족 형태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고 다문화가족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같은 반(학급)의 유아에게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기본적인 누리 교육·보육과정을 계획할 때, 본 프로그램에 제시된 60개의 활동계획안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3, 4, 5세 연령별 활동을 11개 주제에 따라 구분·제시하고 있는 바¹³⁾, 연령과 주제에 따라 활동계획안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주제별 활동 목록(생활 주제, 활동명, 활동 연령, 활동 유형, 다문화 교육 요소)과 함께 연령별 활동 목록(활동명, 생활주제, 쪽수), CD에 수록된 활동자료 목록(활동명, 동영상, PPT, 그림 및 사진 자료)을 제시하였다. 활동 실시 전에 CD에 저장된 교수·학습 자료, 즉, 동영상, PPT, 그림 및 사진, 음원 자료 등을 확인하고, 학급에 있는 시청각매체에 옮겨 준비해 놓으면 더욱 쉽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 다문화가족 연계 및 부모 자녀 양육 지원의 일환으로 활용

본 프로그램 개정판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모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모든 활동계획안의 마지막 부분에 ‘다문화 가정·유아를 위한 도움말’을 추가하였다. 이 도움말은 비다문화가족과의 연계지도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다문화가족 부모와 유아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말로서 육아지원기관에서 실시한 활동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에서 보다 심화하여 실시해 볼 수 있는 활동과 활동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놀이방법 및 학습 지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본 도움말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 학급에서 프로그램 활동을 실시한 후에, 다문화가족과의 연계 지도의 일환으로 가정알림장을 이용하여 본 도움말의 주요 내용을 가정으로 안내할 수 있다. 또한 활동을 실시할 때마다 각각 도움말에 근거한 가정 연계를 할 수도 있으며, 또는 다문화가족 부모상담 시에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¹³⁾ 3세 누리과정의 교사용 지도서 생활주제에는 ‘세계 여러 나라’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본 프로그램에서도 3세 활동에는 ‘세계 여러 나라’ 생활주제는 제외함.

나. ‘KICCE 부모교육 핸드북’ 활용 방안

1) 다문화가족 부모 개별 상담 시 활용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자녀와 바람직하게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며, 놀이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관심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자녀 양육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KICCE 부모교육 핸드북’ 시리즈 30권은 유아기 부모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녀교육 지식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 조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80% 이상이 해당 기관에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한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 양육 기술이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에 비해 낮게 나타난 점과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양육 역량 또한 비교적 낮은 점을 감안하여 비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핸드북을 활용할 때 좀 더 쉽게 설명하여 다문화가족 부모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평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관에서의 적응 및 생활과 연계하여 상담을 하되,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1:1 개별 상담 시에 활용할 수 있다.

부모교육 핸드북에서는 자녀와의 대화 및 지도 방법을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다문화 어머니가 이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가족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상담 시에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모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녀를 양육을 해야 자녀의 훈육과 정서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부모-자녀 간의 관계 및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도 바람직함을 아버지와 그 외 가족들에게도 안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부모교육 핸드북 시리즈를 다문화가족 부모와의 개별 상담 시 활용함으로써 미래 인적자원의 일원인 다문화가족 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 간에 문화적 공감대에 기초한 안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어 유아의 학습능력 향상과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2) 부모교육 소집단 모임 시 활용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차별화된 시각을 없애고, 비다문화가족들과 함께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교육을 받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내에서 부모의 자녀 지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아버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아버지 역시 자녀 양육을 분담하고,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 소집단으로 부모를 함께 대상으로 하되, 부모교육 핸드북의 주제 중 공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모교육 핸드북의 각 주제에 따라 소집단으로 모인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와 아버지들 간에 자녀 양육 시의 어려운 점이나 해결 방안 등을 상호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임을 통해 비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간에 멘토-멘티 구성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들 간의 소모임을 구성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문화 어머니 중 한국 거주기간이 오래된 선배 어머니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용해 볼 수 있다.

V.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 및 정책 제언

최근 정부의 누리과정 정책 도입 및 시행으로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도 3월 현재 90% 수준에 달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다문화가족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경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유아 및 부모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유아는 물론, 다문화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환경 및 특성, 다문화가족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자료 활용,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¹⁴⁾ 등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방안

가.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지원 방안

1) 3-5세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

2013년 3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의 목적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며, 누리과정은 유아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¹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요약 정리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음.

개방적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능과 태도를 익혀 건전한 사회·정서발달을 이루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해설서의 편성 지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유아들이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각자의 독특성을 수용하고 존중해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누리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주제나 교수학습 자료의 선정에서 뿐 아니라, 교사의 언어 사용에서도 이러한 편견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문화 관련 주제를 전개할 때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며 유아의 일상생활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누리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하고 다문화가족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같은 반(학급)의 유아에게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2)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실시

선행연구 분석 및 자문회의 결과, 다문화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유아와 비다문화가족 유아들이 어려서부터 편견과 갈등 없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유아를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이 다문화가족 유아와 비다문화가족 유아를 일반 학급에서 누리과정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통합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바 있는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누리과정에 기초한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누리과정의 일환 또는 심화·확장 활동으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¹⁵⁾.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첫째, 육아지원기관의 일반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유치원 교육과정 주제와 연계하여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일반적인 다문화 이해 활동을 개발하되, 특히,

15) 본 개정판 프로그램 자료집은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 관련 프로그램 및 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http://ybl.kicce.re.kr>’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한국의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문화국가 가정(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등)의 소재를 많이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개정판의 특징은 2012년 7월에 새롭게 고시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 유아만을 별도로 모아서 지도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시각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학급에서 통합 지도를 하되, 다문화가족 유아에게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지도) 전략을 사용하면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주요 지원 전략으로는 시각적 단서, 또래 모델링, 활동 단순화, 과제 세분화, 반복하기, 속도 조절, 선호도 활용, 역할 부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에는 학기 초에 전체 유아 대상 발달 관련 기본검사를 실시, 다문화가족 유아의 발달 상태를 점검하여 기본 교육·보육 과정 계획 시 고려하고, 가정과의 연계 및 학부모 상담 시에도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판 프로그램의 활동계획안에는 '다문화가정·유아를 위한 도움말'을 추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다문화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개별 다문화가족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고, 각 활동별로 제시된 도움말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문화가족과의 연계 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3)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부모 연계·합동 프로그램 실시

일반적으로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의 어려운 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은 다문화가족 유아의 발달상의 문제나 부적응 보다는 비다문화가족 부모의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다. 이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어머니의 육아지원기관과의 교류 및 기관-가정 연계 지도 강화를 위한 다문화 부모 대상 부모교육은 물론 비다문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부모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 조사 결과에서 다문화가족이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부모교육 모임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시간부족과 다른 학부모들과의 관계 형성을 지적인 바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하는 소집단 활동 모임 등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와 양육 기술을 공유하게 하는 방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에 좀 더 긴밀한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연계·합

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원을 받아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짝을 이루어(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육아지원기관과의 연계 지도 및 자녀 양육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각자의 전통 음식을 함께 준비해서 같이 나누어 먹고, 이를 계기로 문화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육아지원기관에서 교구나 도서를 대여하여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가지고 놀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가족 여행, 서점이나 도서관 방문, 박물관이나 미술관 견학, 영화 및 연극·공연 관람 등도 연계·합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다문화가족 특성별 부모역량 강화 지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주로 기관 중심의 유아 다문화 이해교육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것에 비해 최근 보다 효율적인 다문화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모두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의 통로로서 육아지원기관이 최적의 통로임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기관과 가정이 연계할 때 다문화가족 유아와 어머니, 나아가 다문화가족 모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 양육에 많은 관여를 하는 조부모도 대상에 포함하여 자녀 양육 지원이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자녀 양육 역량이 비다문화가족 아버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양육 역량을 제고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의 양육 특성과 기술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다문화가족 부모의 양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및 지원 시에는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국가별로도 양육 특성과 환경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육 지원의 내용과 방법에서 차별화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다문화가족

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각 국가별 특성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방법을 제시한 ‘KICCE 부모교육 핸드북’의 양육 주제별 소책자를 각 가족의 부족한 양육기술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이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 및 부모 역량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국가(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에 비해 중국 조선족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이 가장 높았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트남 어머니가 한국어 실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낮은 편이며, 남편에게 양육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 어머니들은 베트남 친구(동료 및 언니)들 간의 소모임이 많고 정보도 많이 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베트남 어머니들 간의 소집단 부모교육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교직원의 다문화 이해 및 전문성 제고 연수

육아지원기관 교사의 다문화 연수 경험 여부에 따라 다문화가족 이해 및 다문화교육 역량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족 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사는 물론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지원기관의 기관장이 기관의 교직원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 연수 프로그램의 주제는 다문화교육의 동향, 다문화시대 유아교원의 역할, 다문화가족 유아의 발달심리, 다문화가족의 생활과 문화 특성 이해, 다문화 부모들과 소통하기,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 교육문제, 다문화시대의 유아교육과정, 다문화교육의 유·초연계, 다문화학급 유아의 언어지도, 예술을 통한 유아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 부모·유아 지원프로그램 현황 및 특성, 유아 다문화 교육의 지도사례 등이다¹⁶⁾.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수는 향후 다문화가족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기관 교사 전체에게 자격연수 또는 직무연수 형태로 필수교과목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6) 2012년 1월 서울교대에서 실시한 다문화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유아 다문화 교원 직무 연수」의 교과명을 제시함.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및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교사 연수 또한 필요하다. 기존에 개발·보급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구성 및 실제 활용 방법에 대한 워크숍 형태의 교사 연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수 주제와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모두 담은 ‘다문화가족 지원 매뉴얼’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하여 교사들이 수시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지역사회 다문화 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연계·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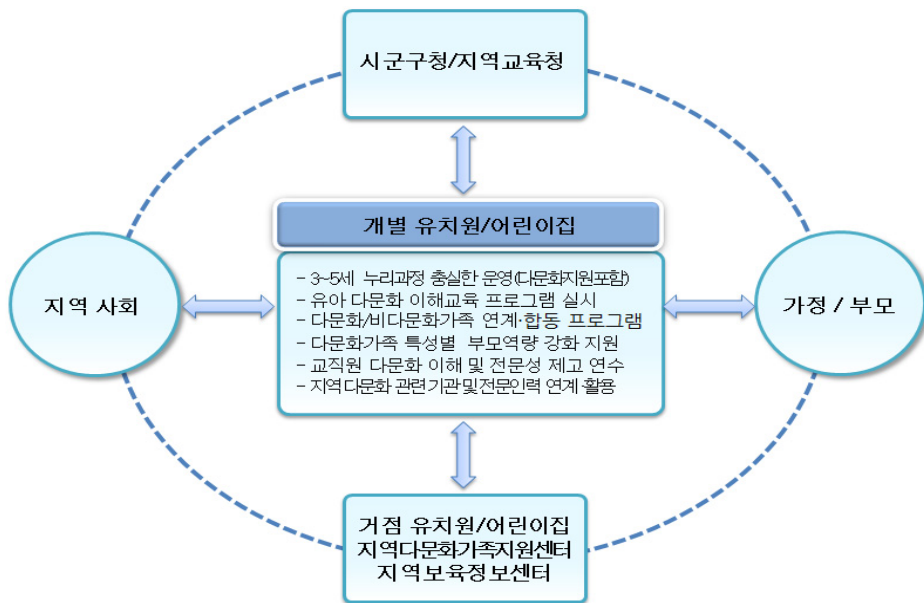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달체계인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교육청의 유아 다문화 지원 정책과 사업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가장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지역보육정보센터나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며, 이들 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거점 유치원/어린이집과의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보육정보센터의 다문화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이 어려워하는 가정통신문이나 준비물 등을 번역해 주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이중언어강사나 통·번역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다문화가족 지원 협회나 단체의 전문인력을 요청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다문화가족과 육아지원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주어야 한다. 매뉴얼에는 교사들이 기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외에도 기관에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관련 센터 제공 사업 및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필요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 취약계층 가정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돕고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의 발달 정도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적 배려와 더불어 건강, 안전, 영양 및 정서적 안정 등에 관련된 종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종합복

지교육서비스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형태를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종합복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되며, 일차적으로는 공립단설유치원의 원장이 중심이 되어 다문화 유아와 부모를 위한 직접적인 교육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 인적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제시한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V-1-1 참조).



[그림 V-1-1] 개별 유치원/어린이집의 다문화가족 지원 모형

나. 다문화 거점 유치원/어린이집 중심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다문화 거점 유치원/어린이집 중심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모형은 지역 내 5-10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거점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단위가 되어, 시도교육청/시도청, 지역 공공기관, 지역단체/협회,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체제와 긴밀하게 연계·협력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형태이다.

1) 거점 유치원/어린이집

지역 내 육아지원기관 중 기관장의 의지가 있고, 인적·물적 여건이 보다 잘 갖추어진 기관이 다문화 거점 유치원/어린이집의 역할을 하고, 협력네트워크 중심이 되어 개별 기관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거점 기관은 협력기관들 간의 자원 파악 및 정보 공유, 교재·교구 공동 구입 및 교사 합동 연수, 다문화가족 부모·유아 합동 행사 및 문화체험활동 공동 실시 등을 주관한다.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들도 각각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면서 이들 기관들 간에도 긴밀한 협조·공조 체제를 유지한다.

유치원의 경우,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도의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사업 체계 내에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에서는 유치원지역센터 중심형(거점-중심-협력형, 거점-협력형)을, 읍면지역에서는 규모가 작은 중심유치원을 중심으로 개별유치원이 참여하는 형태인 소집단 협력형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5-10개 어린이집들을 소집단으로 구성하고, 그 중 인적·물적 여건이 갖추어진 대규모 어린이집을 다문화 거점 어린이집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체계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2) 시도청/시도교육청 및 지원체계

시도교육청은 기존에 초중등학교에 중점을 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확대하여 취학 전 유아를 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은 지원체계를 통한 일반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추진 하되, 취약가족 유형별 지원 특히,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만이 아니라,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대상으로 포함하여 거점 유치원/어린이집 협력네트워크 단위별로 유아다문화이해강사(다문화이중언어강사)를 선발·연수하여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파견·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도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 시도보육정보센터에서는 기본 프로그램과 사업 외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이때 다문화가족이 문화체험활동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문화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실시하도록 한다.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의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이주 초기 프로그램과 중기 프로그램 등을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 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의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7.58년(베트남 6.58년~중국 조선족 9.05년)으로 나타나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속하므로 한국어 교육의 지속적인 지원과 병행하여 자녀의 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량강화 및 부모로서의 자신감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도청의 드림스타트 사업,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 및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등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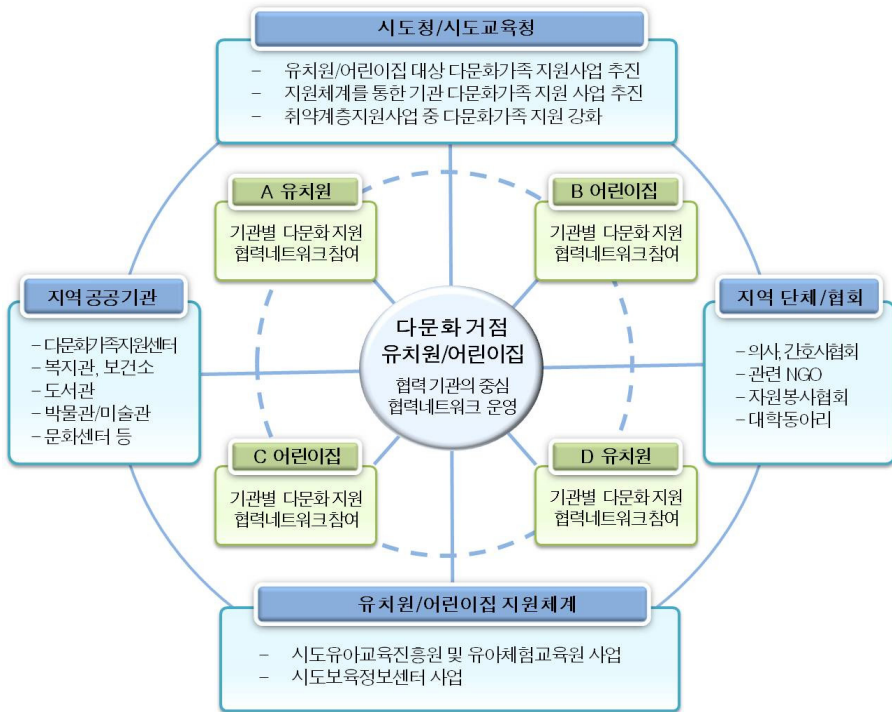
3)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협회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지원 요청을 하기 보다는 거점 유치원/어린이집의 협력네트워크 체계에서 연계·교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공공기관과 단체의 사업 및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전문가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적 측면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자료를 파악하여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공공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관, 보건소,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화센터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지역 단체/협회로는 의사·간호사 협회, 관련 NGO, 자원봉사협회, 대학동아리 등의 인적·물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다문화지원 사업 및 개별 NGO에서 제공하는 유아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다문화국가별 동화책 번역 사업, 인형극, 공연,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다문화이해강사 파견 사업 등)의 유형별 정보를 파악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다문화가족 지원 매뉴얼’에 포함하여 개별 기관과 거점 유치원/어린이집에 보급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점 유치원/어린이집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다문화 거점 유치원/어린이집 중심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V-1-2 참조).



[그림 V-1-2] 다문화 거점 유치원/어린이집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모형

2.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방안을 개별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지원과 다문화 거점 유치원/어린이집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운영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사회적 적응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한국

에서 적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한 것은 언어 문제와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만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범사회적 통합의 일환으로 대중매체 등을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 제고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육아지원기관 채원 다문화가족 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대상 누리과정 무상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었으나, 본 연구 조사 결과,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다문화가족 부모의 비용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바, 다문화가족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는 거점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원해야 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것이 전달되는 현장, 즉, 다문화가족이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기관이나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를 위한 표준화된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시행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시행으로 육아지원기관에 다문화 유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중요한 양육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육아지원기관 교원의 다문화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수의 주요 내용과 다문화가족의 일반 특성은 물론 각 국가별 양육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자료가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 매뉴얼’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인터넷 사이트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누리’ 다문화가족지원포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자료실에 탑재된 자료의 범위와 내용이 제한적이다. 다문화가족 어머니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외에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개발한 양육 지원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양육 지원 포털사이트’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각 시도교육청자료(2012-2013).
- 강선자·손수민(2011). 영아기 자녀를 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결혼이주여성 4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열린 유아교육연구. 16(6). 161-188.
- 교육과학기술부(2010). 유아 다문화 교원 직무연수.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누리과정 해설서.
- 구수연(2010). 다문화 현장이 갖는 딜레마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8(3). 65-92.
- 김민정·김정은(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30(5). 119-135.
- 김선희(2011).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간의 구조적 관련성 분석. 아동학회지. 32(3). 121-142.
- 김영옥·서현·박형신·정상녀·윤경선·박미자·이나영(2008). 유아 다문화 교육의 통합적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영옥·임진숙·정상녀(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43-164.
- 김영옥(2002).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 서울: 정민사.
- 김영옥(2010). 다문화시대의 유아교육과정. 유아 다문화 교원 직무연수 자료집, 155-164.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 김은영·문무경·김문희·박수연(2010)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이선 외(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실행계획 연구: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경(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관련 변인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숙·김희재·오중환(2011).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의 질의 결정요인: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27-51.
- 김화수·이은경(2010). 취학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209-226.
- 김희진·김은영·김현주·최명희·고지민·강재희(2011). KICCE 부모 양육수준 검사지.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다누리 웹사이트 http://www.liveinkorea.kr/kr/contents/contents_view.asp?idx=8에서 2013년 11월 18일 인출.
- 문무경·조혜주(2008).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민성혜·김정은·김리진(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아동학회지. 32(1). 31-49.
- 박민정·이병인(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기관과 상호작용 행동유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특수교육학연구. 45(1). 129-151.
- 박찬옥·김영중·황혜경·엄정례·조정서(2006). 유아사회교육. 서울: 정민사.
- 법무부 보도자료(2012. 11. 28)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서문희·설동훈·최윤경·김은영·조혜주(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 - 영유아·초등학생·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서울: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조혜주·정은미(2011).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지원 실태와 요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해정·구현아·이현주(2009). 경기도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신선희·김영희(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적응유연성 관련변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31-53.
-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2012a).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0-2012) 2012년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2012b).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 여성가족부(2013).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시행계획.
- 오재연(2012). 시간경과에 따른 한국가정 유아와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과정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14). 147-176.
- 이교일(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2011 1(1). 181-217.
- 이선미·이경아(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17(3). 71-105.
- 이은하(2010).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권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이야기: 경북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4(3). 109-129.
- 장명림·이윤진·이정림·이미화·전혜정·민현숙 외(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이윤진·이정림·민현숙·이세원·송윤정·소수정(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장혜진·권미경·한영숙(2011a).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이정림·최은영·이세원·정지현·조유리(2011b).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김영옥·서현·차선미·이세원(2011c).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서울특별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최은영·김미나·백승선(201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 (IV)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 외(2013).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정판.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 전주연·하은실·정계숙(2012). 유아 교실 다문화교육 수행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실제. 아동학회지. 33(3). 177-197.
- 정기선 외(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기선 외(201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의제 연구. 법무부·IOM이민정책연구원.

- 정명수(2008).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선영(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지식과 문화적응 유형의 매개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4(2), 43-61.
- 정수경(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미영·배지희(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멘토링 과정 탐색. 유아교육연구. 31(6), 427-453.
- 조성연·이정희·천희영·심미경·황혜정·나중혜(2006).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신정.
- 조운주·조하나(2011). 유아교사의 다문화가정 유아지도와 부모지원에 대한 인식 탐색.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5(3), 7-27.
- 채정란(1999).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생활주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안복(2009). 통합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윤경·양미선·도남희·박혜원·이진숙·정윤경·이보람(2011).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실태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현정(2011). 유아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연수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행정안전부(2012). 2012년 주민등록인구통계.
- 행정안전부(201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 결과.
- 홍민경·이경화(2011). '다문화교육'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개념도 분석. 아동학회지. 32(3), 241-254.
- Derman-Sparks, L., & A. B. C. Task Force. (1989). Anti-bias curriculum :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NAEYC.
- Robles de Melendez, W., & Ostertag, V. (1997). Teaching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classroom; Issues, concepts, and strategies. NY: Thompson.

Abstract

Child Care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Households : Focusing on Multi-cultural Families

Myung-Lim Chang Mekyung Kwon Hyejin Kim Yo-Eun Kong

This research is the 5th year research of the <Research on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Child-rearing of the Socially Vulnerable>, with an objective to provide measures to support child care for multi-cultural families among vulnerable households, in line with the government-led projects.

For this,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sis of relevant data, interviews of the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carried out and advisory meetings with experts and a Teachers Council were held. In addition, a survey on 530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428 mothers of non-multi-cultural families whose children attend kindergartens and nursery schools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child care environment and level of care as well as the current utilization of the child care institutions and the demand for them.

With the aforementioned methods, the following child care support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ies is proposed: Individual kindergartens and nurseries need to provide an environment for kids to grow and live a harmonious life without bias and conflict betwee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multi-culture understanding education programs customized for 3 to 5-year-olds. Moreover, joint programs with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parents should be held, while tailored support to enhance the capacity of the parents according to family type should be strengthened. We need to seek measures to improve training systems for child care institution teachers to better understand multi-culture, build on expertise and to link and utilize multi-cultural institutions and experts. At the same time, if we set up a cooperative network focusing on multi-cultural child care centers, a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multi-cultural child care support will be provided.

부 록

부록 1.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요약)

부록 2. 육아지원기관 이용 부모지원 의견조사표 2종

- 다문화가족 어머니용
-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용

부록 3.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활동계획안 예시

- 3세 활동: 생활도구 ‘아기를 업어 주세요’
- 4세 활동: 세계여러나라 ‘세계의 싸서 먹는 음식’
- 5세 활동: 나와 가족 ‘결혼식에 먹는 특별한 음식’

부록 1.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요약)

구분	영역/분야	정책 제안
1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및 문제점/제한점	○ 막대한 예산과 정책 지원 대비 효과 미흡 - 기존 프로그램은 육아지원기관 내 다문화가족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 혜택이 적음 · 보육료 및 학습비 지원, 일률적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 자녀의 가정환경 및 다문화가족 어머니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부족 · 맞벌이로 인한 시간 부족, 실제 요구와 지원 불일치, 다문화가족 공개를 꺼려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참여 저조 - 현장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 부족 ·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피상적 이해 ○ 정책 사각지대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 - 다문화가족 지원이 결혼이주부모에 편중됨. - 이주근로자는 방치되고, 탈북자 자녀 지원방안은 전무 - 인구밀집지역을 제외한 지역도농복합, 농어촌지역 지원 부족 ·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기관인 경우, 가정과 양육 지원기관, 지원센터와 간의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 기관 이외의 다른 지원기관을 통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2	육아지원기관에서 의 바람직한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	○ 교사 연수 방안 - 교사 직무/자격연수 시 다문화교육 포함 필요(연수 점수 부여) - 전달연수가 아닌 전체연수로 의무화 하는 방안 제안 - 국가별 기본적 특성(문화, 양육방식, 교육 등)에 대한 이해교육을 연수에 포함 - 연수방식은 교수학습 방법에 비중을 두어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여 교육 효과를 증대 - 다문화 교수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실시 ○ 교사용 자료 - 생활주제와 연관하여 흥미영역별 개발 - 교사의 다문화 지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재 개발 - 다문화가족 지원의 실질적 사례를 다룬 자료나 문제 사례별 지도 안내 책자 개발 - 지속적인 다문화교육/보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교사 스스로 적절한 자료를 실생활 주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역량개발에 대한 지원이 우선임. ○ 다문화 전담 장학지도사 배치 필요 - 다문화 전담 장학지도사를 지원센터에서 파견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소규모 교사학습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 제안 ○ 장애통합유치원 지원체계 벤치마킹 - 장애통합유치원 지원체계 벤치마킹하여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지원 체계의 구성 제안

구분	영역/분야	정책 제안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바람직한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	○ 유아 대상 프로그램 - 전체 유아 대상 프로그램 · 다문화/비다문화와의 구분 없이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누리과정의 내용에서 연계 · 기존 수업자료(그림, 사진, 동영상)에 다문화가족 출신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 필요 · 단위 활동이 아닌 일과 속 다문화 경험 제공 · 학급 내 다문화가족 유아의 배경국가가 주체가 된 다문화 경험 및 연계활동 지원 · 기존 다문화 자료는 한국과 다른 나라의 전통적 양식(의/식/주)에 초점을 맞추어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임. 이를 보완하여 여러나라의 과거, 현재의 모습 및 지리적 여건과 기후 특성에 맞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 유아 대상 프로그램 · 기본발달검사 및 장애선별 기회 제공 · 발달 진단에 따른 개별 지원교육 프로그램 실시 · 단, 개별지도는 다문화 유아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다문화 부모의 요구가 있거나, 별도 지도가 꼭 필요한 경우에 방과후 시간 이용한 개별 지도 가능 ·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유아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의 문화, 이중언어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 ·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유아와 다문화가족 유아의 1:1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부모 대상 프로그램 - 육아지원기관용 다문화가족 지원 매뉴얼 개발 - 다문화가족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및 참여수업 확대 · 한국의 육아지원기관 생활에 대한 이해 제고 · 단, 운영방법은 전체 부모 대상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하되, 필요시 소집단 모임으로 실시 가능 - 다문화가족 보급용 자료 개발 ·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양육 관련 자료(유아 상호작용, 놀이방법 안내 등) 제공 및 자료의 활용에 대한 부모교육 병행 - 다문화/비다문화가족 어머니 간 공동 프로그램 · 소모임 활동(각국의 요리, 춤, 노래, 풍습 등 공유/ 자원 봉사활동, 풍선아트, 구연동화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어머니 간의 소통 활성화, 교류 증대 · 소모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지원기관 행사에 참여 · 다문화/비다문화가족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

구분	영역/분야	정책 제안
		정보 나눔 및 언어습득 증대 · 전체가족 대상 전통놀이 어울림 한마당, 한국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통합교육활동 전개 · 같은 국가 출신 부모 간의 교류 마련 - 다문화가족 대상 부모교육 · 다문화가족 대상 부모교육 강화(부부교육, 아버지교육, 조부모교육 포함) · 자녀 연령별로 세분화된 부모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경우, 맞벌이가 많으므로 토요일에 부모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역량 기반 부모참여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부모의 '다문화강사' 프로젝트(언어교육 등) - 다문화가족 대상 한글교육 및 통번역서비스 지원 · 알림장 번역서비스 제공 · 토요 한글 프로그램 운영 - 개별면담 및 지원 강화 · 다문화 어머니와 교사 간 1:1 협력체계 구축하여 자녀교육 및 생활상담 등의 밀착 지원
3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시, 고려사항	○ 다문화 어머니의 양육 특성 이해에 기반한 지원 필요 - 가정과 기관 간의 활발한 소통(알림장, 개별면담)을 통한 육아지원기관 교사의 개별 다문화 어머니 양육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동남아 모계사회에 대한 이해 필요 · 종교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 · 부부 간 큰 연령차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결혼생활 부적응 현상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으로 미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 - 다문화가족 어머니 대상 한국의 양육문화 자료 및 교육을 통해 이해 증진 필요 ○ 다문화 어머니의 특성별(국가,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학력, 소득수준, 양육 태도) 맞춤형 지원 필요 - 한국어 수준별로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 거주기간과 한국어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필요 · 거주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제공과 통번역서비스를 통해 보다 밀착된 관계 형성 및 신뢰구축의 정서적 지원 필요 · 거주기간이 비교적 길고, 한국어 수준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경우, 아직 초기 적응 단계에 있는 같은 국가 출신의 다문화가족 어머니와의 1:1로 연결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유형별 차별화된 지원방안 필요 - 핵가족/3세대 이상 가족 등 유형별 다른 지원 필요 ○ 복합적 취약계층의 경우 총체적 지원시스템 필요 - 이혼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의 취약계층의 다양한

구분	영역/분야	정책 제안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는 가족에게는 총체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개별 유아 분석을 통한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4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센터 연계 통합적 지원 방안	○ 지역 내 유관기관 간 다문화가족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근로자지원센터, 교육지원청, 보육정보센터 등 다문화 유관기관 간 통합된 시스템 도입으로 맞춤형 지원 - 육아지원기관에서는 사전에 다문화가족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 국가 및 양육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 및 개별 면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긴밀한 개별 면담 실시 - 도단위 다문화통합위원회, 혹은 센터 연계망 위원회 구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이주여성 취업 프로그램,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이음교육 활동, 다문화 체험 교육활동, 다문화 센터 동아리(예, 인형극 공연활동) 활동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육아지원기관 교육활동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부모교육 대상자 발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부모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이중언어 강사 발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하여 육아교육기관에서 실시 ○ 그 외 지역센터와 육아지원기관과 연계 활성화 필요 - 주요 국가별 언어 통번역서비스 상시 제공 - 해당 국가의 전통양식(의/식/주)에 대한 정보와 교육용 자료 비치 및 대여 서비스 필요 - 방과 후 또는 야간돌봄이 필요한 유아의 경우 연결 서비스 필요 -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을 통한 풍부한 한국어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이나 공부법 지원 -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 교육, 취미, 운동 등과 관련된 서비스 연계망 구축 - 다문화가족 유아를 위한 문화, 교육 활동 연계망 구축
5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 필요한 정책적 지원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거점센터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콜센터 마련(긴급한 전화통역 지원, 육아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행정기관 이용 안내 등) -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적 한계(농어촌, 산간벽지 지역)를 극복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대상 원격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인터넷 화상 통화를 통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 - 통번역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지원 - 이중언어 교사 지원 - 다문화 전문가 육성

구분	영역/분야	정책 제안
		· 다문화 전담 장학지도사 양성 · 특수아 교육과 같은 다문화 전문교사 양성 필요(장애통합 시 보육정보센터에서 특수교사를 파견하여 순회지원을 하는 것과 같이, 다문화교육 담당 인력 충원) · 다문화가족의 육아도우미 지원(다문화가족 대상 육아법 안내) ○ 기존 정책 개선 방안 -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 사용처 다문화교육 지원에의 확대 · 다문화 유아가 많은 기관의 경우,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지원금을 다문화교사 채용에 활용가능한 한 하도록 함. - 기존 서비스에 대한 다문화가족 부모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 마련 필요(의무 참석 등) - 부모교육 시 아버지 교육 및 아버지 양육 참여 강조
6	지원상의 유의점 및 기타	○ 비다문화 중심의 동화가 아닌 다문화사회로의 인식 제고 - 비다문화 중심의 일방적 통합 지양 - 다문화/비다문화 간 평등한 관계 형성을 위해 지원의 목표의 명료화 필요 ○ 비다문화가족 배려한 정책 필요 - 역차별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함께 필요 - 비다문화가족의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과 일반 저소득가족의 형평성 있는 지원 ○ 외국인 가정, 불법체류자의 아동을 위한 지원 필요

부록 2. 육아지원기관 이용 부모지원 의견조사표 2종

육아지원기관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 지원 요구조사 - 다문화가족 어머니용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가정의 양육 환경, 양육 특성 및 양육 지원 요구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실시기관 : (주) 한국리서치

■ 담 당 자: 김혜진 연구원
(T : 02-398-7729)
(E : hjkim@kicce.re.kr)

■ 담 당 자: 오세미 팀 장(02-3014-0111)
전혜진 연구원(02-3014-0983)

※ 아래표는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기관 코드					기관 이름	
응답자 국적	① 중국(조선족) ② 중국(한족, 기타 민족)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기타 ☞ 면접중단					
면접원성명		면접원 ID		면접일시	____월 ____일 ____시	
Supervisor 검증				검증결과		

I. 가족과 자녀의 일반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를 적어 주십시오.

◆ 가족이란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친인척도 포함한 혈연관계를 의미하며, 이 중 장기간(6개월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합니다.

가족 수	총	명
------	---	---

2. 귀하는 현재 자녀 이외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남편 | ⑦ 본인의 어머니 |
| ② 남편의 아버지(시아버지) | ⑧ 본인의 형제자매 |
| ③ 남편의 어머니(시아머니) | ⑨ 본인의 조부모 |
| ④ 남편의 형제자매 | ⑩ 기타() |
| ⑤ 남편의 조부모 | ⑪ 없다 |
| ⑥ 본인의 아버지 | |

3. 귀하의 자녀 수를 연령 구분별로 각각 적어 주십시오. 해당 연령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0'을 적으십시오.

◆ 연령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이상에 입학 한 자녀의 경우는 초등학교 이상에 체크해주십시오.

1) 영아(만 0-2세): 2010.1.1 일생 이후	명
2) 유아(만 3-5세): 2007.1.1 - 2009.12.31 일생	명
3) 초등학생 이상	명

4. 귀하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년
--	--	--	--	---

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 | |
|-----------|-----------|
| ① 무학 | ④ 고등학교 졸업 |
| ② 초등학교 졸업 | ⑤ 대학 졸업 |
| ③ 중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이상 |

6.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① 기혼 | ④ 사별 |
| ② 이혼 | ⑤ 비혼인·동거 |
| ③ 별거 | ⑥ 기타 |

6-1. (문6의 ①, ⑤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남편과 초혼입니까? 재혼입니까?

- | | |
|------|------|
| ① 초혼 | ② 재혼 |
|------|------|

6-2. (문6의 ①, ⑤응답자만) 남편은 귀하와의 결혼이 초혼입니까? 재혼입니까?

- | | |
|------|------|
| ① 초혼 | ② 재혼 |
|------|------|

7. 귀하께서는 언제부터 한국에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습니까?

				년
--	--	--	--	---

8.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어를 읽고 내용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어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어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귀하의 남편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년
--	--	--	--	---

10. 귀하의 남편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 | |
|-----------|-----------|
| ① 무학 | ④ 고등학교 졸업 |
| ② 초등학교 졸업 | ⑤ 대학 졸업 |
| ③ 중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이상 |

11.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어떠합니까?

본인	배우자

- ① 취업
- ② 휴직
- ③ 미취업

12. (문11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 하는 일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본인	배우자

-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특별한 일
이 없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근로자
-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
-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 단독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
- ◆ 고용주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자와 가족,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사업체에서 정규 근무시간의 1/3 이상 종사
하는 사람

-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근로자
- ③ 일용근로자
- ④ 단독자영업자
- ⑤ 고용주
- ⑥ 무급가족 종사자

13. 귀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달에 버는 금액(총 가계소득)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③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④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⑤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⑥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⑦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⑧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 ⑨ 7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⑩ 1,000만원 이상
- ⑪ 모름

II. 자녀 양육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집에 있는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 |
|------------|----------------|
| ① 본인(나) | ⑦ 결혼이민자 친구/이웃 |
| ② 남편 | ⑧ 한국인 친구/이웃 |
| ③ 남편의 부모 | ⑨ 자녀 혼자 있다 |
| ④ 남편의 형제자매 | ⑩ 기타() |
| ⑤ 본인의 부모 | |
| ⑥ 본인의 형제자매 | |

15. 남편과 본인 중 자녀 양육에 누가 더 많이 참여하십니까?

◆ 자녀 양육은 의식주 해결, 교육, 놀이 등 자녀를 기르는 데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 ① 본인(나)
 ② 남편
 ③ 본인과 남편 반반씩

16. 귀하께서는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어떤 기관(곳)에서 얻으십니까? 여러 곳일 경우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어린이집/유치원 | 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② 육아관련 인터넷사이트 | ⑥ 종교단체(교회/성당) |
| ③ 주민센터 | ⑦ 기타() |
| ④ 복지관 | ⑧ 없다 |

17. 현재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도움 :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외출할 경우 대신 돌보아주는 것, 육아용품 나눠쓰기 등을 의미합니다.

- | | |
|---------------|--------------------|
| ① 시댁 식구 | ⑤ 다문화 관련 기관, 단체 직원 |
| ② 친정 식구 | ⑥ 기타() |
| ③ 결혼이민자 이웃/친구 | ⑦ 없다 |
| ④ 한국인 이웃/친구 | |

Ⅲ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귀하의 자녀는 귀하의 모국어(출신국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다면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지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부모(본인) | ☞ 문19로 가십시오. |
| ② 어학교사(학원, 다문화지원센터 등) | ☞ 문19로 가십시오. |
| ③ 배우지 않는다 | ☞ 문18-1로 가십시오. |
| ④ 기타() | ☞ 문19로 가십시오. |

18-1. 배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배우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앞으로 배우게 할 생각이다
 ② 앞으로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19. 귀하는 자녀에게 귀하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십니까?

- | | |
|-----------------|----------------|
| ①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 ☞ 문19-1로 가십시오. |
| ②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 ☞ 문19-1로 가십시오. |
| ③ 가끔 이야기한다. | ☞ 문20으로 가십시오. |
| ④ 자주 이야기한다. | ☞ 문20으로 가십시오. |

19-1.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가 온전한 한국인으로 자랐으면 해서
 ②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서
 ③ 자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④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⑤ 기타()

20. 귀하는 자녀에게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다문화가족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② 다문화가족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장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③ 다문화가족이어서 자녀가 위축할까봐 걱정된다.
 ④ 별 느낌 없다.

21. 귀하는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기르는 데 어떤 점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의 이중문화 습득을 도울 수 있다.
- ②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을 도울 수 있다.
- ③ 자녀에게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돕는다.
- ④ 다문화가족으로서 다양한 혜택(사회복지서비스, 주변의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다.
- ⑤ 다문화가족 간 긴밀한 모임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
- ⑥ 기타 ()
- ⑦ 유리한 점이 없다

22. 귀하는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기르는 데 어떤 점이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육아정보를 얻기 어렵다.
- ② 언어적 어려움으로 자녀에게 긴밀한 상호작용을 해주지 못한다.
- ③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
- ④ 아빠의 나이가 많다.
- 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 ⑥ 시댁의 간섭이 있다.
- ⑦ 기타 ()
- ⑧ 불리한 점이 없다

IV. 부모님의 자녀 양육 태도 및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3. 귀하와 귀하 남편의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본인과 남편 각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1) 본인					(2) 남편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와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원하는 것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엄격하게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4.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동화책, 장남감 등)을 사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자녀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은 아이를 돌보는 일(음식 먹이기, 목욕시키기 등)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은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귀하는 자녀 양육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문25-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문26으로 가십시오.

25-1.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주로 누구 의견에 따르는 편입니까?

- ① 본인
 ② 남편

26. 귀하는 자녀 양육 문제로 시댁식구(시부모, 남편의 형제자매 등)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문26-1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문27로 가십시오.

26-1.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주로 누구 의견에 따르는 편입니까?

- ① 본인
 ② 남편
 ③ 시부모
 ④ 남편의 형제자매

27. 자녀와의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지난 3개월 동안 자녀와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응답한 후, '① 방문하였다'에 응답한 경우 몇 번 방문하였는지 적어 주십시오.

항 목	방문하였는지 여부	방문 횟수(3개월간)
1) 서점, 도서관 등	①방문하였다 ②방문하지 않았다	총 회
2) 박물관, 미술관 등	①방문하였다 ②방문하지 않았다	총 회
3) 놀이공원, 동물원 등	①방문하였다 ②방문하지 않았다	총 회
4) 영화, 연극, 뮤지컬 등 공연	①방문하였다 ②방문하지 않았다	총 회
5) 가족여행 (캠핑, 낚시, 물놀이, 등산 등)	①방문하였다 ②방문하지 않았다	총 회
6) 기타()	①방문하였다 ②방문하지 않았다	총 회

28. 귀하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평소의 행동을 가장 잘 표현한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의복, 음식 및 주거 제공의 역할>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옷을 깨끗이 빨아 입힌다	①	②	③	④
2)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힌다	①	②	③	④
3) 인스턴트 음식 보다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인다	①	②	③	④
4) 식사예절을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5) 집을 깨끗하게 치운다	①	②	③	④
6) 위험한 물건은 아이 손이 닿지 않게 치운다	①	②	③	④

<건강유지, 신체적, 인지적 지원의 역할>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매일 자기 전에 양치, 세수, 목욕(또는 손발 씻기)을 시킨다	①	②	③	④
8) 정기적으로(6개월에 1회 이상) 아이를 치과에 데려간다	①	②	③	④
9) 예방주사를 제때 맞힌다	①	②	③	④
10) 아이에게 놀이터에 나가 뛰어 놀게 한다	①	②	③	④
11) 아이가 호기심을 보이면 칭찬해주고, 더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12) 자녀와 함께 공원, 박물관, 도서관, 전시관 등의 다양한 장소에 간다	①	②	③	④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의 역할>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주고 아이에게 말도 많이 해준다	①	②	③	④
14)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①	②	③	④
15)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한다	①	②	③	④
16) 아이의 기분을 알고 그것에 맞춰 기뻐해 주거나 속상할 때는 달래준다	①	②	③	④
17) 아이가 혼자 해보려고 하는 일을 해보게 한다	①	②	③	④
18) 아이가 노력할 때 “열심히 하네!” “참 잘했어!” 같은 말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규범/가치형성, 훈육, 놀이지원, 사회연계의 역할>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질서나 예절을 가르친다(예: 웃어른 공경하기, 차례 지키기 등)	①	②	③	④
20) 부모가 바른 행동을 먼저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21)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22)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부드러운 말투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23)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24) 아이에게 나이에 맞는 놀잇감(장난감 등)을 마련해준다	①	②	③	④
25) 우리 동네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V.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자녀에 대한 사항을 응답할 때, 이 설문을 하기 위해 온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29.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매월 내는 비용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29-1로 가십시오.
 ② 없다  문30으로 가십시오.

29-1. 귀하께서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매월 내는 비용은 모두 얼마입니까?

월 평균	만	천원
------	---	----

29-2. 문29-1에서 말씀하신 비용이 귀하의 가계에 부담이 됩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부담된다
 ⑤ 매우 부담된다

30. 다음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서비스의 예시입니다.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받아보았습니까? 만약 받으셨으면 자녀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기입해주세요.

서비스 내용	경험여부		(받은 경우) 자녀의 성장·발달에 도움되는 정도			
	예	아니오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한글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2)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교육(이중언어)	①	②	①	②	③	④
3) 멘토(친구, 형제맺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4) 방과 후 특별지도	①	②	①	②	③	④
5) 기본적인 발달검사 및 건강진단	①	②	①	②	③	④
6) 모든 아이들(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7) 기타()	①	②	①	②	③	④

31. 자녀가 받아 본 서비스 중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문30번에서 경험 여부에 [①예]로 기입한 항목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32. 다음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문화가족 부모님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서비스의 예시입니다.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받아보았습니까? 만약 받으셨으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기입해주세요.

서비스 내용	경험여부		(받은 경우) 자녀 양육에 도움되는 정도			
	예	아니오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한국어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2) 가정통신문 통번역 등의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3) 아버지교육을 포함한 부모교육(집단)	①	②	①	②	③	④
4) 원장 또는 교사와의 상담(1:1)	①	②	①	②	③	④
5) 부모참여 수업(자녀의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	①	②	①	②	③	④
6) 양육 지원(양육정보 제공, 다문화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 소개 및 연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7) 다문화가족 소집단 모임 주선	①	②	①	②	③	④
8) 다문화가족 어머니와 비다문화가족 어머니를 1:1로 짝지어주는 것(멘토-멘티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9) 기타()	①	②	①	②	③	④

33. 귀하가 받아 본 서비스 중 자녀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문32번에서 경험 여부에 [①예]로 기입한 항목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34. 귀하께서 자녀를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낼 때, 참여활동 또는 관계상의 측면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원장과의 관계
- ② 교사와의 관계
- ③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 ④ 기관 행사 참여를 위한 시간마련
- ⑤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없다
- ⑥ 기타

35. 귀하는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사나 원장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는 편이다.
- ② 별로 없는 편이다.
- ③ 약간 있는 편이다.
- ④ 매우 많은 편이다.

36.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어렵지 않다
- ② 별로 어렵지 않다
- ③ 조금 어렵다
- ④ 많이 어렵다

37.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준비물 및 과제를 준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어렵지 않다
- ② 별로 어렵지 않다
- ③ 조금 어렵다
- ④ 많이 어렵다

37-1. (문36 또는 문37에서 ③, ④에 응답한 경우) 어려움이 있다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 한 명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① 남편 | ⑥ 결혼이민자 이웃/친구 |
| ② 시댁식구 | ⑦ 한국인 이웃/친구 |
| ③ 친정식구 | ⑧ 다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직원 |
| ④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 ⑨ 기타() |
| ⑤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 ⑩ 없다 |

38. 귀하는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부모교육을 시행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장 원합니까?

- ① 영유아의 발달(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에 대한 내용
- ② 자녀와의 대화 또는 놀이방법에 대한 내용

- ③ 자녀의 생활습관지도 방법
- ④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 ⑤ 초등학교 적응 준비
- ⑥ 부부 및 가족과 잘 지내는 방법

39. 귀하는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부모교육기회가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반드시 참여하겠다  문40로 가십시오.
- ② 가능하면 참여하겠다  문40로 가십시오.
- ③ 참여하지 않겠다  문39-1로 가십시오.

39-1.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신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 ② 한국어 사용이 불편해서(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 ③ 다른 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 ④ 원장이나 교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 ⑤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서
- ⑥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⑦ 기타()

40. 귀하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어떤 부모참여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부모 일일교사로 참여
- ② 봉사활동 참여
- ③ 소규모 부모모임 참여
- ④ 부모교육 참여
- ⑤ 활동하는 게 없음
- ⑥ 기타 ()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마지막으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한 성의 표시로 사례비를 지급하여 드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약드립니다.

응답자이름		응답자 전화번호	—	—
-------	--	----------	---	---

육아지원기관의 부모역량 강화 지원 요구조사 - 비다문화가족 어머니용 -

기관 코드					
-------	--	--	--	--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육아지원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가정의 양육 환경, 양육 특성 및 양육 지원 요구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관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실시기관 : (주) 한국리서치

■ 담 당 자: 김혜진 연구원
(T : 02-398-7729)
(E : hjkim@kicce.re.kr)

■ 담 당 자 : 오세미 팀 장(02-3014-0111)
전혜진 연구원(02-3014-0983)

◆ 진 행 방 법 ◆

◇ 기 입 사 항

- 한 문항도 빠짐 없이 응답해주세요.
- 문항(예: 문3으로 이동) 번호를 잘 확인하시고 응답해야 할 문항을 정확히 응답해주세요.

◇ 회 송 방 법

- 설문을 받으신 후 일주일 내에 작성하여 자녀 편에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보내주시시오.
- 설문지는 어머니께서 응답하신 내용의 비밀보장을 위해 동봉한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보내주시시오. 보내주신 설문은 밀봉한 채로 조사기관에 전달되니 솔직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I. 가족과 자녀의 일반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를 적어 주십시오.

◆ 가족이란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친인척도 포함한 혈연관계를 의미하며, 이 중 장기간(6개월 이상)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합니다.

가족 수	총	명
------	---	---

2. 귀하는 현재 자녀 이외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남편 | ⑦ 본인의 어머니 |
| ② 남편의 아버지(시아버지) | ⑧ 본인의 형제자매 |
| ③ 남편의 어머니(시아머니) | ⑨ 본인의 조부모 |
| ④ 남편의 형제자매 | ⑩ 기타() |
| ⑤ 남편의 조부모 | ⑪ 없다 |
| ⑥ 본인의 아버지 | |

3. 귀하의 자녀 수를 연령 구분별로 각각 적어 주십시오. 해당 연령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0'을 적으십시오.

◆ 연령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이상에 입학 한 자녀의 경우는 초등학교 이상에 체크해주시십시오.

1) 영아(만 0-2세): 2010.1.1 일생 이후	명
2) 유아(만 3-5세): 2007.1.1 - 2009.12.31 일생	명
3) 초등학생 이상	명

4. 귀하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년
--	--	--	--	---

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 | |
|-----------|-----------|
| ① 무학 | ④ 고등학교 졸업 |
| ② 초등학교 졸업 | ⑤ 대학 졸업 |
| ③ 중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이상 |

6.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기혼

② 이혼

③ 별거
- ④ 사별

⑤ 비혼인·동거

⑥ 기타

6-1. (문6의 ①, ⑤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남편과 초혼입니까? 재혼입니까?

- ① 초혼

② 재혼

6-2. (문6의 ①, ⑤응답자만) 남편은 귀하와의 결혼이 초혼입니까? 재혼입니까?

- ① 초혼

② 재혼

7. 귀하의 남편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년
--	--	--	--	---

8. 귀하의 남편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 졸업

⑥ 대학원 이상

9.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어떠합니까?

본인	배우자

- ① 취업

② 휴직

③ 미취업

10. (문9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 하는 일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본인	배우자

-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근로자)
-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
-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 단독 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
- ◆ 고용주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 무급 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와 가족,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사업체에서 정규 근무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는 사람)

- | | |
|---------|------------|
| ① 상용근로자 | ④ 단독 자영업자 |
| ② 임시근로자 | ⑤ 고용주 |
| ③ 일용근로자 | ⑥ 무급 가족종사자 |

11. 귀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달에 버는 금액(총 가계소득)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⑦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 ②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⑧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
| ③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⑨ 7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 ④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⑩ 1,000만원 이상 |
| ⑤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⑪ 모름 |
| ⑥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

II. 자녀 양육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집에 있는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 |
|------------|----------------|
| ① 본인(나) | ⑥ 본인의 형제자매 |
| ② 남편 | ⑦ 친구/이웃 |
| ③ 남편의 부모 | ⑧ 자녀 혼자 있다 |
| ④ 남편의 형제자매 | ⑨ 기타() |
| ⑤ 본인의 부모 | |

13. 남편과 본인 중 자녀 양육에 누가 더 많이 참여하십니까?

◆ 자녀 양육은 의식주 해결, 교육, 놀이 등 자녀를 기르는 데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 ① 본인(나)
- ② 남편
- ③ 본인과 남편 반반씩

14. 귀하께서는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어떤 기관(곳)에서 얻으십니까? 여러 곳일 경우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어린이집/유치원 | ⑤ 종교단체(교회/성당) |
| ② 육아관련 인터넷사이트 | ⑥ 기타() |
| ③ 주민센터 | ⑦ 없다 |
| ④ 복지관 | |

15. 현재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도움 :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외출할 경우 대신 돌보아주는 것 육아용품 나눠쓰기 등을 의미합니다.

- | | |
|---------|----------------|
| ① 시댁 식구 | ④ 기타() |
| ② 친정 식구 | ⑤ 없다 |
| ③ 이웃/친구 | |

Ⅲ. 부모님의 자녀 양육 태도 및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와 귀하 남편의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본인과 남편 각각에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1) 본인					(2) 남편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와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원하는 것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엄격하게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동화책, 장남감 등)을 사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자녀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은 아이를 돌보는 일(음식 먹이기, 목욕시키기 등)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은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거나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는 자녀 양육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18-1로 가십시오.
 ② 아니요 ☞ 문19로 가십시오.

18-1.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면, 주로 누구 의견에 따르는 편입니까?

- ① 본인
 ② 남편

21. 귀하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평소의 행동을 가장 잘 표현한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의복, 음식 및 주거 제공의 역할>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옷을 깨끗이 빨아 입힌다	①	②	③	④
2)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힌다	①	②	③	④
3) 인스턴트 음식 보다는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인다	①	②	③	④
4) 식사예절을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5) 집을 깨끗하게 치운다	①	②	③	④
6) 위험한 물건은 아이 손이 닿지 않게 치운다	①	②	③	④

<건강유지, 신체적, 인지적 지원의 역할>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매일 자기 전에 양치, 세수, 목욕(또는 손발 씻기)을 시킨다	①	②	③	④
8) 정기적으로(6개월에 1회 이상) 아이를 치과에 데려간다	①	②	③	④
9) 예방주사를 제때 맞힌다	①	②	③	④
10) 아이에게 놀이터에 나가 뛰어 놀게 한다	①	②	③	④
11) 아이가 호기심을 보이면 칭찬해주고, 더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12) 자녀와 함께 공원, 박물관, 도서관, 전시관 등의 다양한 장소에 간다	①	②	③	④

<언어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의 역할>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주고 아이에게 말도 많이 해준다	①	②	③	④
14)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①	②	③	④
15)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한다	①	②	③	④
16) 아이의 기분을 알고 그것에 맞춰 기뻐해 주거나 속상할 때는 달래준다	①	②	③	④
17) 아이가 혼자 해보려고 하는 일을 해보게 한다	①	②	③	④
18) 아이가 노력할 때 “열심히 하네!” “참 잘했어!” 같은 말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규범/가치형성, 훈육, 놀이지원, 사회연계의 역할>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질서나 예절을 가르친다(예: 웃어른 공경하기, 차례 지키기 등)	①	②	③	④

20) 부모가 바른 행동을 먼저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21)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22)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부드러운 말투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23)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24) 아이에게 나이에 맞는 놀잇감(장난감 등)을 마련해준다	①	②	③	④
25) 우리 동네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기관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IV.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자녀에 대한 사항을 응답할 때, 이 설문을 가져 온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십시오.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십시오.

22.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매월 내는 비용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2-1로 가십시오.
 ② 없다 ☐ 문23으로 가십시오.

22-1. 귀하께서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매월 내는 비용은 모두 얼마입니까?

월 평균	만	천원
------	---	----

22-2. 문23-1에서 말씀하신 비용이 귀하의 가계에 부담이 되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부담된다
 ⑤ 매우 부담된다

23. 귀하께서 자녀를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낼 때, 참여활동 또는 관계상의 측면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원장과의 관계
 ② 교사와의 관계
 ③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④ 기관 행사 참여를 위한 시간마련
 ⑤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없다

27. 귀하는 다문화와 관련한 태도에 있어서 귀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문화에 대한 수용력/포용력이 높다	①	②	③	④
2)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3) 인종적·문화적 편견 및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4) 다문화가족의 유아를 차별하지 않고 대한다	①	②	③	④
5) 다문화가족의 부모를 차별하지 않고 대한다	①	②	③	④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마지막으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한 성의 표시로 사례비를 지급하여 드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약드립니다.

응답자이름		응답자 전화번호	—	—
-------	--	----------	---	---

부록 3. 유아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활동계획안 예시

- 3세 활동: 생활도구 ‘아기를 업어 주세요’

06



아기를 업어 주세요



활동유형	대·소집단활동-신체	생활주제	생활도구	다문화 교육요소	문화이해, 평등성
활동목표	- 여러 나라의 아기를 업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아기를 업는 방법은 달라도 아기를 돌보는 마음은 모든 나라가 같음을 안다. - 여러 나라의 아기 업는 방법을 직접 경험한다.				
누리과정 관련요소	- 신체운동·건강 > 건강하게 생활하기 >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 사회관계 >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활동자료	 「엄마 등에 업혀서」, 엄마 등에 업혀있는 아이 그림, 아기 인형, 포대기, 아기 띠, 그물, 천 보자기, 삼각 주사위(네 면에 서로 다른 아기 업기 그림이 있는 것)				

06

생활도구

● 활동내용 및 방법

- 「엄마 등에 업혀서」 동화를 듣는다.
 - 엄마 등에 업혀본 적이 있나?
 - 엄마가 어떻게 업어 주셨을까?
 - 「엄마 등에 업혀서」 동화 속 아기들을 엄마가 어떻게 업어주는지 볼까?
- 「엄마 등에 업혀서」 동화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 무엇에 관한 동화였니?
 - 왜 아기를 업고 있었을까?
 - 나라마다 아기 업는 방법이 어땠니?
 - 동화에 나온 아기 업기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니?
 - 엄마 등에 업히면 아기는 기분이 어떨까?
 - 업어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 아기를 업는 소품들을 보며 놀이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여기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니?(아기 인형, 포대기, 아기 띠, 그물, 천 보자기, 서로 다른 아기 업기 그림이 그려진 삼각 주사위 등)

-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놀이방법을 소개한다.
- 4. 유아가 나와 놀이방법에 따라 시범을 보인다.
 - (아기를 업는 소품을 보며) ○○는 어떤 물건으로 아기를 업어 볼까?
 - ○○는 긴 끈으로 아기를 업어보았구나.
- 5. 유아들이 아기 업기 놀이를 한다.
 - 뽑기 통에서 이름표를 뽑아 놀이할 순서를 정한다.
 - 순서대로 유아가 나와서 주사위를 던지고, 주사위에 나온 방법대로 준비된 도구를 이용하여 아기 인형을 업는다.



- 6. 놀이에 대한 평가를 한다.
 - 어떤 점이 재미있었니?
 -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니?

○ 확장활동

1. 아기 업기 게임을 해본다.
2. 역할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기를 업고 자정가 놀이를 해본다.
3. 아기를 쉽게 업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본다.

○ 교사를 위한 도움말

1. 「엄마 등에 업혀서」



〈과테말라〉

커다란 솥을 둘러 아기를 알가슴에 안아주면 아기는 따스한 엄마 품에서 젖을 빨다 잠이 든다.



〈인도네시아〉

웁은 진을 포대기 삼아 아기를 허리에 안고 시장에 간다.



〈누니부토〉

아기가 엄마의 외투에 달린 끈지막한 모자 속에 포근하게 앉아 있다.



〈태국〉

할머니가 튼튼한 삼베 끈으로 등에 아기를 업고 있다.



〈브라질〉

어깨에 걸친 긴 끈으로 아기를 감싸서 왼쪽 옆구리에 안고 있다.



〈네팔〉

아기가 어깨 등에 업혀서 사람 틈을 구경하고 있다.



〈파루아뉴기니〉

날씨가 더운 이곳에서는 아기가 그물로 만든 시원한 주머니에 들어가 엄마 머리에 매달려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

아기가 편자로 만든 요람에 담겨 엄마 등에 업혀 있다.

다문화 가정·유아를 위한 도움말

1. 유아가 어렸을 때 부모가 업어주는 사진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활동시간에 자료로 활용하여 업어주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부모가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2. 다문화 가정 부모의 모국에서는 아기를 어떻게 업는지 알아보고, 다문화 가정 유아나 교사가 아기를 업는 방법을 소개한다.
3. 다문화 가정 부모의 모국에서 아기를 업는 방법을 유아들이 역할놀이 영역에서 활동해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다문화 가정 유아가 「엄마 등에 업혀서」 동화를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알림장을 통해 책을 소개한다.

- 4세 활동: 세계여러나라 ‘세계의 싸서 먹는 음식’

09



세계의 싸서 먹는 음식

4세

활동유형	대·소집단활동-게임	생활주제	세계 여러 나라	다문화 교육요소	문화이해
활동목표	- 세계 여러 나라의 싸서 먹는 요리를 알아 본다.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싸서 먹는 음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본다.				
누리과정 관련요소	- 의사소통 >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 사회관계 > 사회에 관심 갖기 >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 사회관계 > 사회에 관심 갖기 >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활동자료	김, 상추, 🍷 세계 여러 나라의 싸서 먹는 음식, 🍜 중국의 청하오핑 만드는 모습, 🍜 월남쌈을 만들어요, 원형 부직포 여러 장, 월남쌈 재료 모형, 구절판 재료 모형, 주사위 2개				

○ 활동내용 및 방법

- 음식을 싸서 먹어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김'을 보며) 이것은 무엇이니?
 - 음식을 김에 싸서 먹어본 적이 있니?
 - ('상추'를 보며) 이것은 무엇이니?
 - 상추에 싸서 먹어본 적이 있니?
- 〈세계 여러 나라의 싸서 먹는 음식〉 PPT 중 구절판 사진을 보며 우리나라 음식 '구절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구절판 사진을 보며) 이것은 무엇일까?
 - 어떻게 먹는 것일까?
 - 구절판은 동그란 밀전병에 8가지 재료를 싸서 먹는 음식이란단.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싸서 먹는 요리가 있을까?
- 〈세계 여러 나라의 싸서 먹는 음식〉 PPT와 〈중국의 청하오핑 만드는 모습〉 동영상을 보며 여러 나라의 싸서 먹는 요리에 대해 알아본다.
 - 다른 나라에도 구절판과 같이 싸서 먹는 음식이 있을까?
 - (월남쌈 사진을 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과 비슷하게 생겼니?

09

세계 여러 나라

- 어느 나라 음식일까? 이것은 베트남의 '월남쌈'이라고 해.
- 먹어본 친구들이 있니?
-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것일까?
- <<중국의 청하오핑 만드는 모습> 동영상을 보며 중국의 청하오핑이라는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란다.
- 4. 구절판과 월남쌈 게임을 소개하고 모둠을 나누어 게임을 해본다.
 - 여러 나라의 싸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오늘은 구절판과 월남쌈 요리하기 게임을 해 보도록 하자.
 - 게임방법은 월남쌈과 구절판을 만드는 방법과 같아.
 - <<월남쌈을 만들어요> PPT를 보며 월남쌈은 이렇게 만든단다.
 - 여기에 있는 숫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만큼 하얀 부직포에 재료를 넣어 요리를 완성하여 우리나라 인형과 베트남 인형의 입 속에 넣어주는 게임이야.
 - 재료가 먼저 떨어진 모둠이 이기게 된단다.

〈게임방법〉

- ① 2개의 모둠(구절판 모둠, 월남쌈 모둠)으로 나눈다.
- ②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 만큼 재료를 부직포에 넣는다.
- ③ 반원점에 있는 자신의 팀 인형의 입속에 넣는다.

○ 확장활동

1. 월남쌈과 구절판 만들기 요리활동을 해본다.

○ 교사를 위한 도움말

1. 세계 여러 나라의 싸서 먹는 음식



〈한국-구절판〉

구절판은 집합에 담겨 먹는 한국 고유 음식이다. 물레의 여덟 칸에 각각 여덟 가지 음식을 담고, 가운데 둥근 칸에는 밀전병을 담아 물레의 음식을 골고루 조금씩 집어 밀전병에 싸서 먹는다.



〈중국-청하오핑〉

중국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다. 다양한 곡물로 만들어 영양이 풍부하다. 딱딱한 편이고 구멍이 많다. 일게 또는 두껍게 만들어 다른 음식들을 싸서 먹는데 이용한다.



〈베트남-인제라〉

밀가루로 만든 얇고 평평하며 둥근 모양의 빵으로 예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에리트리아에서 먹는 아프리카 전통빵이다. 고기나 소스를 먹거나 샐러드를 싸서 먹는다.



〈베트남-월남밥〉

월남밥은 쌀종이(라이스페이퍼)에 돼지고기, 새우, 채소, 소면, 쌀면 등을 싸서 먹는 베트남 음식이다. 양념으로는 까나리액젓에 청양고추를 찢어 달은 것을 사용한다. 채소를 써서 뜨거운 물에 쌀종이를 적셔 싸서 먹기도 하고, 시브시브처럼 뜨거운 물에 고기와 새우를 데치고 그 국물에 쌀종이를 적셔 싸먹기도 한다.



〈타카-케밥〉

케밥은 초원과 사막을 누비던 유목민들이 쉽고 간단하게 육류를 요리해 먹는 것이 발전한 것이다. 양고기(쇠고기, 닭고기)를 찢고 겹겹이 한 끼 식사로 먹는다.



〈멕시코-앙칠라다〉

토르티야 사이에 고기, 채소, 아재, 치즈 등을 넣고, 동그렇게 막대 모양으로 말아 소스를 뿌린 다음 오븐에 굽는 멕시코 요리이다.

❶ 다문화 가정·유아를 위한 도움말

1. 우리나라의 구절판 만드는 방법 및 먹는 방법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안내하여 다문화 가정 부모의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정에서 유아와 만들어 먹어 봄으로써 가족 간에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가족이 모르게 쌀 재료를 넣어 서로에게 먹여준 후 속 재료 알아맞히기 놀이를 하도록 소개한다.

- 5세 활동: 나와 가족 ‘결혼식에 먹는 특별한 음식’

나와 가족

결혼식에 먹는 특별한 음식



활동유형	대·소집단활동-이야기 나누기	생활주제	나와 가족	다문화 교육요소	문화이해, 정체성
활동목표	• 여러 나라의 결혼식 풍습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결혼식 음식에 담긴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여러 나라의 결혼식 음식상을 꾸민다.				
누리과정 관련요소	• 사회관계 > 사회에 관심 갖기 >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 예술경험 > 예술적 표현하기 > 극놀이로 표현하기				
활동자료	[📖] 세계 여러 나라의 결혼식, [📖] 「짜우까우(TRAU CAU)나무」, [📖] 결혼식에 먹는 특별한 음식, 다양한 결혼소품들(결혼 의상, 부케 등), 여러 나라의 결혼식 날 먹는 특별한 음식 그림, 결혼식 상차림 활동지				

● 활동내용 및 방법

- 결혼식에 가 본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 결혼식에 가 본 적이 있니?
 - 누구의 결혼식에 가 보았니?
 - 결혼식에서 무엇을 보았니?
 - 엄마, 아빠의 결혼사진을 본 적이 있니?
- 〈세계 여러 나라의 결혼식〉 PPT를 보며 이야기 나눈다.
 - 신랑, 신부는 어떤 옷을 입고 있니?
 - 어디서 결혼식을 하고 있니?
 - 어떤 결혼식이 마음에 드니?
 - 결혼식에는 어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할까?



3. 「쩨우까우(TRAU CAU)나무」 동화를 듣고 난 후 이야기 나눈다.
 -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를 위해 특별한 의미가 담긴 열매나 음식을 차린다.
 - 베트남 결혼식에는 무엇을 준비했니?
 - 열매는 왜 있을까?
 - 그 열매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4. 〈결혼식에 먹는 특별한 음식〉 PPT를 보며 음식과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나라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위해 준비하는 특별한 음식이 있단다.
 - 다른 나라에서는 신랑, 신부를 위해 어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할까?
 - 일본에서는 결혼을 축하하며 콩, 대합국을 먹는단다.
 - 중국에서는 결혼을 축하하며 진복을 준비하는데 풍요롭게 잘 살라는 뜻이 담겨 있단다.
그리고 닭과 구운 생선은 부부가 함께 오래 살라는 뜻이란다.
 - 나라마다 이런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5. 여러 나라의 결혼식 날 먹는 특별한 음식 그림으로 결혼식 상차림을 꾸며본다.
6. 활동 후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확장활동

1. 다양한 결혼식 의상 및 소품을 이용하여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꾸며본다.

2. 결혼식에 필요한 소품을 가지고, 역할을 정한 후 결혼식 놀이를 해 본다.

교사를 위한 도움말

1. 결혼식에 먹는 음식의 의미



《우리나라 전채국수》
결혼식 때 먹는 전채국수는 부부의 금
술이 국수처럼 얹혀 잘 살라는 의미가
있다.



《중국의 구운 생선요리》
장수하라는 의미가 있다.



《중국의 전복요리》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일본의 콩요리》
액거를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다.



《베트남의 쓰어 격》
여자의 자궁 모양을 닮은 과일에 참쌀
밥을 담은 음식으로 다산의 의미가 있다.



《프랑스의 크로캉부슈》
18세기 프랑스 왕실과 귀족들의 중세
풍 식탁 위에 건축물 형태로 만들어진
먹을 수 있는 과자를 장식한 것에서 유
래되었다. 결혼식에 웨딩 케이크로 만
들 때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크로캉
부슈의 맨 위에 장식하기도 한다.

2. 「찌우까우(TRAU CAU)나무」 동화



옛날, 베트남의 한 마을에 똑같이 닮은 형 띠와 동생 랑이 살았어요. 띠와 랑은 너무나 닮아서 동네 사람
들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지요. 두 형제는 마을도 착하고 우애도 아주 깊었습니다.



형이 열여덟, 동생이 열일곱 되던 해였어요. 아버지는 그만 병이 나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그러자 형제
는 이웃 마을의 선생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선생님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두 형제에
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형은 선생님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지냈고, 가정 일에 신경 쓰느라 자연스
럽게 동생 랑에게 소홀해졌지요. 랑의 마음엔 점점 서운함이 가득 쌓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 형제는 아침 일찍 사랑을 나갔다가 동생 형이 먼저 잠에 들어왔어요. 형의 아내도 동생을 자기 남편인 줄 알고 뛰어나가 안아 주었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형이 보고 만 거예요. 동생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형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이, 그 길로 공장 집을 뛰쳐나갔어요.



동생은 한참 동안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강가에 이르렀어요.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자 주저앉아 울던 동생은 그만 굴주림과 주위에 떨어 죽고 말았어요. 동생은 죽어서 커다란 비위가 되었지요. 동생이 가엾다는 생각이 든 형은 동생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동생이 죽어서 변한 비위 알까지 오게 되었지요. 형은 동생을 잃어버린 슬픔에 울다가 지쳐 죽고 말았어요. 형은 비위 옆에 한 그루의 나무로 변했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를 까우나무라고 불렀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집을 나간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내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남편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몇 날 며칠을 남편을 찾아 헤매던 아내는 자칫 대로 지쳐 까우나무 앞으로 와서 기댄 채 죽고 말았지요.



죽은 아내는 나무로 변한 남편 곁에서 한 그루의 덩굴나무가 되었어요. 덩굴나무는 아주 싱싱한 푸른 잎을 내고 까우나무를 휘감아 오르며 높이 높이 자랍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썬우나무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왕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 나무들을 보게 되었어요. 왕은 까우나무 열매와, 비위에서 뽑아낸 식외기루를 썬우나무 잎으로 싸서 한입 씹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지요. 왕은 그 귀한 나무를 온 나라에 실어 사람들에게 썬우나무를 씹으면서 형제간의 우애와 부부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라고 했대요.

○ 다문화 가정·유아를 위한 도움말

1. 활동 전에 다문화 가정 부모의 모국에서 결혼식에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음식의 사진이 있을 경우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2. 다문화 가정 유아의 부모 모국에서 결혼식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을 경우 다문화 가정 부모를 자원봉사자로 초대하여 소개하고 요리활동을 계획해 봄으로써 다문화 가정 부모의 참여도를 높인다.
3. 다문화 가정의 유아가 부모의 모국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경우에 맛이나 생김새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4. 다문화 가정에서 유아가 우리나라 결혼식에서 먹는 음식이나 부모의 모국에서 먹는 음식을 부모와 함께 요리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안내한다.

연구보고 2013-26

취약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
-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이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6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54-1 93330